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9 어려울 땐 점쟁이 바바

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아들 녀석도 벌써 5개월로 성장했고, 매일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인 고양이(깜장)한테 있어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이벌의 출현이군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별로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던 주제에, 지금은 끈적끈적 달라붙습니다. 일부러 라이벌인 아들의 이불에서 자거나, 아들을 부채로 부쳐주면 자신도 부쳐달라며 칭얼대고, 바닥에 함께 누워버리기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줬으면.

ca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9편 어려울 땐 점쟁이 바바

AKIRA TORIYAMA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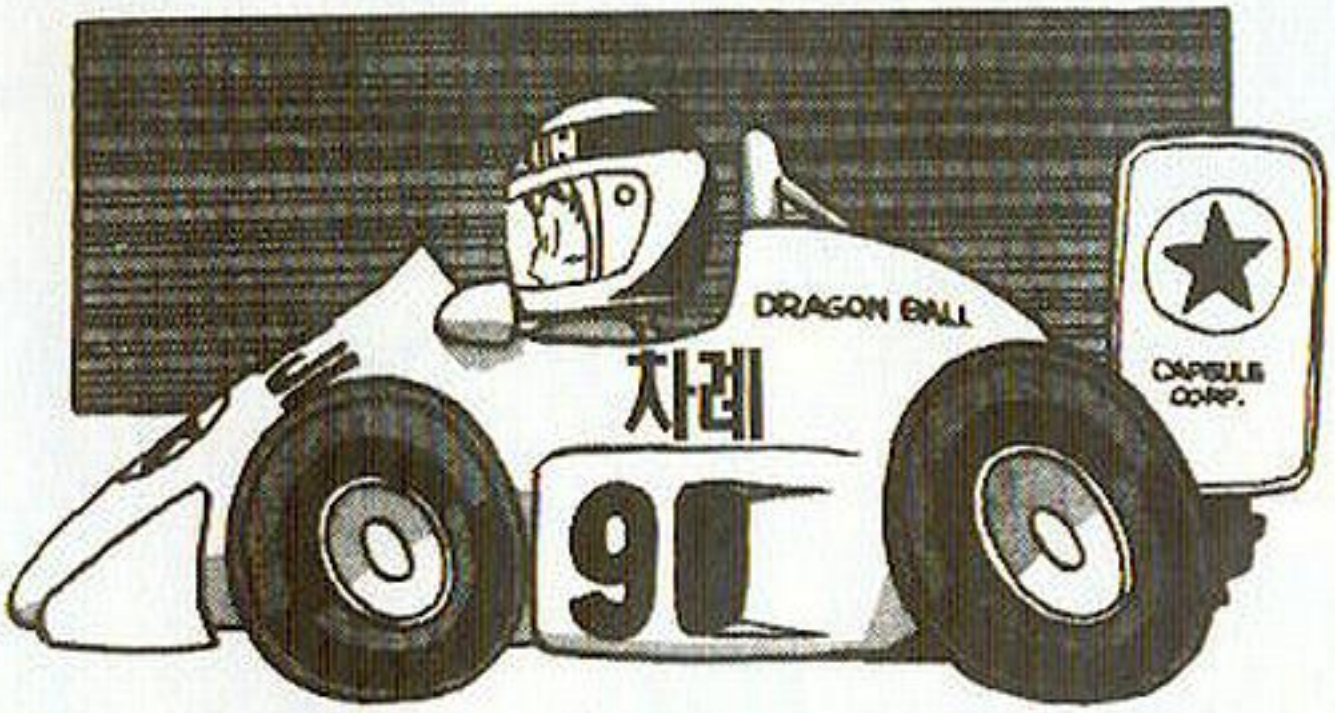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부르마와 손오공은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신기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었다. 대 모험 끝에 겨우겨우 모든 구슬을 모았지만, 악당 피라후에게 뺏겨버린다. 그래서 오공과 친구들은 여자 팬티라고 하는 보잘 것 없는 소원을 먼저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는 모험 여행에 나선다. 도중에 알게 된 우파의 아빠는 레드리본 군이 파견한 살인청부업자에게 살해 당한다. 오공은 레드리본 군을 전멸시키고, 구슬 6개를 손에 넣는다. 남은 것은 하나뿐…!!

DRAGON BALL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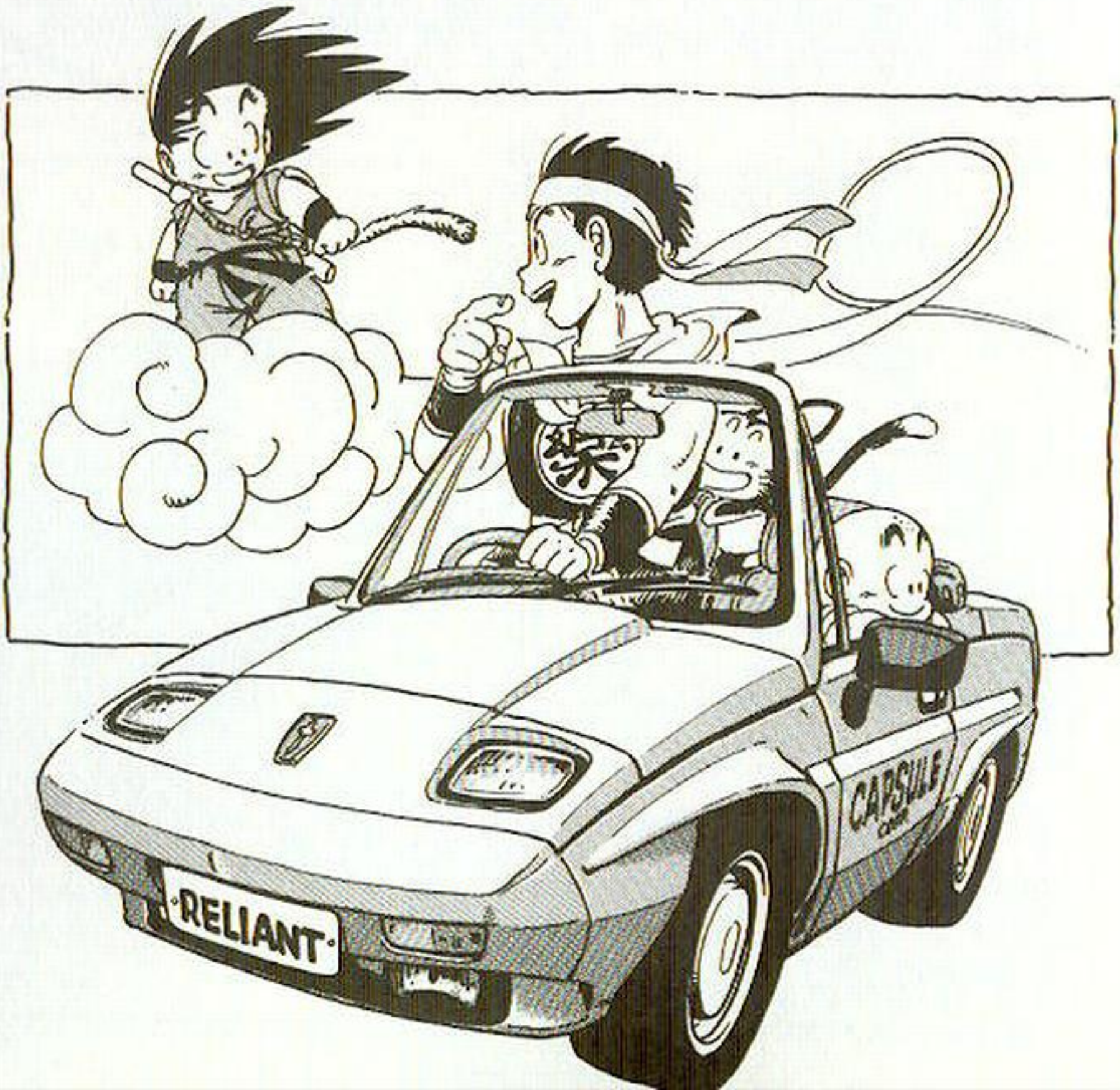
어려울 땐 점쟁이 바바



제97화 마지막 드래곤 볼 7
제98화 점쟁이 할머니 바바 22
제99화 5인의 전사 36
제100화 대혈전 50
제101화 악마의 화장실 64
제102화 손오공 등장 78
제103화 손오공의 파워!! 92
제104화 아크마이트 광선 106
제105화 5번째 사나이 120
제106화 강적끼리의 대결 134
제107화 오공의 꼬리 149
제108화 손오반 164
표지 페이지 대특집 Ⅷ 179

DRAGON BALL

제97화 마지막 드래곤 볼



마침내 혼자서 레드리본 군을
멸망시킨 손오공.
이제 남은 한 개의 드래곤 볼만
찾으면 되는데….

어라?

찰칵
찰칵
찰칵

이상
한데?

……?

좋아!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어디 있지!?

찰칵

자, 이제 레드리본 군의 기지에 도착했다!

CAPSULE CORP.

적에게 들키지 않게 뛰어서 잠입하는 거야!

휘이잉---

기지에 너무 가까이 가면 공격을 받잖아. 이 근처에서 내리자.

왜 이렇게 외딴 곳에 내려? 너무 먼 거 아냐?

착륙하자!

오공을 구출해야지!

자, 가자!

CAPSUL CORP

모두들! 열심히 싸워서 손오공을 꼭 구해와!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잠깐!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가면 위험하잖아.

작전을 짜야지.

아, 그렇군요….

아야 야야! 가, 갑자기 배가 아파…!

속보이는 뻥 좀 치지 마!

……

꾸물거리지 말고 후다닥 뛰어 들어가서 싹 쓸어버리자!

이… 이 사람, 여자 맞아요…?

돼지의 도움도 필요할 정도로 급하다구!

돼지? 야, 그럼 넌 여우다!

제길~! 쳇!

오공 녀석,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귀찮게…!


부르마가 발가벗고 병사들의 눈길을 딴 데로 돌리게 하고….
수군 수군!
속닥 속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미쳤어?


뭐!?
모두 숨어! 뭔가 날아온다.


어?
그럼 난 왼쪽에서 공격할게.


예!
캡슐로 되돌려 버려!


아앗!!
크, 큰일났다! 비행기 숨겨야지!
CAPSULE CORP.


빠

들키지 않았을까….

휴우!

팟

저, 저건 오공이잖아?

정말! 오공이야!

엥…?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부르마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할 텐데…. 돌아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

큰일이네…. 또 드래곤 레이더가 고장난 것 같아….


어떻게 살아 있었네…?
어이! 여기야, 오공!
미스터 손!
야! 오공!


손오공-! 여기야!
아니!?


어?
어이, 오공-!


왜 이런 데 있느냐고? 흥!
아무래도 레드리본 본부로 돌격하는 건 포기했나봐.


앗! 저기 다 있잖아!
휘-익
왜 이런 데 있는 거지-!?

네가 혼자 레드리본 군 본부로 돌격한다고 해서 모두들 도우러 왔어!

와~! 내가 그러는지 어떻게 알았지…?

언제 봐도 못말릴 오공이라니까.

하지만 놈들 본부에 안 들어간 건 잘한 거야!

음?

아니야. 나, 들어갔었어.

뭐?

모두 해치우고 드래곤 볼 여섯 개를 찾았지!

모… 모두 해치웠다니? 레드리본 군을…? 혼자서…?

그래! 나머지 놈들도 모두 도망갔어!

뭐!?

전멸 했다구요 -!!

정말 이에요-!

뭐… 뭐야!?

푸, 푸알! 기지에 한 번 갔다 와봐!

아, 예!

나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믿을 수 없어….

아니, 너 혼자서…?

겨…, 경찰도 손을 못대던 그 레드리본 군을….

정말 엄청난 놈이잖아…?

응! 카린 님도 만났어!

?

너, 너도 카린탑에 올라 갔어?

신비한 물도 마시고!

뭐야!?

할아버지도 옛날에 올라갔었던 카린탑에 올라갔거든!

대… 대단한 놈…. 나같은 실력자도 그 초성수를 마시는데 3년이나 걸렸었는데….

그… 그랬구나…! 그래서 더욱 엄청나게 강해진 거야….

뭐?
여섯 개나
모았는데
아직
할아버지의
형상구를
찾지
못했니!?

드래곤
레이더가
또 망가졌어.
고쳐줘.

아참!
부르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오공,
정말
훌륭하다!

호오!

그런데 레드리본
군에게 죽은 우파란
아이의 아버지를
용신에게 부탁해서
살려내준다고
약속했거든.

사성구는
찾았어.

헤이이이----

어쨌든 여기서는
고칠 수 없으니
우선 거북신선네
집으로 돌아가자.

알았어.


예에!?
그렇게
강해요!?
이젠 나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쟤는
점점
강해져 가.


우와….
하하하…!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오공은 더욱더
강해질걸.


나 무천도사도
그 많은 적을
상대로 싸울
스태미너가
없는데 말이지….
저 녀석은
혼자서
레드리본
군을 전멸
시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거의
막상막하
였는데….


머엉!
그렇지!
맞아!
우리가 다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어지간한
수련으로는
택도 없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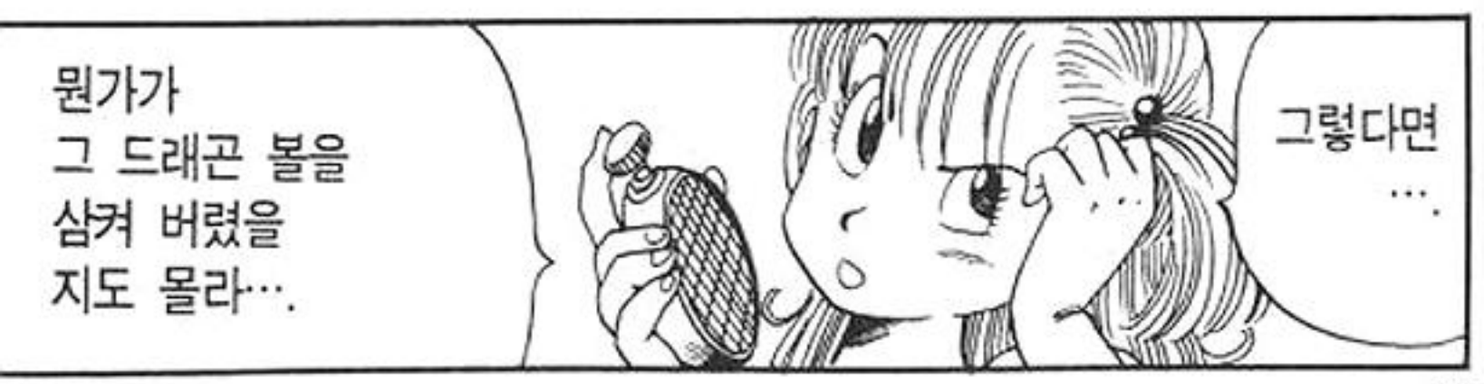

나, 나도
갈까…?
남은 하나의
드래곤 볼을
찾으러 갈 때는
나도 함께 가서
수련해볼까…?


이상
해네….
KAME
HOUSE

고장난
데가
없어….
그럼
왜 남은
하나가
나타나지
않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곱 개가
다 보였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진
않았을 거야.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 거
아냐?


뭔가가
그 드래곤 볼을
삼켜 버렸을
지도 몰라….
그렇다면
….


드래곤 볼의 특수한 전파는 생명체에 둘러 쌓이면 레이더로 찾을 수가 없어.
아마 그럴 거야.
드래곤 볼을 삼켜?


그렇지! 이젠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뭐.
그러면 이젠 찾을 수가 없겠네?


동물이 삼켰을지도 모르지. 악어나 하마 같은 게 먹이로 잘못 알고 말이야!
그런 걸 삼키는 바보가 어딨어?


글쎄, 잘 나올까?
으이그~! 지저분하게!
똥으로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떡하지…?
이, 이거 큰일났네….


간신히 여섯 개를 모았는데….
골치 아프네….

아마
그 드래곤 볼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점쟁이
할머니
바바의
궁전에
가면….

아주 귀신 같은
점쟁이 할머니지.
무얼 찾을 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그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
반드시 찾아낼
수 있거든.

그게
뭐죠…?

점쟁이
할머니 바바의
궁전?

난 알겠어!
같이 가자!

이런 종이
보고 어떻게
알아?

지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어디
있는데?

정말
!?

CAPSULE
CORP.

야무치!
나 먼저
집에 갈 테니
비행기 캡슐
하나만 줘.

뭐 하러 가?
이젠 지겨워
죽겠는데.

너희들은
함께
안 갈래?

나도
절대
안 갈 거야.

잘
다녀와!
조심하고,
열심히 해!

이제
위험한 일은
없겠지….

그럼
손오공하고
같이
수련하고
올게!

?

오공의
파워라면
아마 점을
쳐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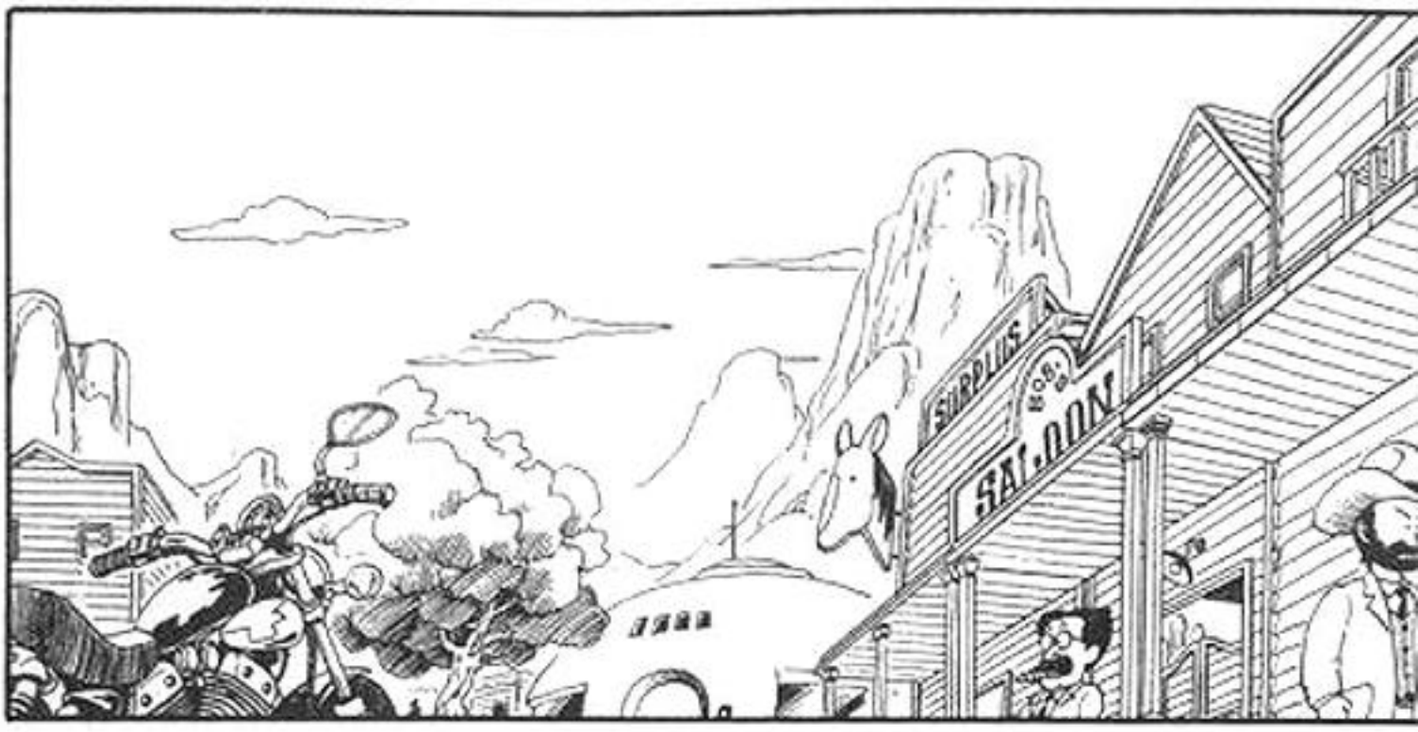
휘이이잉…

KAME HOUSE

다음은, 제98화 점쟁이 할머니 바바

마지막 남은 드래곤 볼이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데,
무천도사가 「점쟁이 할머니 바바」한테
가 보라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무엇이든 점을 쳐서 찾아줄 수 있다는
점쟁이 할머니 바바를 찾아가는
손오공은….




SURPLUS
SAI-ON


하하하!!
잘 어울린다! 꼭 유치원생 같아!


이게 뭐야~!


어떡 하시겠 어요?
난 계속 입던 옷이 좋아.


이 거북 글자도 넣을까요?
응! 가슴 쪽에도 넣어줘! 그리고 꼬리 구멍도 뚫고.


그래, 그게 좋겠다.
응!

제일 싼 옷감으로 부탁해요.

한 시간이면 될 거예요.

워 만들기 쉬운 옷이니….

이제 곧 드래곤 볼을 다 찾게 될 테니까! 우파가 기뻐할 거야.

그럼 난 그 동안 우파를 데려올게!

완성될 때까지 오락실에나 들어가 있을까?

그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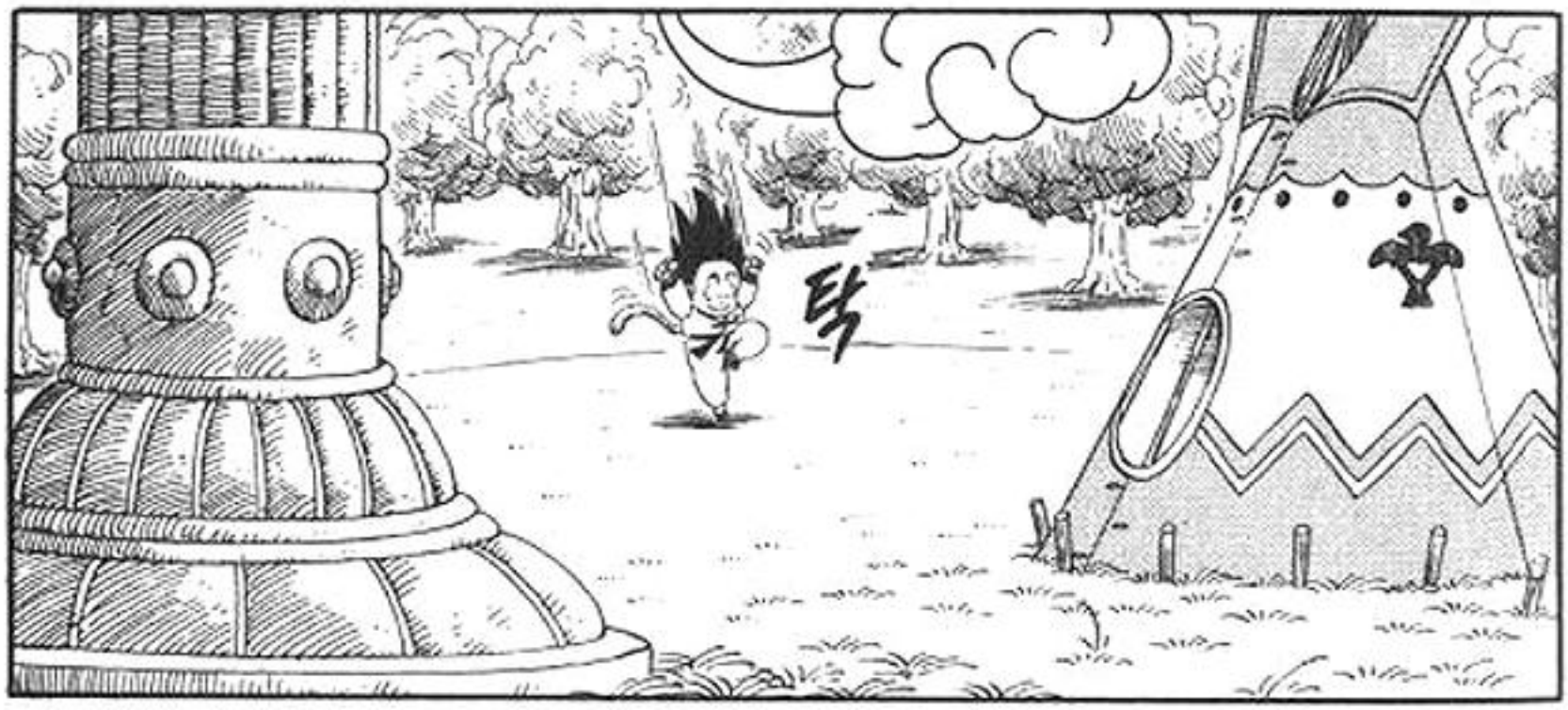
어쩌지?

그래!

휘잉

그럼 빨리 갔다 와야 해!


저기다,
저기!


탁


와—!
역시
오공 형이
왔구나!


손오공…?


우파!
어딨니?
나 왔어!

헤헤헤~!
레드리본
놈들을
묵사발
내버렸지!

내가
계속
기도했어.

드래곤 볼도
6개 모았어!
이제 하나만 찾으면
너희 아버지를
살려낼 수가 있다구!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난
안 죽어!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

7번째
드래곤 볼은
어디 있는데?

당근이지!
아버지가
살아나면
수련시켜
달라고 해!

나도
오공 형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신기한 게
많아서
재미있어!

좀
무서워….

저기…, 난
카린에서만
살아서 딴 데
가는 건
처음이야….

생각보다 예쁜 여자애다!

응! 너 남자지?

오공! 옷이 다 됐어.

아, 그래…. 헤헤.

난 푸알이야.

아, 안녕!

얘가 우파야!

이, 이런 데서 갈아 입지 마….

호호호!

이젠 내가 남자랑 여자를 더 잘 구별하게 됐네.

뭐, 뭐야? 남자야…?

쳇!

신발도 새 거네!

헤헤—!

고마워, 야무치!

고추 만지지 마!

조물락 조물락

이 근처일 텐데….

푸알! 이제 얼마나 남았지?

저 호수 옆에 건물이 있어! 분명히 저걸 거야!

그래도 무천도사 님이 준 지도에는 분명히….

이 근처라니…, 여긴 사막뿐인데….

맞아! 그럴 듯한 건물인데! 틀림 없겠지!

휘이잉…

우리 말고도 온 사람이 있나봐.

무척 더운 동네네요….

CAPSULE CORP.

힐끔

저~!

자, 자! 줄을 서세요, 줄을!

당신들도 다섯 명이 같이 왔나요?

뭐? 아, 그래. 그런데….

점빼는 게 아니라, 점치는 할머니 바바의 집입니다.

여기가 점빼는 할머니 바바 집이야?

그럼 순서가 되면 부를게요.

이상한 녀석이야….

그래요~!

그렇구나~.

헤헤헤~!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인상 더러운 사람들 뿐이고….

아무래도 이상한걸….

정말 다행이죠, 여보?

그러고보니 거기 들어 있었구나. 그 금덩어리가!

아~, 맞아! 그래!

에이, 겁주지 마! 아마 어디 도장을 같이 다니는 사이좋은 5인조겠지.

좋았어 ——! 가자 ——!! 파이팅!!

자, 다음 손님 들어 오세요.

으음.

부……응

인상 더러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

저… 저 사람들…. 엄청 힘주고 들어가네….

엄마-
꽥-
으악-

돼지
잡나?

무… 무슨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또
오세요~!

으,
으악!

안
됐습니다~.

비틀
비틀
비틀

엉~
엉~

해해헤
~!

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저게
뭐야?

자,
오래
기다리
셨어요!

자,
이쪽으로!

…….

야무치 님~!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젠 어쩔 수가 없어….

나… 나 무서버….

오냐!

모셔 왔습니다~!

모두 어린애들이군….

잘 왔네!

점쟁이 할머니 바바다!! 무엄한 놈!

네가 점빼는 할머니 바바야?

천만 제니 내!

그래?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저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라서 그래!

이름 한 번 요상하네.

내 그럴 줄 알았지.

우, 우린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럼 이리 와.

어, 어쩌려고요…?

처, 천만 제니—!?

도, 돈을 내야 해!?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나 해둬….

어… 어쩔 셈이야….

엑?

이기면 그대로 다음 선수와 싸우고, 지면 너희 중에 다음 선수가 나온다. 우리 선수 5명을 꺾으면 돼.

이기면 공짜로 점을 쳐주지.

여기서 한 사람씩 우리 선수와 격투를 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세 명은 그 유명한 천하제일 무술 대회에서 상당한 성적을 올렸다구요.

후후후! 할머니….

아까 그 다섯 사람은 여기서 진 거였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더 재밌겠군.

그래?

다음은, 제99화 5인의 전사

그래,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애들 뿐이니
무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순서대로 나와 싸워서
이곳 선수 다섯 명을
모두 꺾으면 공짜로
점을 쳐준다는 거죠?

나도
싸움은
좀….

나, 난
견학만
하고
싶은데….

당근이지!
재미있겠네!

하겠
어요!

호호홋!
배짱 한 번
두둑
하구나!

너희
셋이서
다섯
명을…?

그래?

그럼
우린
세 사람
이야!


특별한 건 없어. 항복하거나 호수에 빠지면 지는 거야.
규칙은?
후후후! 우리와 싸울 상대가 불쌍하군!


내가 먼저 하죠!
처억


그쪽은 누가 먼저지?
자, 시작할까?


드라 큐라맨 나와!
아, 천하제일 무술대회 때가 생각나누나!


오공 차례는 안 올지도 몰라. 나 혼자 다섯 명 다 처치하면.
크리링, 파이팅!

후후후!

이상한 이름이네…?

드라큐라…?

찍찍!

파다다닥…

찍! 찍!

퍽

파닥 파닥

뭐야, 박쥐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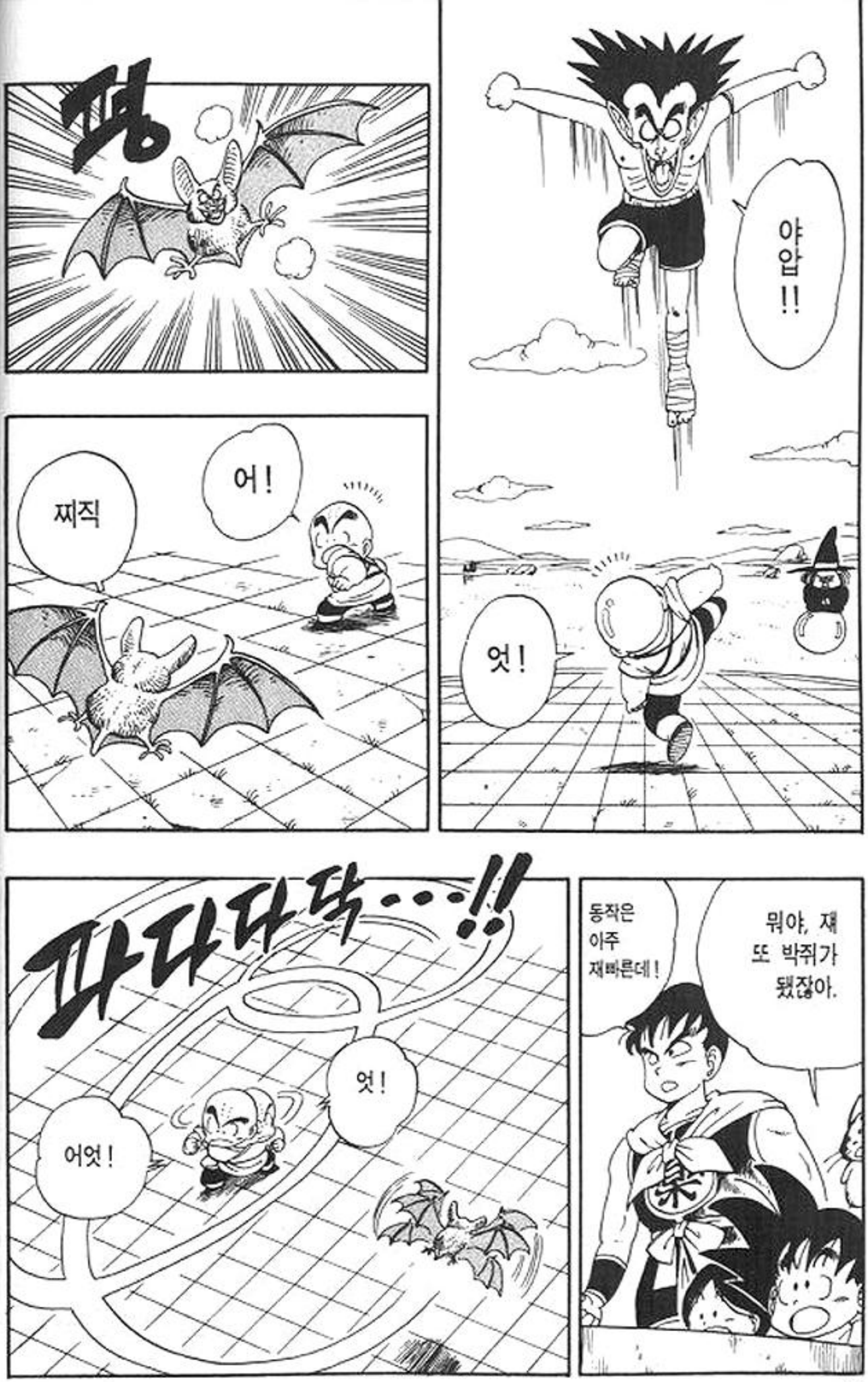
?

박쥐와 싸우라고?


킥복싱 인가…?
이, 이상한 놈이네!
앗, 사람이 됐다!
얼레리~~ ~~꼴레리
후후!


좋아! 시합 시작!
완전 빼랑 가죽만 남았군.
흥!
키키!


하앗!!
어디, 실력 좀 볼까?



야압!!
엇!
쩌
어!
찌직
뭐야, 쟤 또 박쥐가 됐잖아.
동작은 이주 재빠른데!
파다다닥…!!
엇!
어엇!


휘앙
제길-!
빠르잖아!
파닥
팟
으악!!
콱
앗!!
앗!!
쩝
쩝
으아아악~!!
뭐 저런 게 다 있어!!
피를 빨아 먹고 있다니!

히히히….
빨리 항복해!
피가 많이
나면 죽는다구!

크리링!
빠져나와!

얌마-!
그, 그만
둬!

하아악~!

파닥

파닥

이래도
안
떨어져!?

팟

이
야앗
!!

삭

크크크!

크리링, 괜찮아?

아야야…!

비틀

비틀

저… 저놈이!

아주 맛이 죽여주는걸!

애들 피는 역시 신선해서 맛있다니까.

낼름.

뿌옹

어?

불끈

이 자식이! 감히~!

항복하면 수혈해 줄게요.

어때? 졌지?

휴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헉헉!

피가
더욱 솟아
나오잖아!

화내지
말고
진정해!

뒤룩뒤룩

시끄럿!

푸앗

하하하!
크리링!
머리카락이
난 것 같다!

빠앙

에잇!!

비틀 비틀
비틀 비틀

엑!

엇!


히힛!
어!
철퍼덩


정신차려, 괜찮니!?
수혈! 수혈!


승부 끝!!


누가 드라큐라 맨과 싸울 거냐?
자, 다음은 누구지?


네가 쓸데없는 소릴 해서 그래!
뭐야, 너무 쉽게 졌잖아!

거봐!
괜히 잘난
척하더니
말야.

역시
그냥 다섯 명
다 나와도
돼요-?

저~!

속닥
속닥
소곤
소곤

어때?

키키키! 물론
상관 없어요.
저 녀석들 피가 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저-, 얘들은
젖먹이니까
둘이 함께
나가도 되지?

시합
시작!

그럼….

키키키…!

힘내!
푸알!
우파!

좋아,
인정해
주지!

알겠지?
이제
작전대로
하는 거야!

땡큐!

우물
우물

두근
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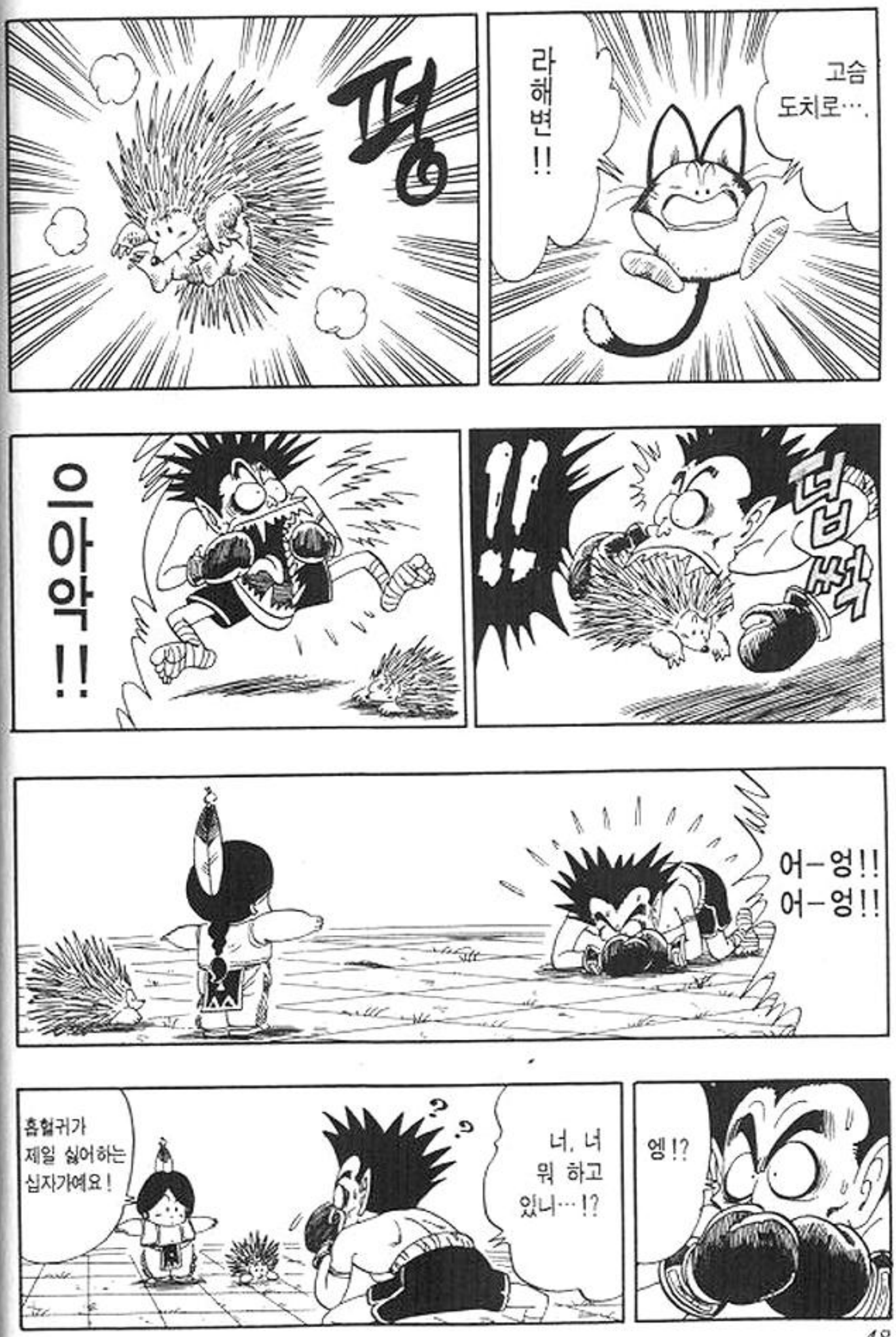

오,
온다!
캬오-!
캬오-!
타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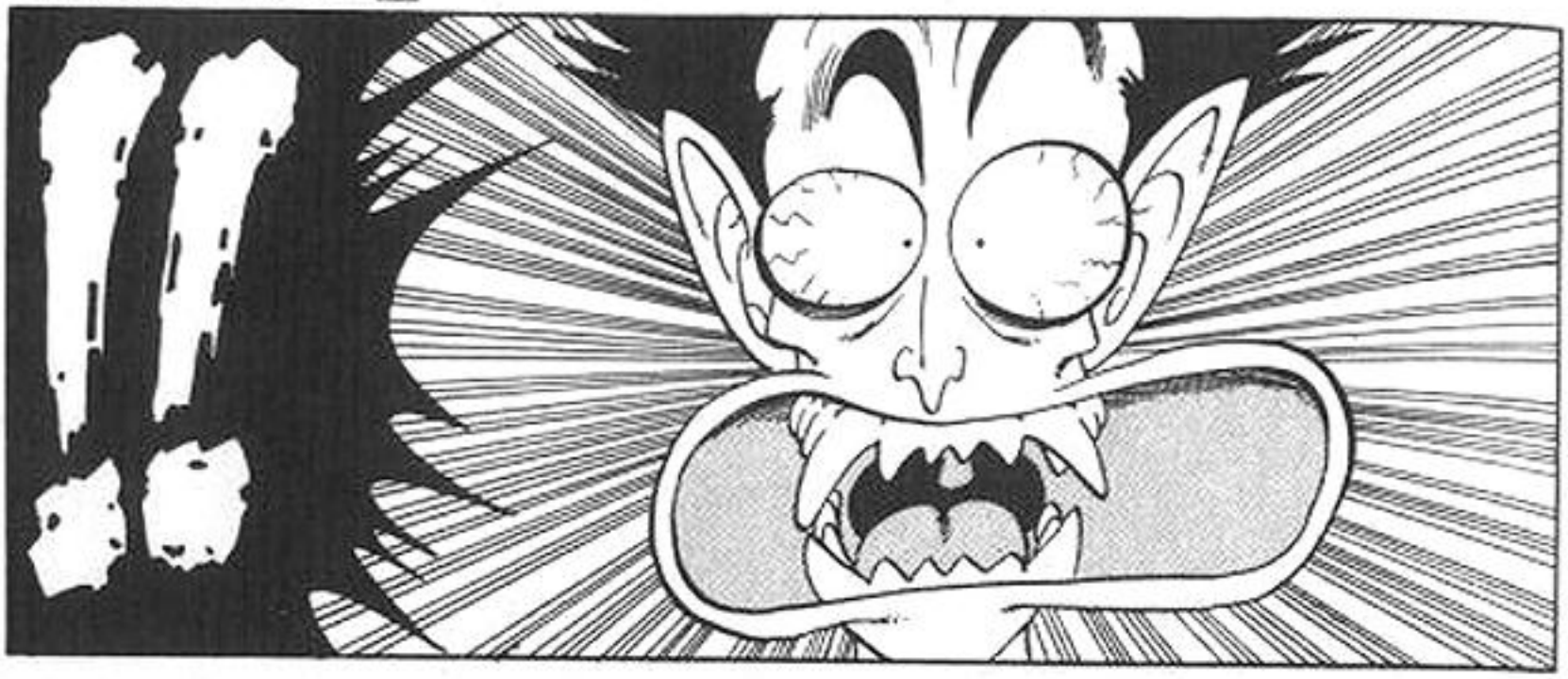

너,
너 이놈!
흡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마늘을
먹었구나!
으아악!!


후—아!!


파
파
찌직-!


그럼
옆에 있는
놈부터 피를
빨아야지!
제길-!
팟
후아-!


고슴 도치로….
라해변!!
펑
!!
덥썩
으아악!!
어-엉!! 어-엉!!
엥!?
너, 너 뭐 하고 있니…!?
흡혈귀가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예요!







다음은, 제100화 대혈전

무적의 크리링이 질 정도의
강적 드라큐라맨을 푸알과 우파 콤비가
두뇌 플레이로 멋지게 물리쳤다.
그러나 남은 대전 상대는
아직도 4명이나 있었다….

좋아!
너희들은
이제 됐으니까
내가
나갈게!

예,
고맙습
니다.

그렇지만
이쪽 선수는
점점 강해질
거야.

후호후호
후호…,
약점을
잘도 이용
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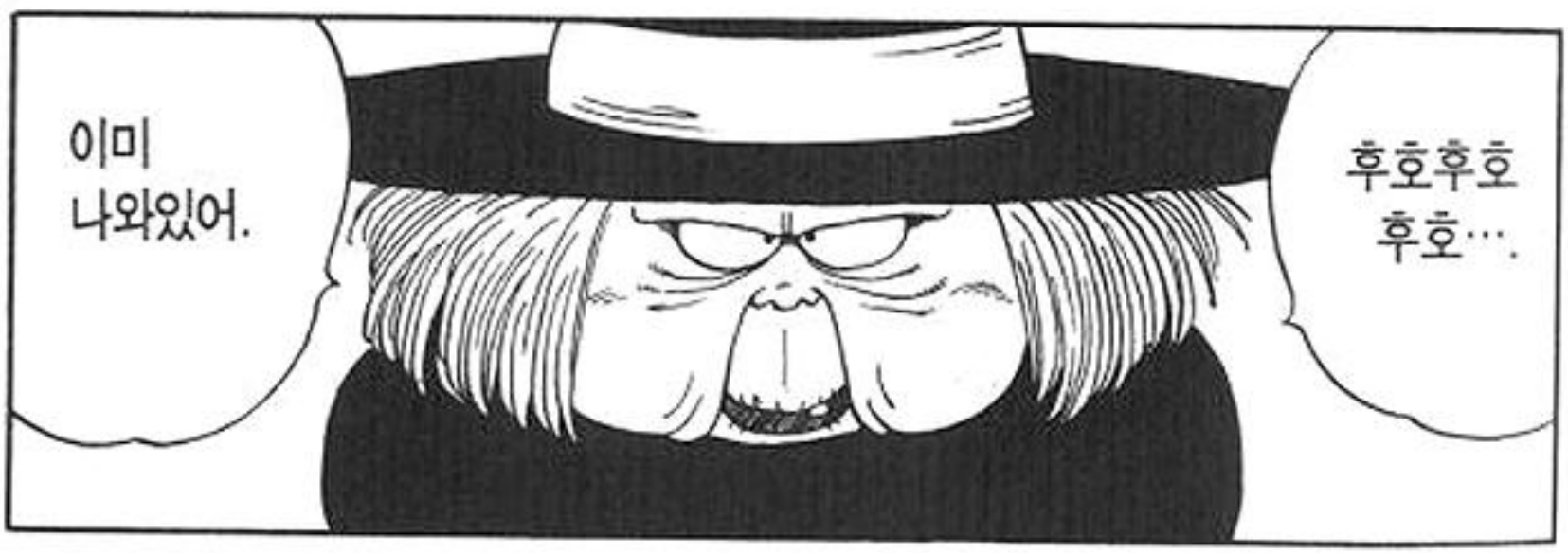
걱정 말아요!
나 혼자서
남은 4명을
전부 이겨버릴
테니까!

남은
두 사람이
우리 네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호오, 괜찮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겨우 두 명만
남게 되는 거야.


파이팅!
야무치 님!
자, 됐어!
두 번째
상대
나와라!


넌 만약을
위해
남아야 해.
내가 먼저
싸운다.
나도
싸우게
해줘!


이미
나와있어.
후호후호
후호….


어디?
아무도
없는걸?
두리번
두리번
저 할멈이
치매 걸렸나….


뭐!?

그게 당연한 거야! 이번 상대는 투명인간이니까!

헤헤헤! 안 보이지? 보일 리가 있나!

엑! 투명인간?!

시합 시작!

후후후! 간다…!

깜짝


퍼억
우웁!!
쾅당
야, 야무치 님!
으윽~! 뭐 이런 게 있어…!
어디냐…!
어디 있어!
으악!!
퍼버버버벅

팟 팟

제길!

에잇!!

붕

헉헉!

이런 빌어먹을…!!

헤헤헤! 좀전까지 큰소리 치던 허풍은 다 어디 가셨나?

오공! 빨리 무천도사 님과 부르마를 데려와줘!

뭐? 왜?

어쨌든 빨리 데려와!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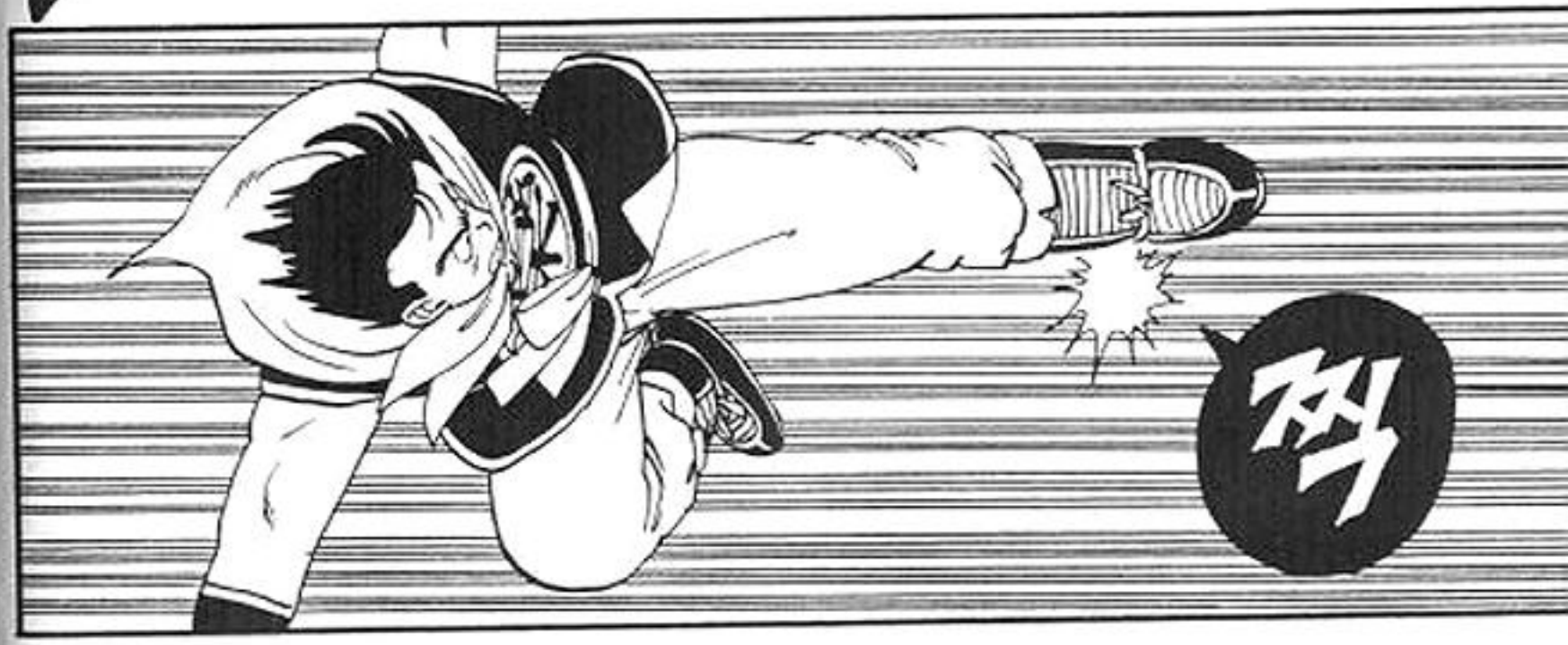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무치 혼자서 뭐 하는 거지!?

…….


휘이이잉
근두운….
저 녀석은 대체 뭐야…?
욱!!
퍼억
삭
으윽…!
크, 큰일났네! 이대로 가다간 깨끗이 지겠어!
상대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희미한 공기의 진동으로 위치를 알아낼 수밖에….


여기닷!!
앗


사삭…


쩍


헤헤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리
투명인간
이라도 움직일
때는 공기가
흔들리는 건
못막지….
후후후!
스쳤다.


탁


♬난나나 나는 ♪울트라맨이야!! 너무나도 귀여운 울트라맨이야!!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윽!?
!!
퍼퍽
퍼퍽 퍽퍽 푸웅
앗!!
힘내요, 야무치 님!
히히!
헉 헉
이, 이런…! 저 노래 소리 때문에 투명 인간의 움직임이 지워져 버리잖아…

솔직히 말해
네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졌지?

제… 제길….
적의 모습만
보인다면…!

어이~,
크리링!
데려왔어!

제시간에
맞췄구나!

아니
…!

대체 뭐야!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무슨
볼 일
있니?

아,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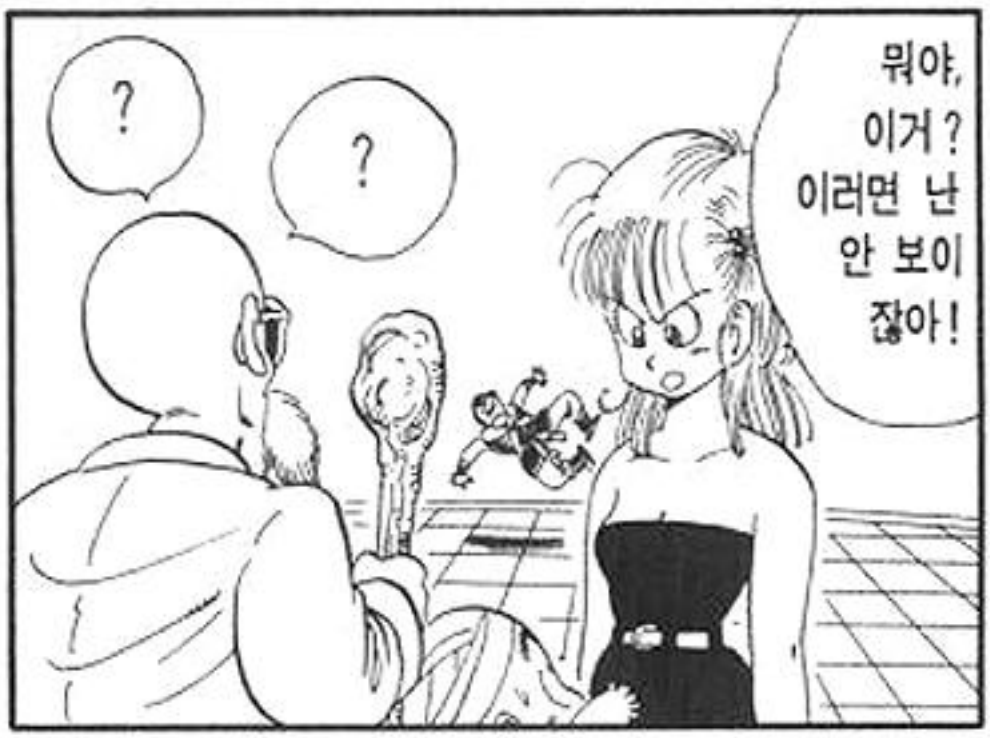
잠깐만
이 시합을 좀
봐줄 수
있겠어?

시합!?

자!
부르마는
이쪽을 봐.

무천도사
님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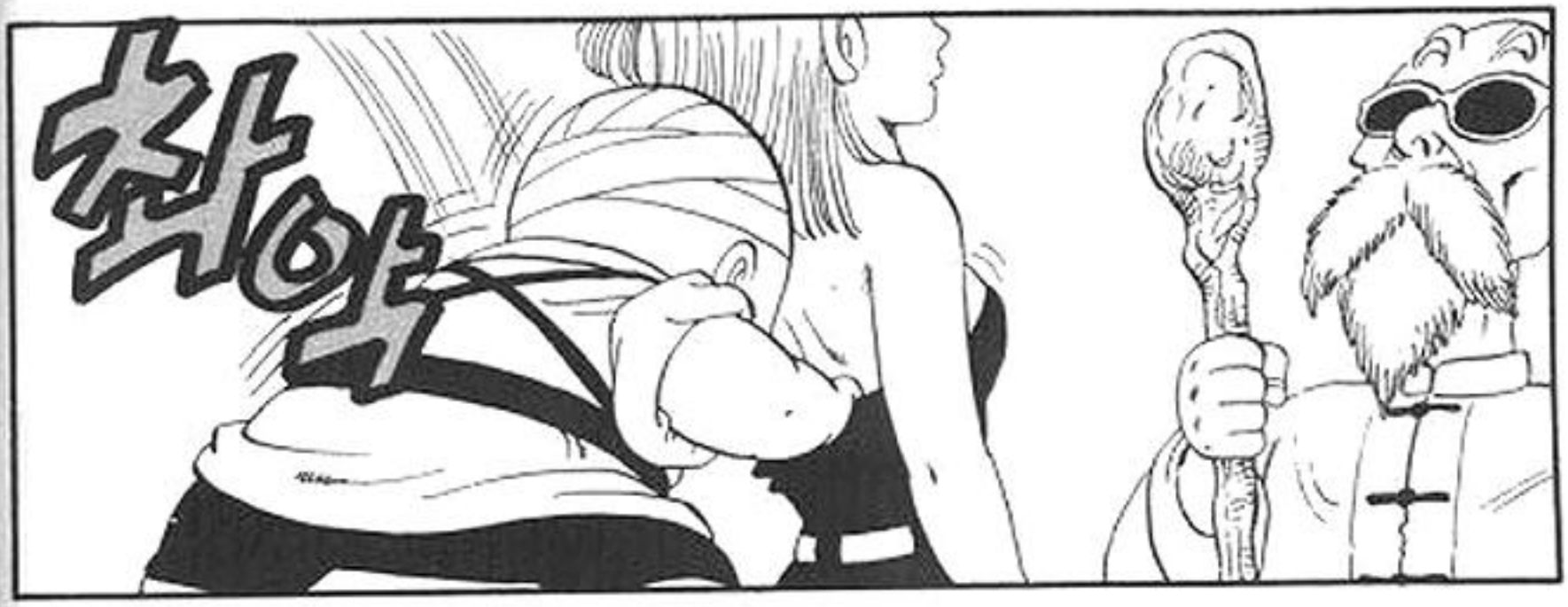

파팟
아악!
으윽!
빨리 이리로, 부르마!
어머!? 뭐 하는 거야, 야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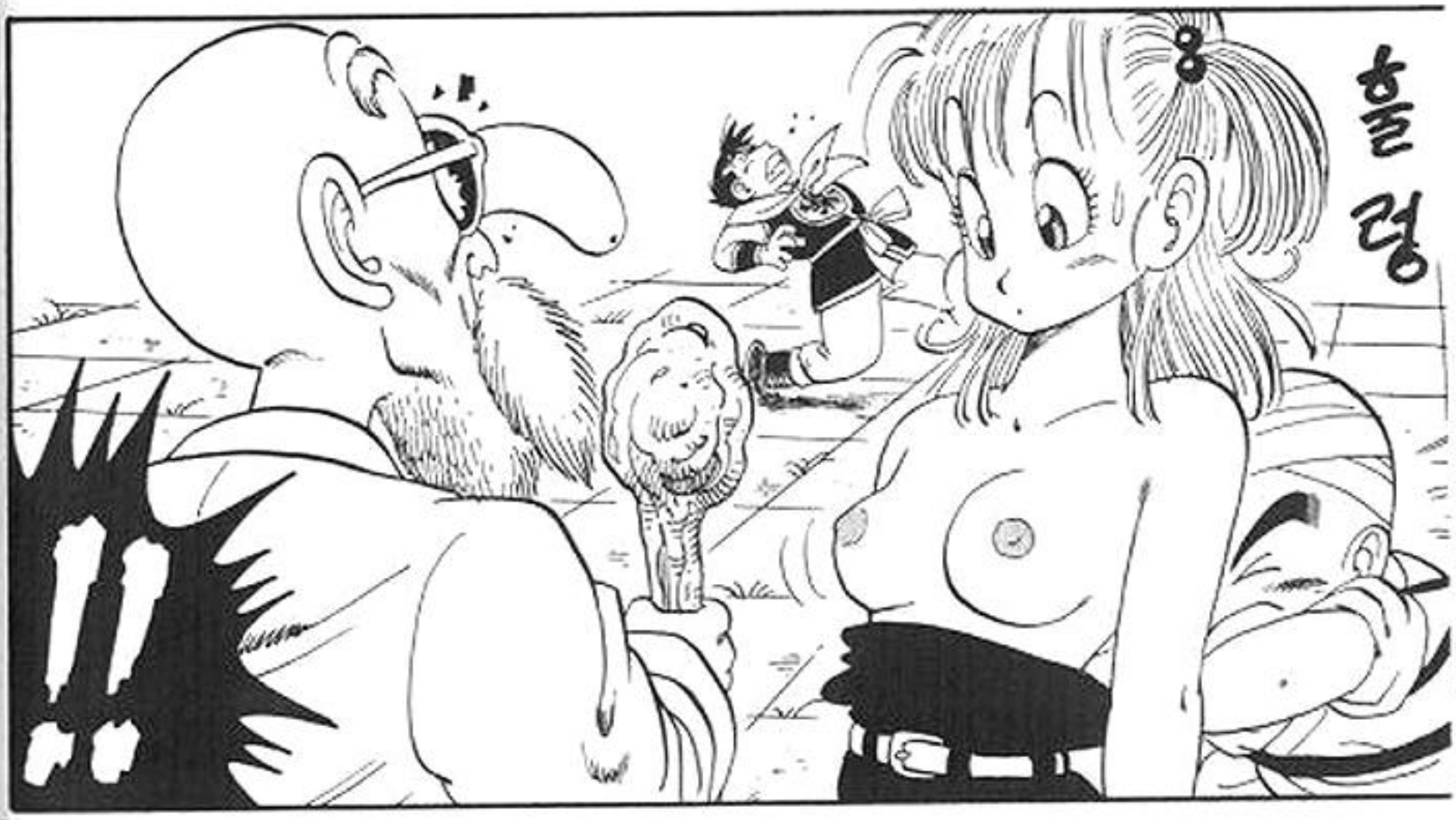

?
?
뭐야, 이거? 이러면 난 안 보이잖아!


엥?
무천도사님! 좀더 고개를 드세요!


지금이닷!!


자, 됐죠? 그대로 잠깐만요…. 그대로….
이럼 보기 힘든데….


꽈앙


흘렁


푸아아아앗

앗!

엇!?

뭐야!?

됐다!
보인다!

앗!!

으악!

이런!

낭아…

풍뇌권!!

이야아압!!

털썩

어이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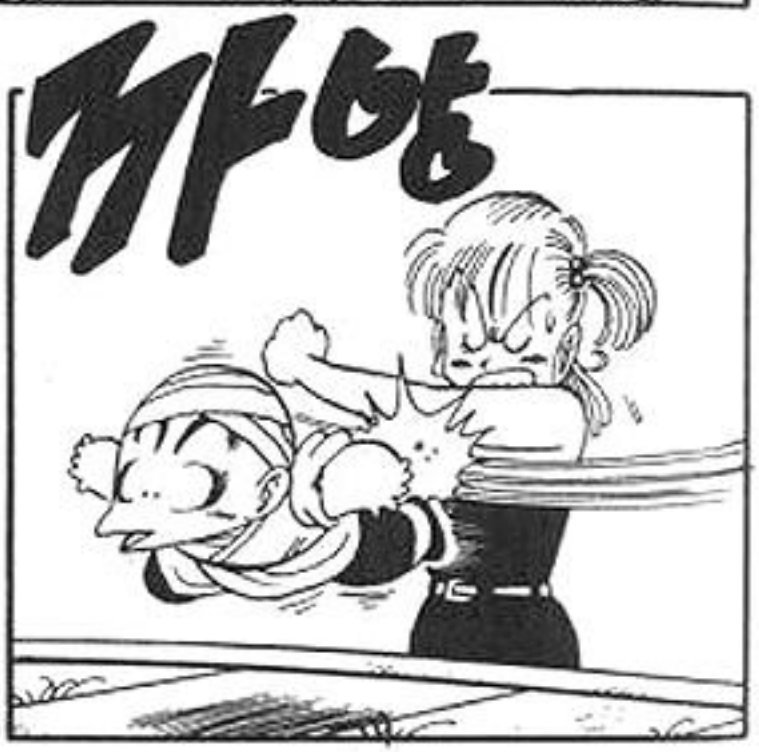
에잇!!

퍽

져,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01화 악마의 화장실

저 사람이 점쟁이 할머니야?

그래.

시합 같은 걸 하는 거니?

근데, 왜 드래곤 볼이 어디 있나 물어보러 와놓고….

무천도사 님과 부르마가 와있었구나!

이제 알았어…?

피스-!

하지만, 그런 큰 돈이 없을 때는 점쟁이 할머니 팀과 싸워서 5명이 모두 이기라는 거야. 그러면 공짜로 가르쳐준대.

원래 점쟁이 할머니 바바한테 뭘 물어보려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내놔야 하나봐.

누님은….

여전 하시구만.

뭐, 뭐욧!?

점쟁이 바바는 내 누나야.

누님이라뇨, 무슨 얘기죠…?

그만 하셔.

여자 찌찌만 보면 코피 나오는 병도 그대로고.

여전히 빈둥거리며 노는 모양이지?

홍! 오랜만이구나.

무천도사 님. 그렇다면 이런 귀찮은 시합 안 하고 점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어차피 이것도 수련이라고 생각하죠, 뭐.

걱정 마세요.

난 돈이랑 이런 시합을 즐기는 거야.

싫어!

이왕 온 김에 끝까지 구경하고 갈까.

따라와.

말 한번 잘했다. 다음 대전 상대부턴 장소를 바꿔서 시합하자.

이놈아, 일해서 벌어!

누나, 나 돈 좀 줘~.

무슨 헛소리야!?

우파! 저 누나하곤 별로 안 친하는 게 좋아. 엄청 무서운 사람이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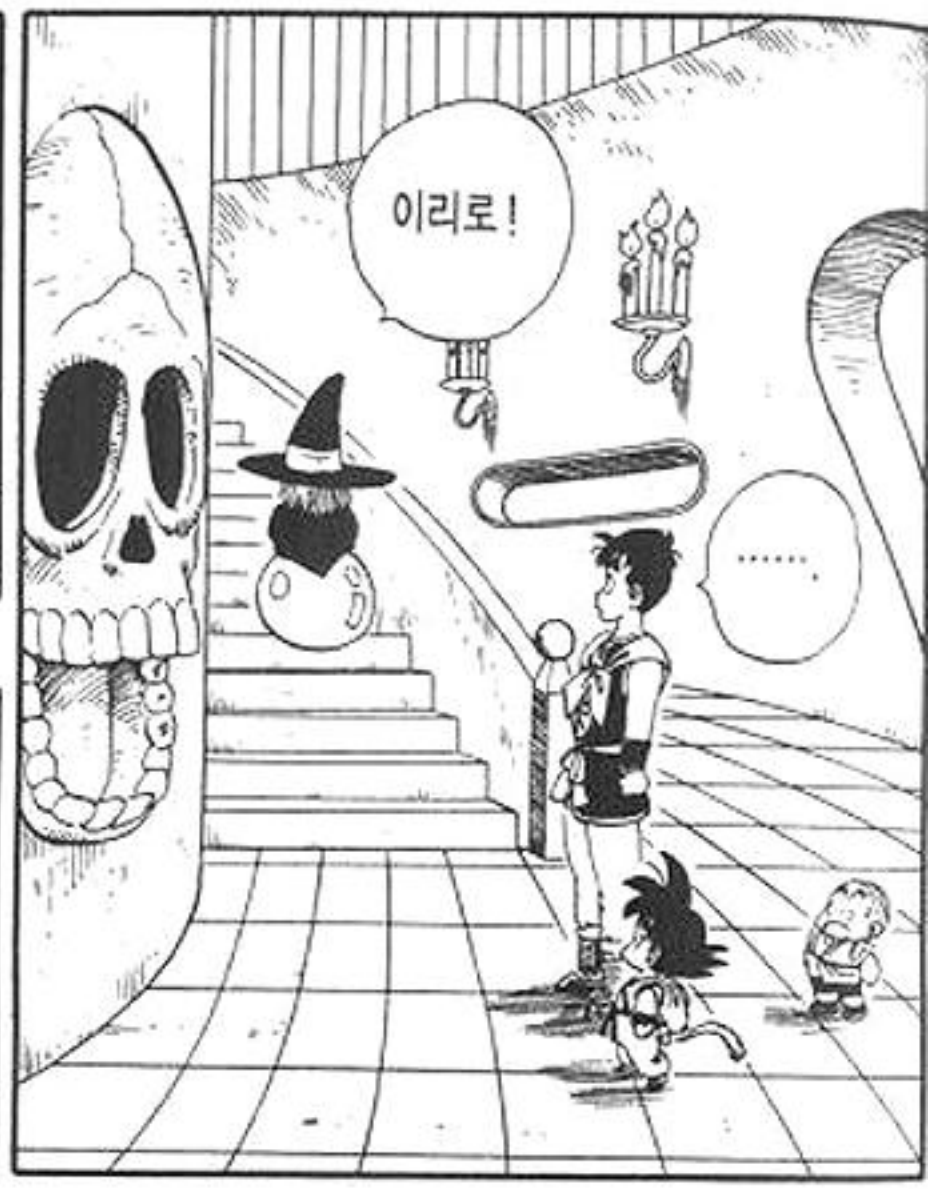
아아! 손오공이 드래곤 볼을 찾아서 다시 살려준다며 뛰어다니는 게 너희 아버지지?

응!

넌 누구니?

아, 난 우파야.


악마의
화장실이야.
시합을
어디서
하려는
거지…?


이리로!
……


아, 악마의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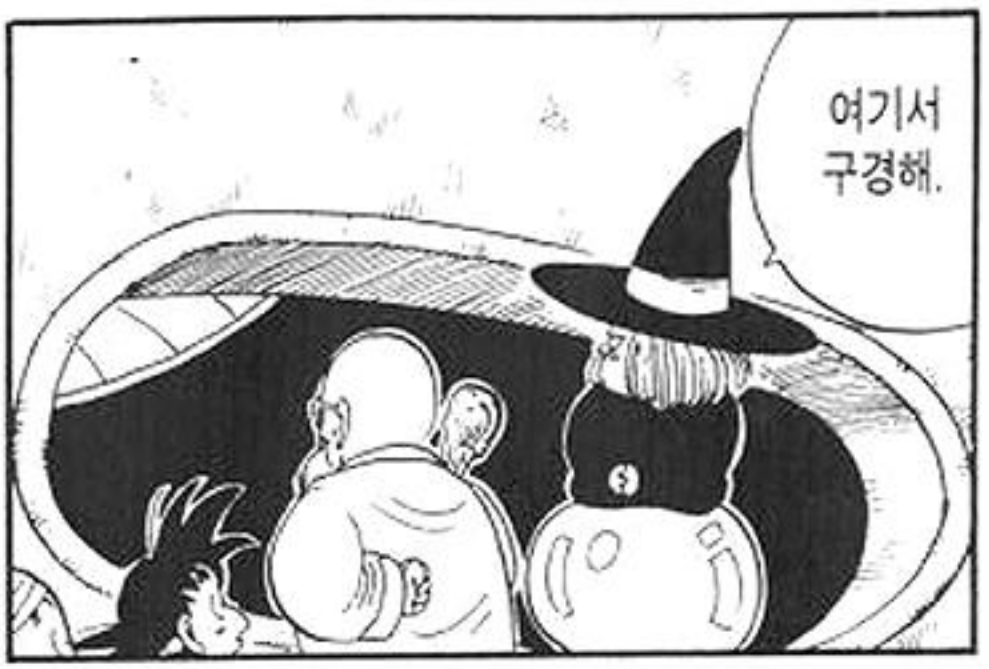

……
이게
어드바이스야!
죽지 마!
고맙
군요…


뭐 좀
어드바이스
같은 거
없나요?
그게…,
뭔데요?
있지.


다른 사람은
시합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자.


예.
선수는
이리
들어가라.


……?


여기서
구경해.


여,
여긴
뭐야!?

아래는 무서운 독이 있는 늪이다. 떨어지면 죽어.

저 악마들의 혓바닥 위에서 싸우는 거야.

뽀글 뽀글…



늪에 빠지면
저렇게 완전히
녹아 없어져.

으…!

으으으
…!

그…
그렇구나….

악마의
화장실이란
말이지…!

기권
하려면
지금 해.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겠지.

재, 재밌겠군.
해볼 거야!

히히히!
그럼,
그래야지.

그럼,
세 번째
선수를
소개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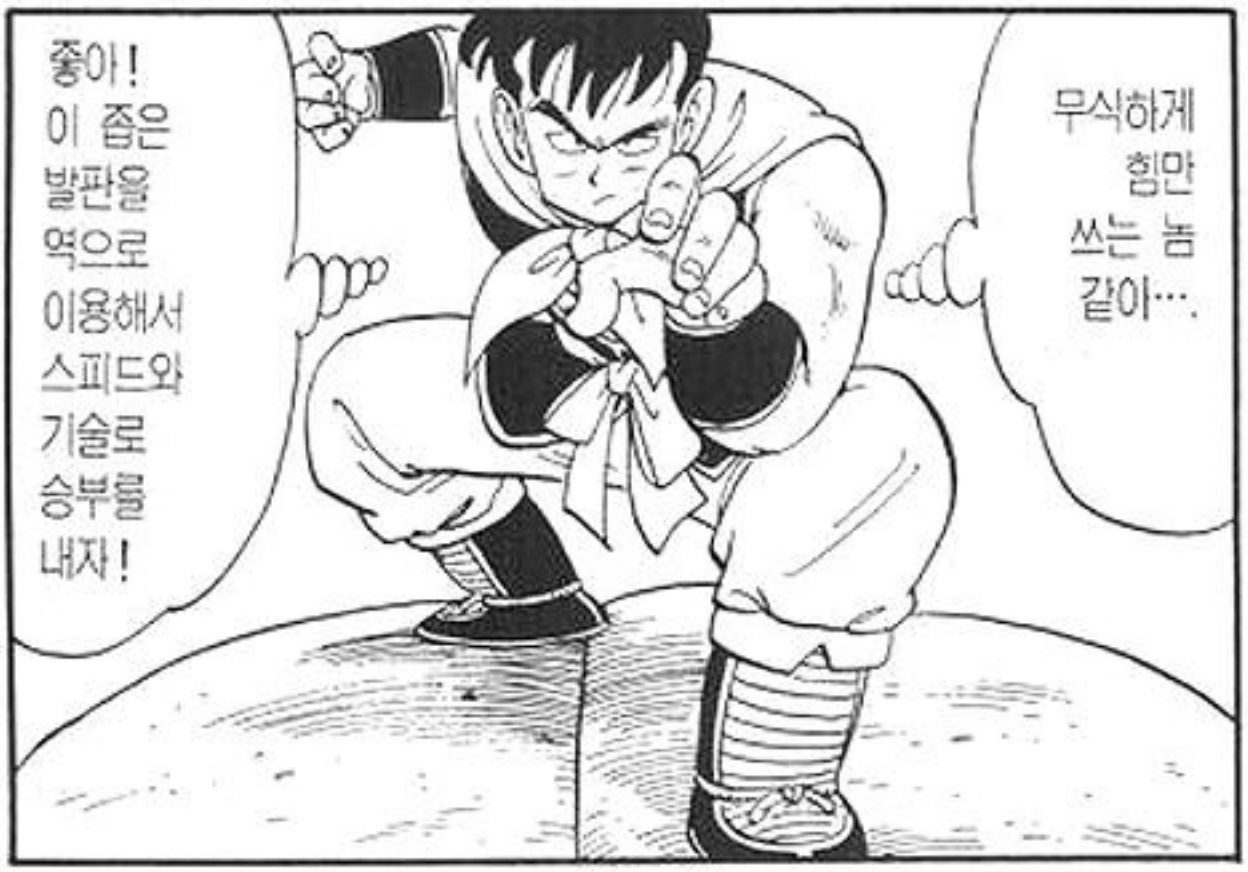

누나는 악취미, 동생은 엉큼맨. 정말 최악으로 어울리는 남매야!
.....
싸움의 왕자 미이라, 등장!
쨔안...

으으으…!

투명인간 다음은 미이라…?

나원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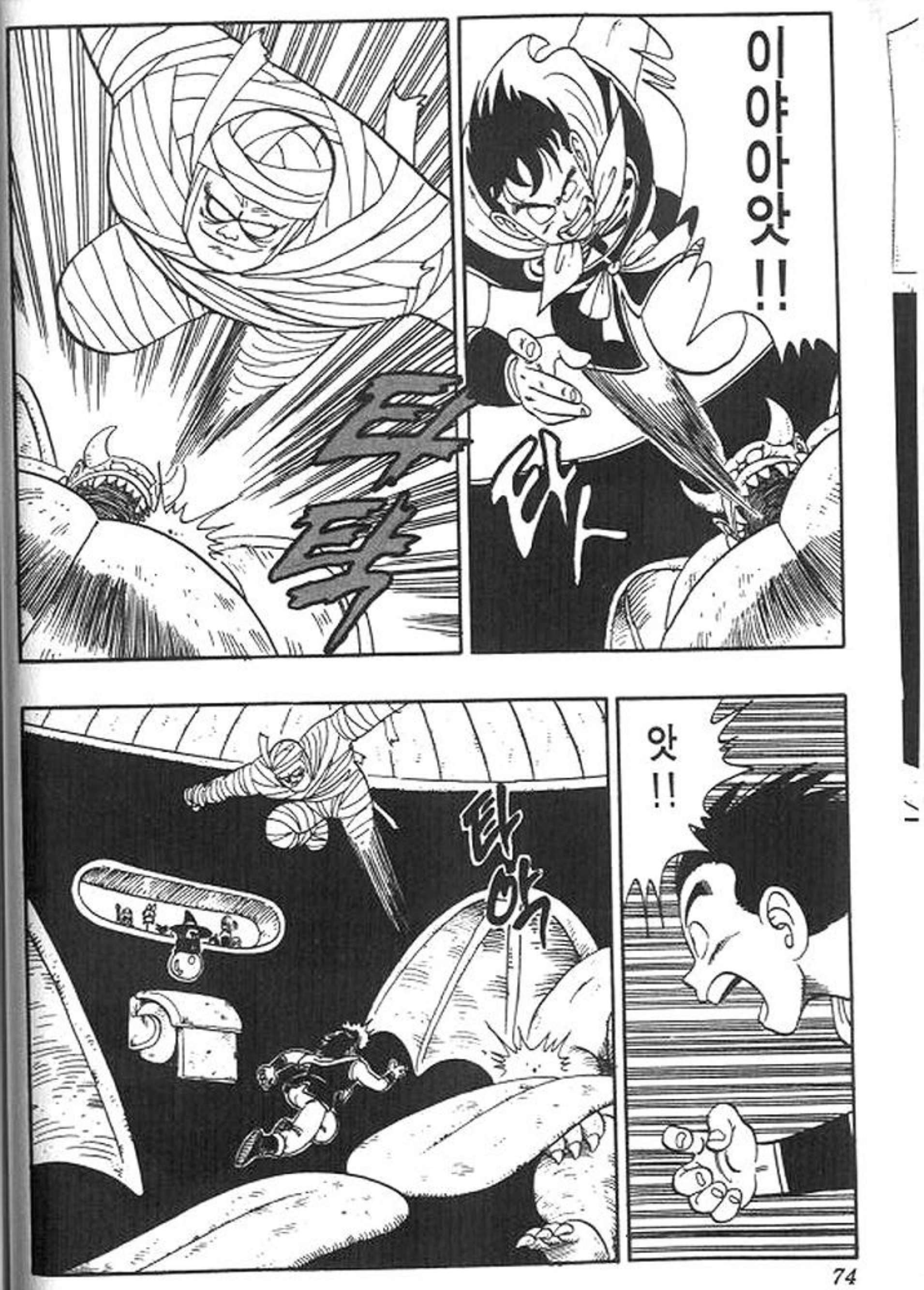

자, 항복
하거나
죽으면
지는 거야.


좋아!
이 좁은
발판을
역으로
이용해서
스피드와
기술로
승부를
내자!
무식하게
힘만
쓰는 놈
같아….


시합
시작!!


야무치 님!
죽지
마세요!




이야아앗!!
타
타
타
앗!!
타악


부웅
쳐억
앗!
화
팍팍
부웅
파파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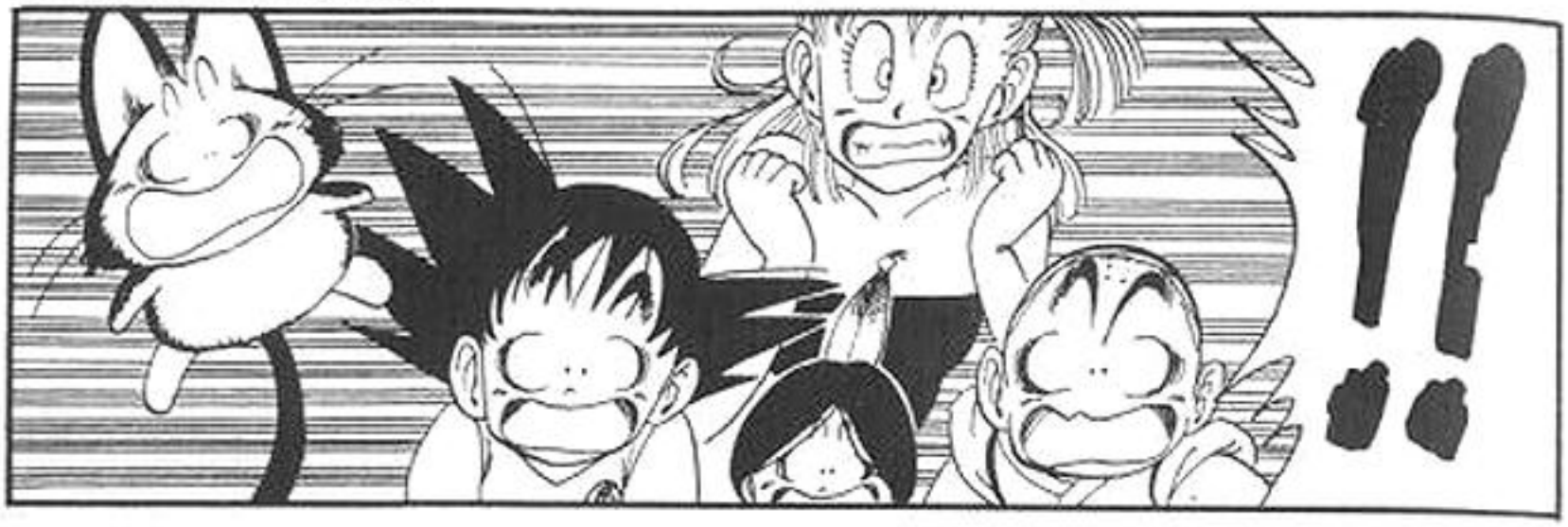

응?
글쎄…?


빠,
빠른걸…!!


파아


크!!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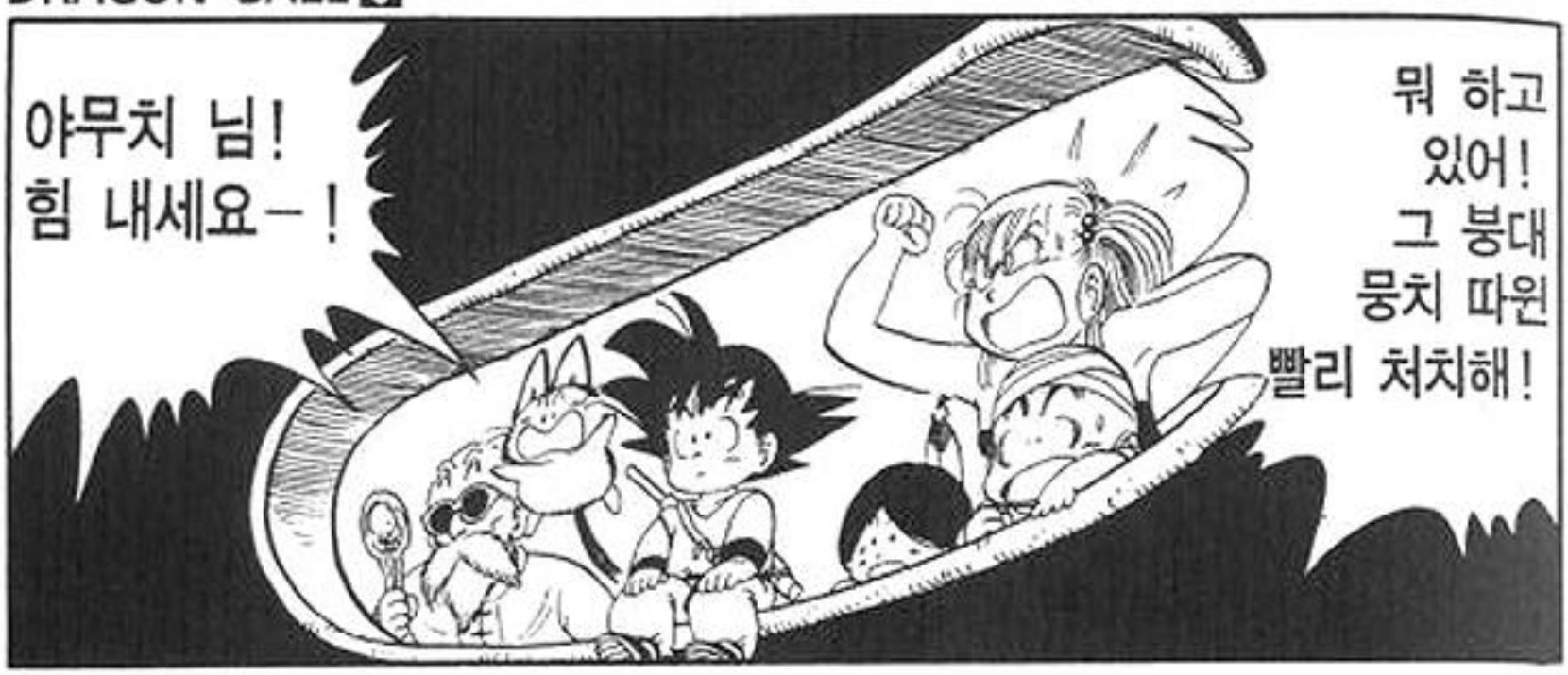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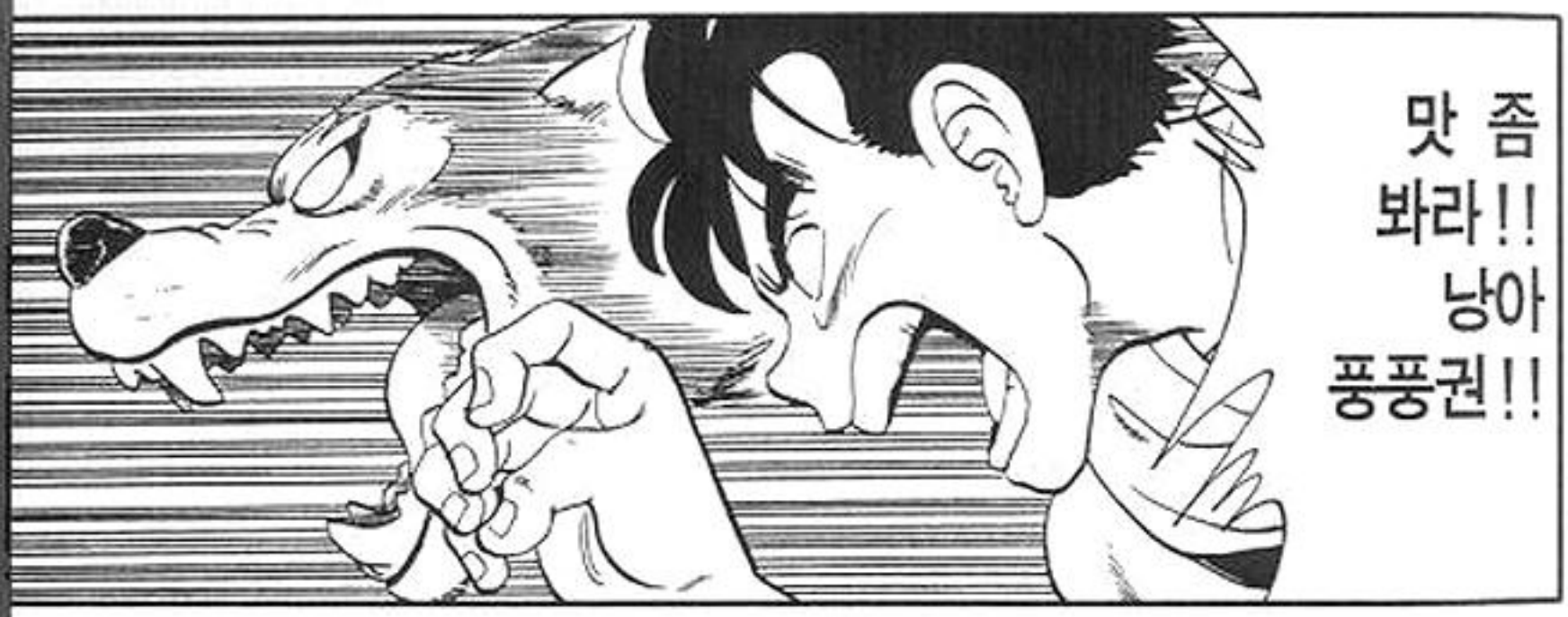
다음은, 제102화 손오공 등장

예, 예상 외로 빠른 놈이야…!

끙…!

네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야무치 님!
힘 내세요-!
뭐 하고
있어!
그 붕대
뭉치 따윈
빨리 쳐치해!


맛 좀
봐라!!
낭아
풍풍권!!


퍽


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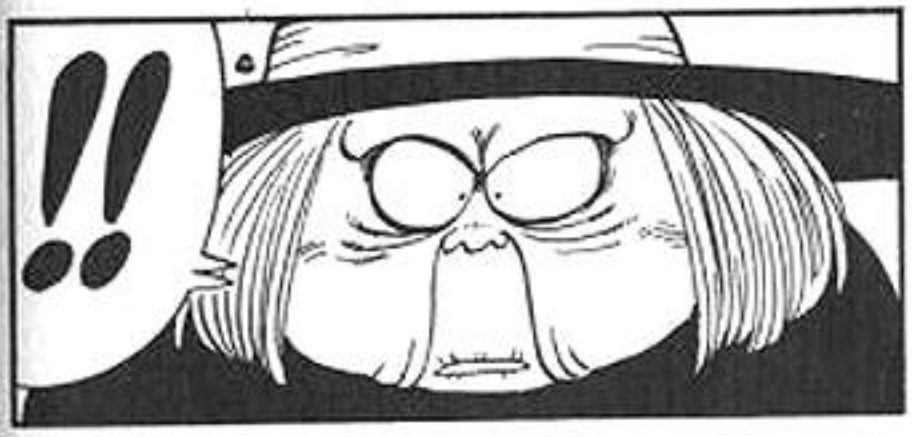

파팟팟
타앗!!
탁
앗!
탁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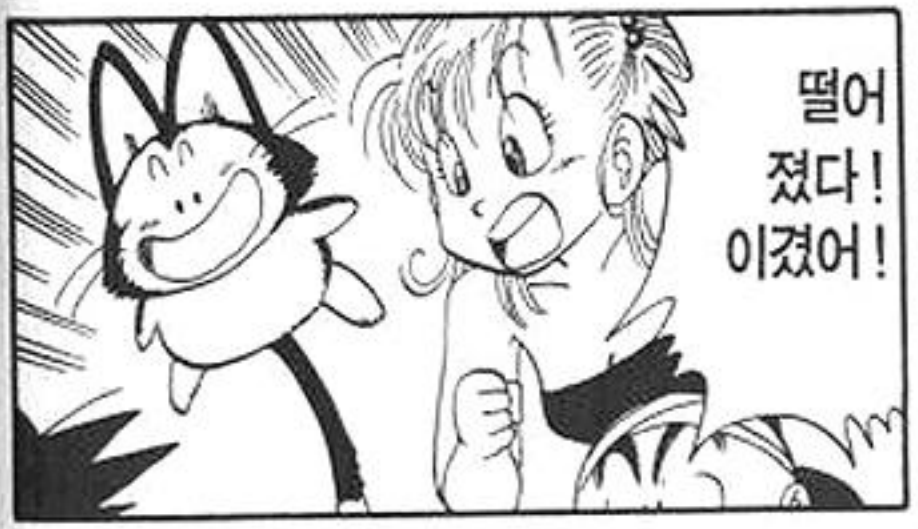
휘익
파팍
끄아악…!
야무치 님!!
더 이상 너랑 싸우는 거 재미 없어. 졌다고 해!
으으…!


우!!
파앗


히히히….
역시
상대가
안 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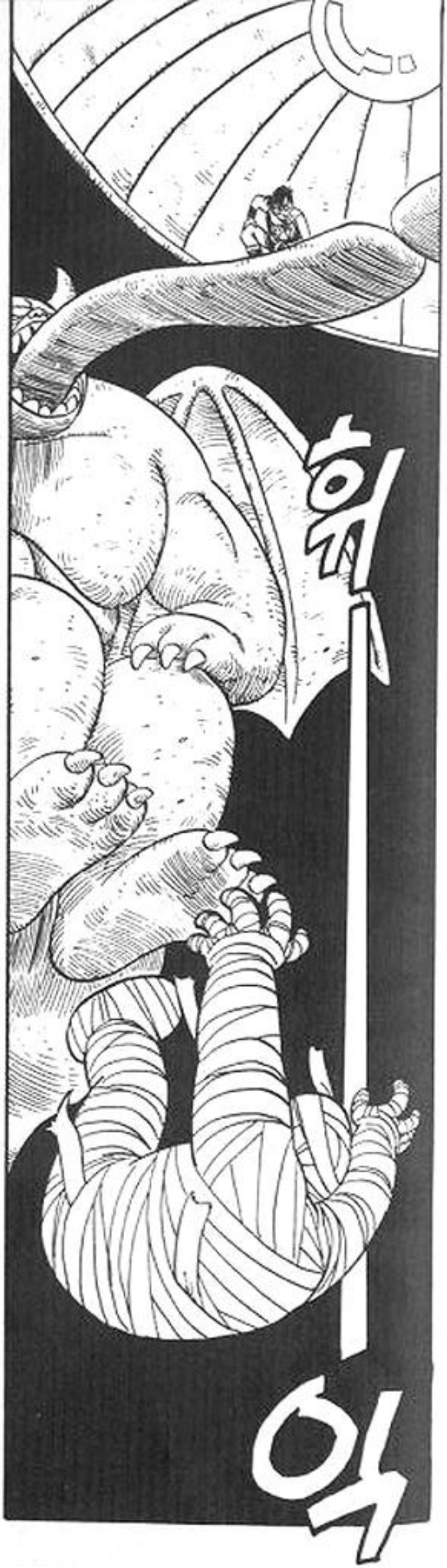

떨어
졌다!
이겼어!




미안하군…!




아아


헉
아

어?!

휘릭

휘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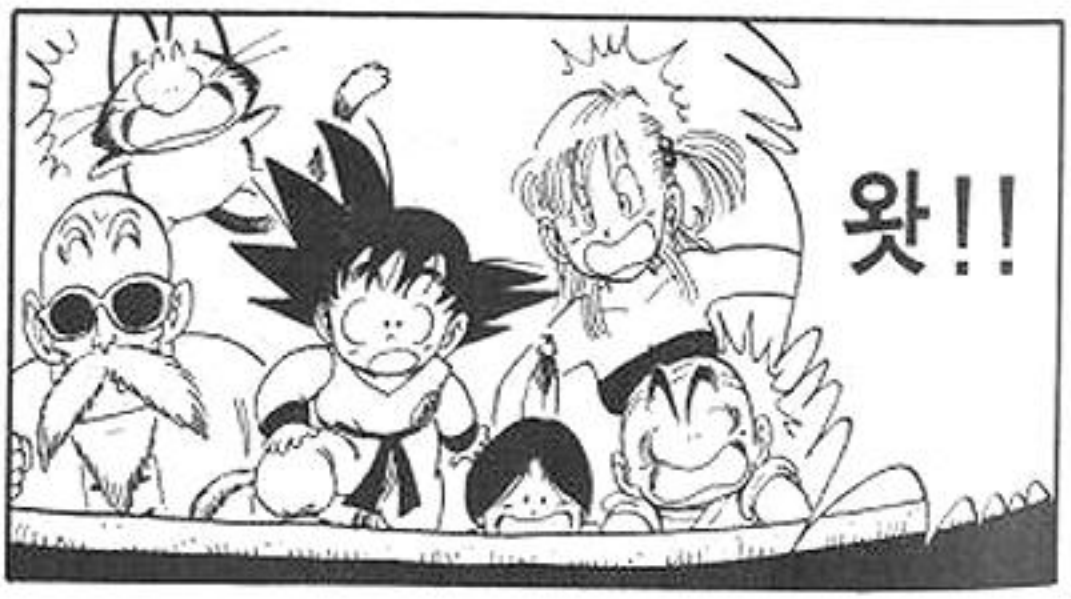
탁

팡


터어




씽긋


왓!!


죽을 각오는 돼있겠지?
흥! 비겁한 수를 쓰다니!


웃!
삭
휘익






꾸욱




항복해!
아님 그냥 독의 늪으로 던져 버릴 테다!

헤헤헤!

벌써 끝이야? 너무 일방적인 시합이잖아.

킥킥! 빨리 항복 했으면 좋았지.

져…, 졌다….

야무치 님!

괜찮아, 야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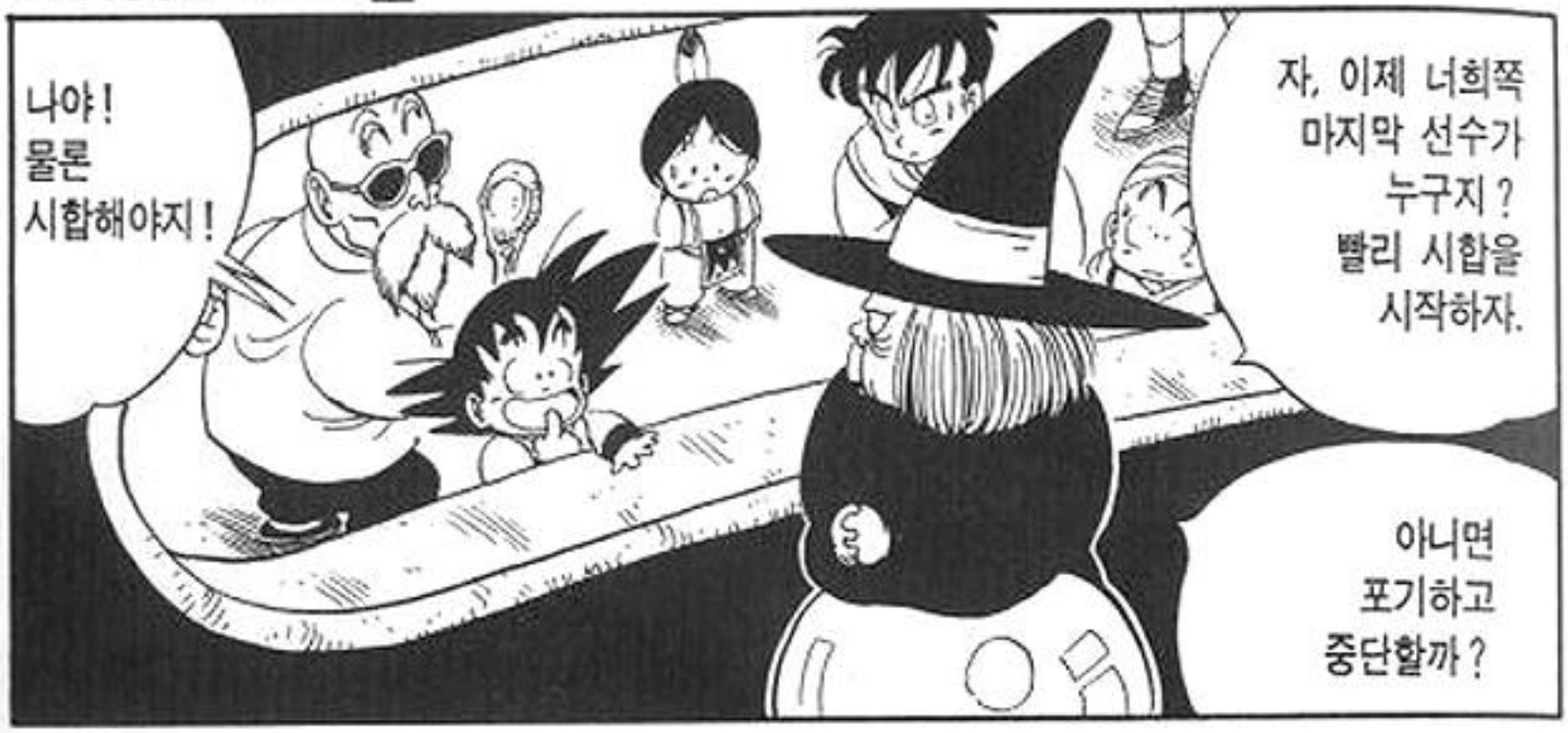
쿨럭 쿨럭!

바보 같이! 다쳐서 붕대 감고 있는 놈에게 져?

저건 다쳐서 붕대를 감은 게 아닌데….

근데 정말 무시무시한 실력을 가진 놈이다….

미… 미안해, 손오공. 설마 저런 무식한 놈이 있을 줄이야….


나야!
물론
시합해야지!
자, 이제 너희쪽
마지막 선수가
누구지?
빨리 시합을
시작하자.
아니면
포기하고
중단할까?


힘내,
오공!
죽지 마!
그래!


괜찮아!
걱정 마!
믿어보라구!
오공 형,
이제 됐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그만 해!


얍!!
얏!!

자,
얼마든지
덤벼라!

하하핫!
웃기는 소리
집어쳐!
네가 마지막
대전 상대란
거냐!?

헤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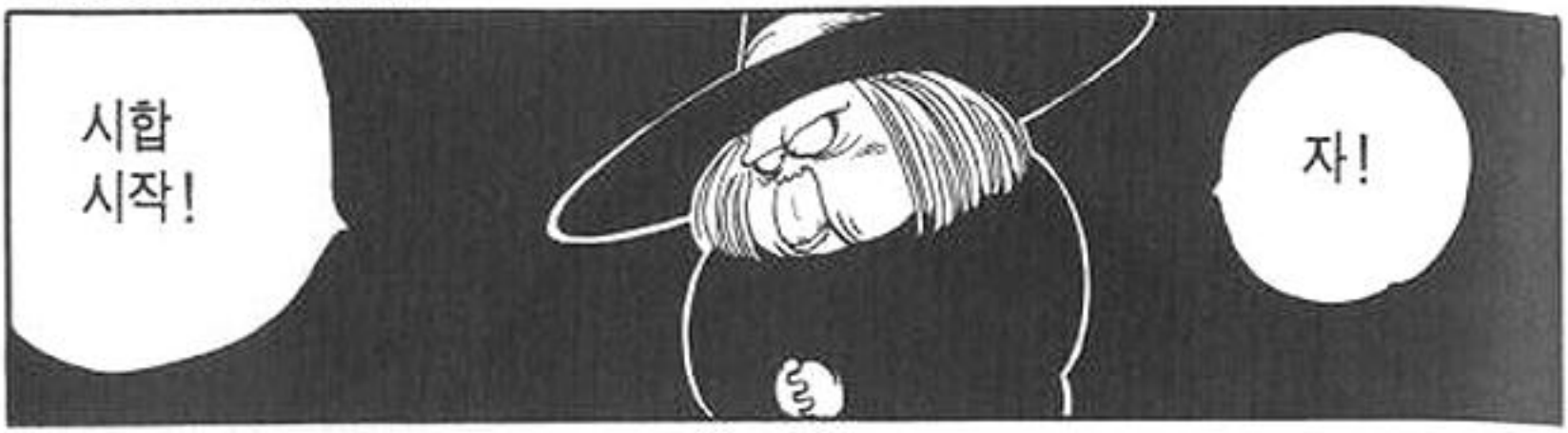
저런
꼬마에겐
이겨봤자
하나도 신이
안 나겠다.

무천도사 님!
손오공이 아무리
강해도 승산은
없겠죠!?

으음….

예전의
손오공이라면
아마 이길 수
없지….

하지만 그 뒤의
수련으로 녀석은
분명 엄청나게
강해졌어.
어쩌면….













다음은, 제103화 손오공의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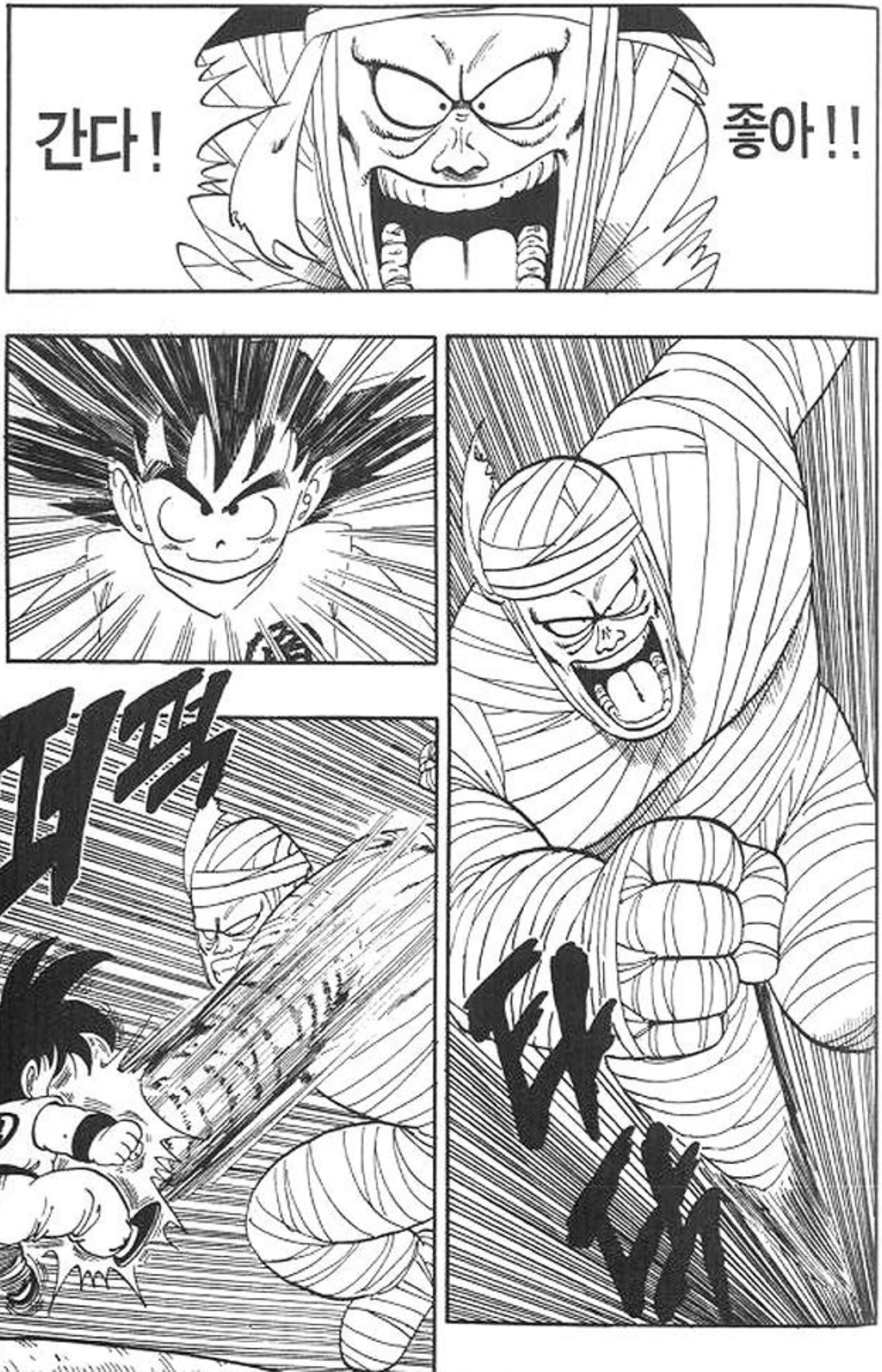
빨리
덤비라니까!

제길~!

저렇게
작은 꼬마가
묘하게 크게
보이는걸…!

뭐 하는
거야!?

빨리
시작해!


간다!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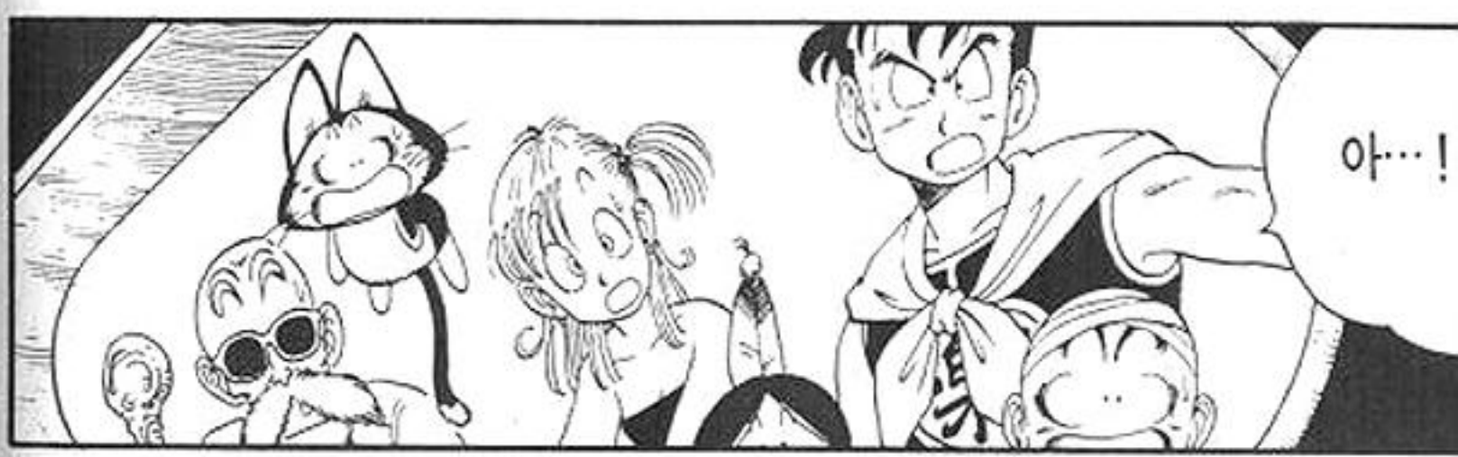
안 돼!
정통으로
맞았다!

얏!!

파앗




덜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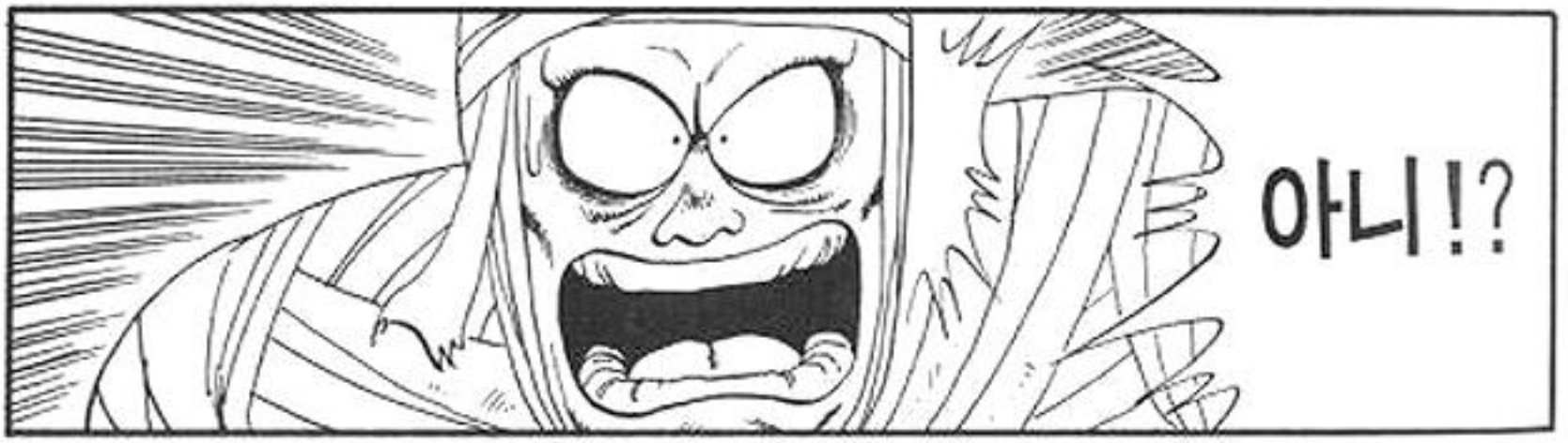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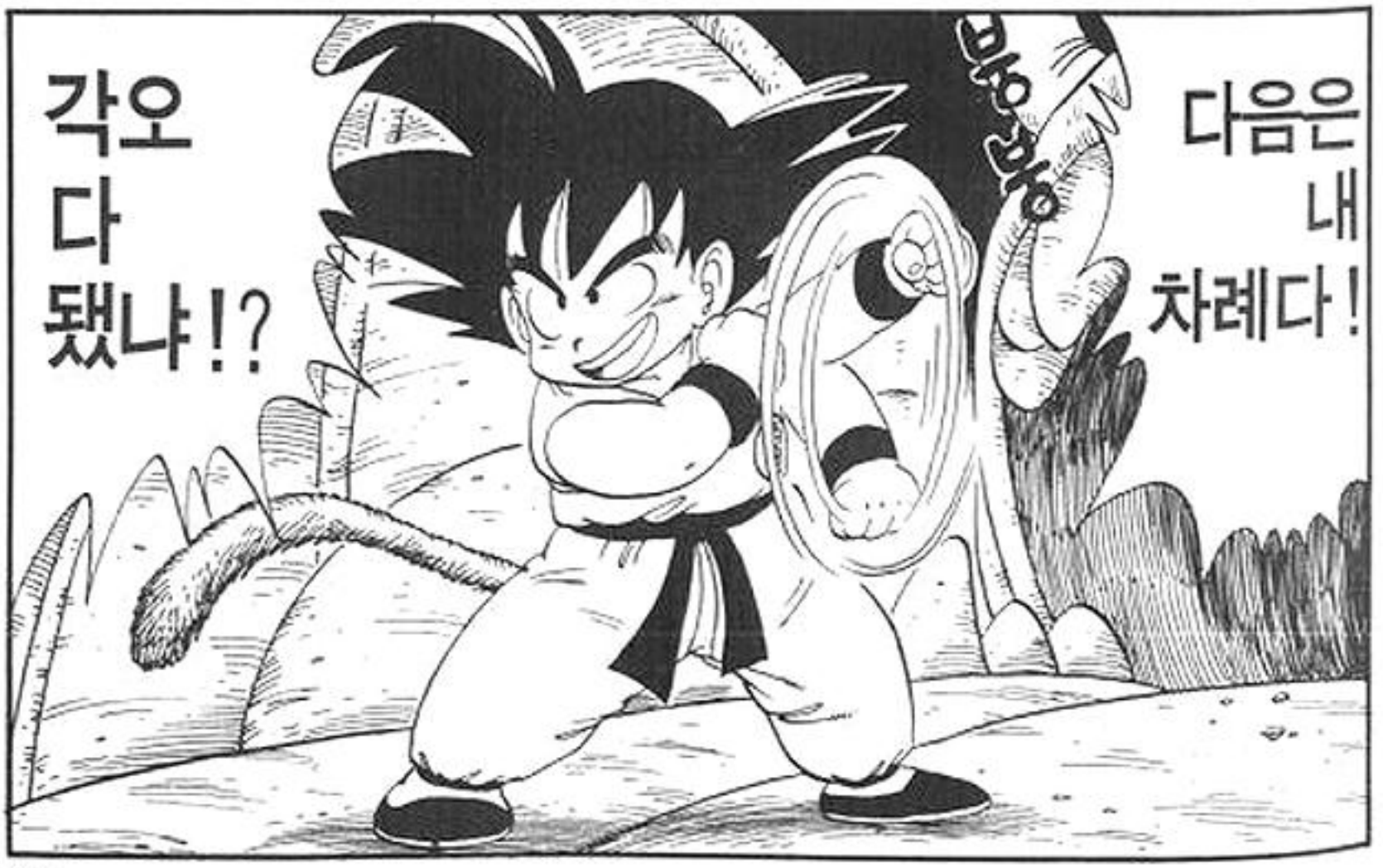

자, 꼬마야.
기절 안 했으면
대답 좀 해봐.
헤헤헤!
기절하면
당연히
지는 거지.
어때?
졌지?


별거
아니잖아?
흥!
끝났군!


깡


얍!!


아니!?


각오
다
됐냐!?
다음은
내
차례다!

대,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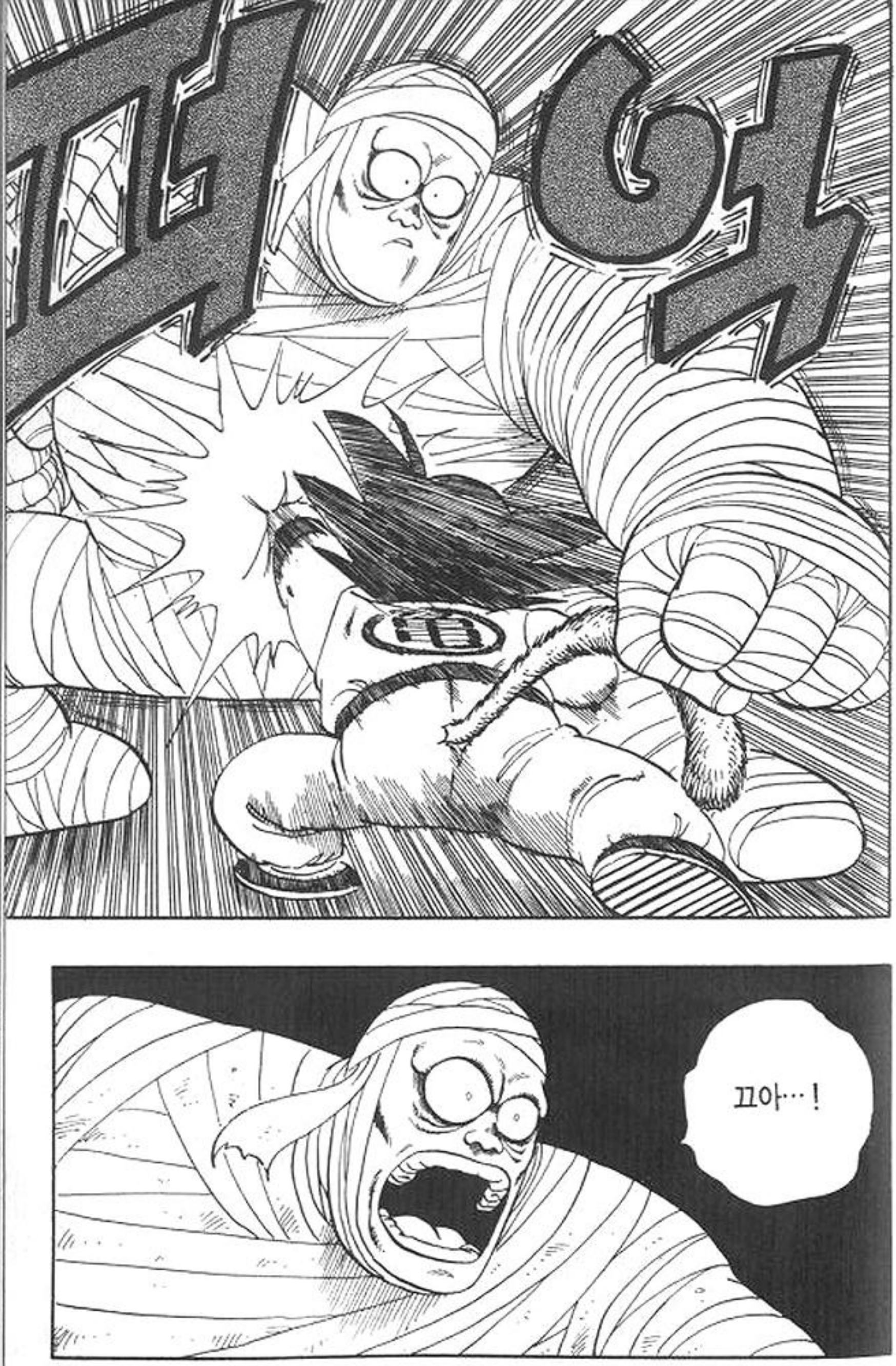
저 정도
공격을
받고도
끄떡
없다니…!

이,
이 녀석…!

그렇게
죽고 싶냐!?

앗

98


끄아…!

!!

털썩…

그런 것 같군….

그… 그래….

이봐…! 대답이 없네…. 할머니, 내가 이긴 거지?

어이, 말할 수 있겠어?

어…엉

다음 시합에 방해되니 치워줄게!

헤헤헤! 이겼다, 이겼어!

손오공 녀석, 정말 엄청나게 컸구나….

서…, 설마 저 정도까지 강할 줄이야….

세… 세상에! 저럴 수가….

다…, 단 한 방에….

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음, 나도 놀랐어….

혼자서 레드리본 군을 전멸시킨 이유가 있었네….

손오공이…, 정말…?

할머니! 이제 두 사람만 이기면 되지?

무서운 놈이야…. 저 녀석, 항상 어벙벙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전혀 몰랐지만….

분명 상당한 위험을 극복하고 나왔을 텐데….

헹!
건방지긴!

웃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다!

왜?
뭐가
우스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 꼬마,
솜씨가
상당한데.

후후후
….

여기까지
온 녀석은
처음이지만….

나를
이길 수는
없겠지.

아크맨 등장!




이상하게 생긴 놈들 뿐이네!


저 녀석은 지금까지 항상 다섯 번째로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더 강한 놈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아니!? 벌써 아크맨을 내보내?



시작해!

날아서 공격 하다니!

뭐야!? 너무 비겁해!

꼬마야, 내 고향을 구경시켜 줄까?

지옥 말이야!

앗!

죽어랏!!

탓!

!!! 퍼억

큭…!

빠,
빠르다!

아니!?

다음은, 제104화 아크마이트 광선

너도
별로
세지
않구나!

뭐,
뭐라고… ?

너 지금
악마한테
무슨 건방진
소리하는 거야… !

옛!

워 하냐, 아크맨! 빨리 해치워!

부웅

얏!

야앗!!

에잇!

붕

퍼억



타닥
욱!
퍼억
!!


욱!
파
악
크크크큭! 그 정도 가지고 당할 줄 아냐!?
헥! 헥!
파닥
파닥
응!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 나 적당히 한 거야!
뭐, 뭐라고?

녀석은 전에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달인이야.

손오공이 압도적으로 너무 세서 저런 거지.

아니야. 엄청 세!

뭐야!? 저 녀석 별거 아니잖아?

너 같은 실력자가 겨우 그 정도였나?

아크맨!!

후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무슨 섭한 말씀을!

내 진짜 힘을 보여 드리죠.

으?

그 약간의 나쁜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면 폭발을 일으킨다!

아무리 착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나쁜 마음이 조금씩은 있지.

?

뭐?

너는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될 거다!

흠!

안 돼!!

아크마이크 광선이다! 놈은 진짜로 오공을 죽일 셈이야!

그렇게 까지는…!

잠깐, 아크맨!



뭐야?!

으하하!
커져라!
커져!
나쁜
마음아!

벙

크하하
하하핫!

폭발
하라!

이,
이젠
틀렸어!

오,
오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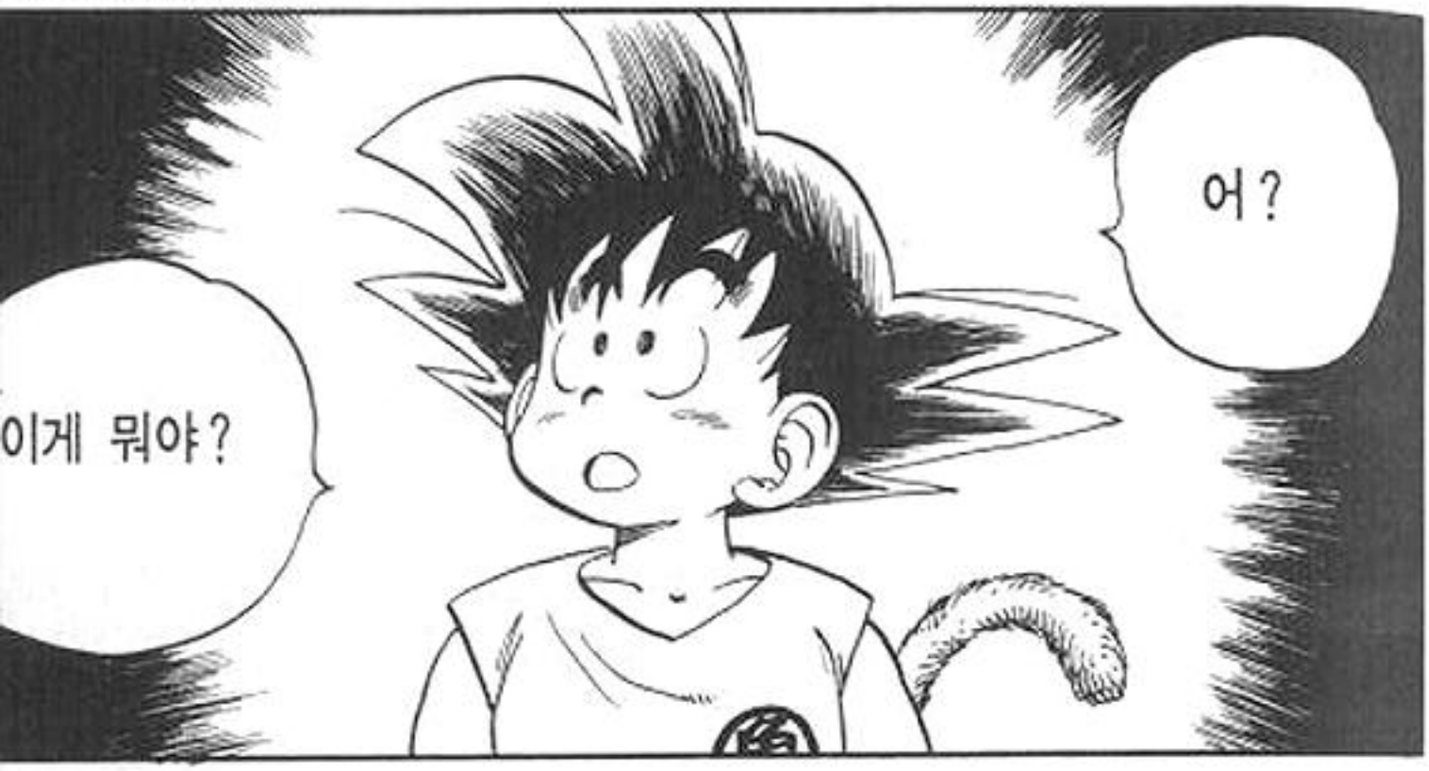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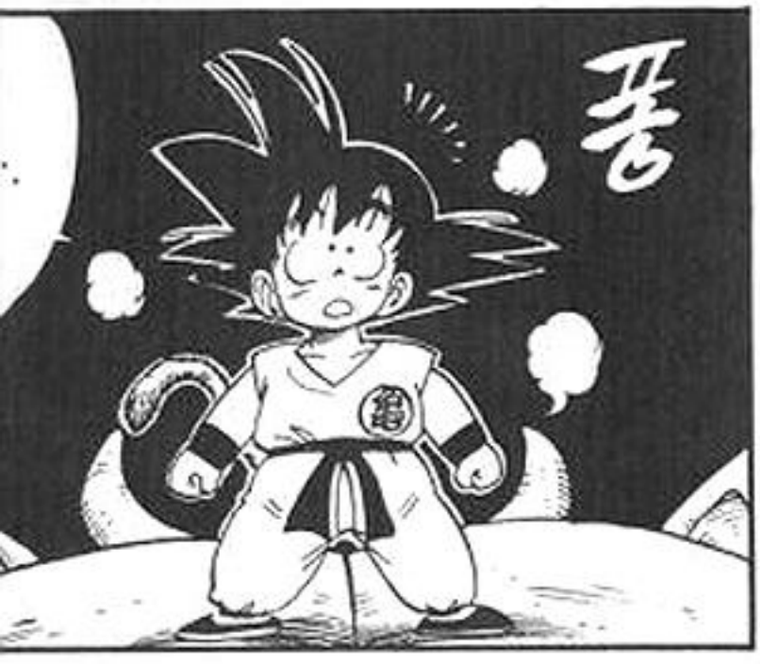
콰앙…!

콰…!

콰앙!!

자!


어?
이게 뭐야?


퐁


으…,
이런…!
나…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


세상에…,
저런
꼬마가…!
마치
나 동물
순수한
이야…!

이런이런…. 멍청하다고 할까…, 순진하다고나 할까…. 하여간 다행이다…!

휴!

살았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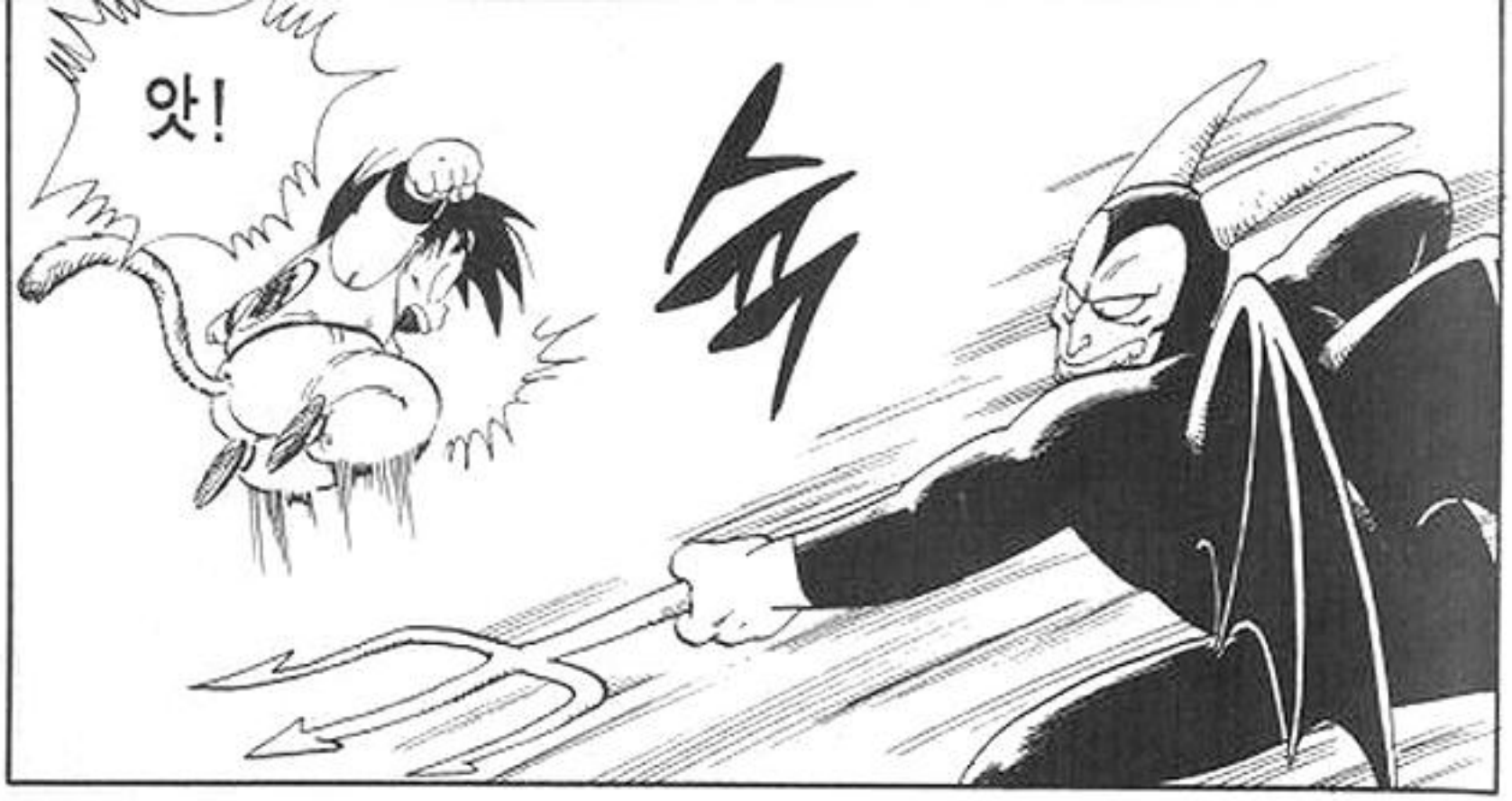
…그러면 숨겨둔 무기를….

그, 그런 소리할 줄 알았다….

항상 엉큼한 생각만 하는 누구였으면 죽었을 거야.

앗!

팟


앗!
슈


비겁하게
갑자기
무기를
쓰다니!


휘익
윽!






좋아,
그렇다면 나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ドドド


ドドド



다음은, 제105화 5번째 사나이

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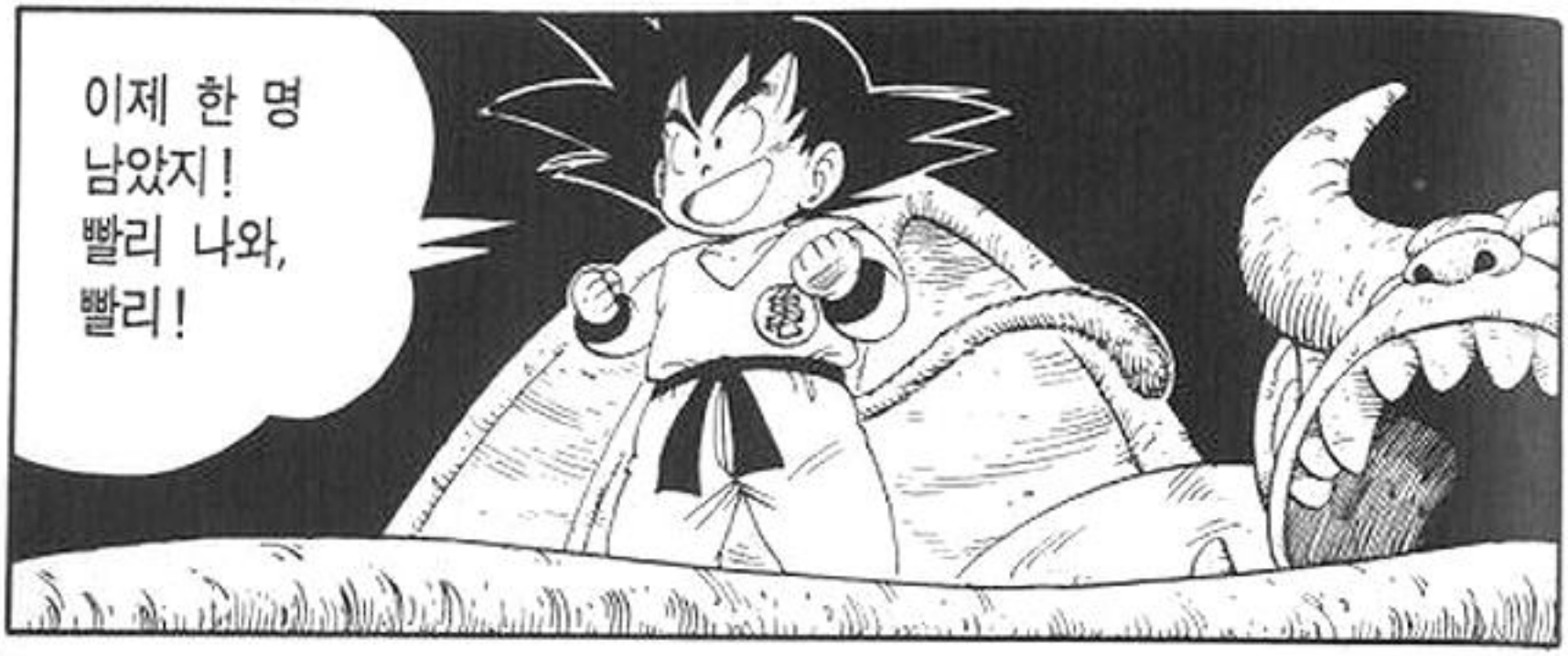
또 이겼다!

좋아! 마지막 한 명도 가볍게 해치우자!

굉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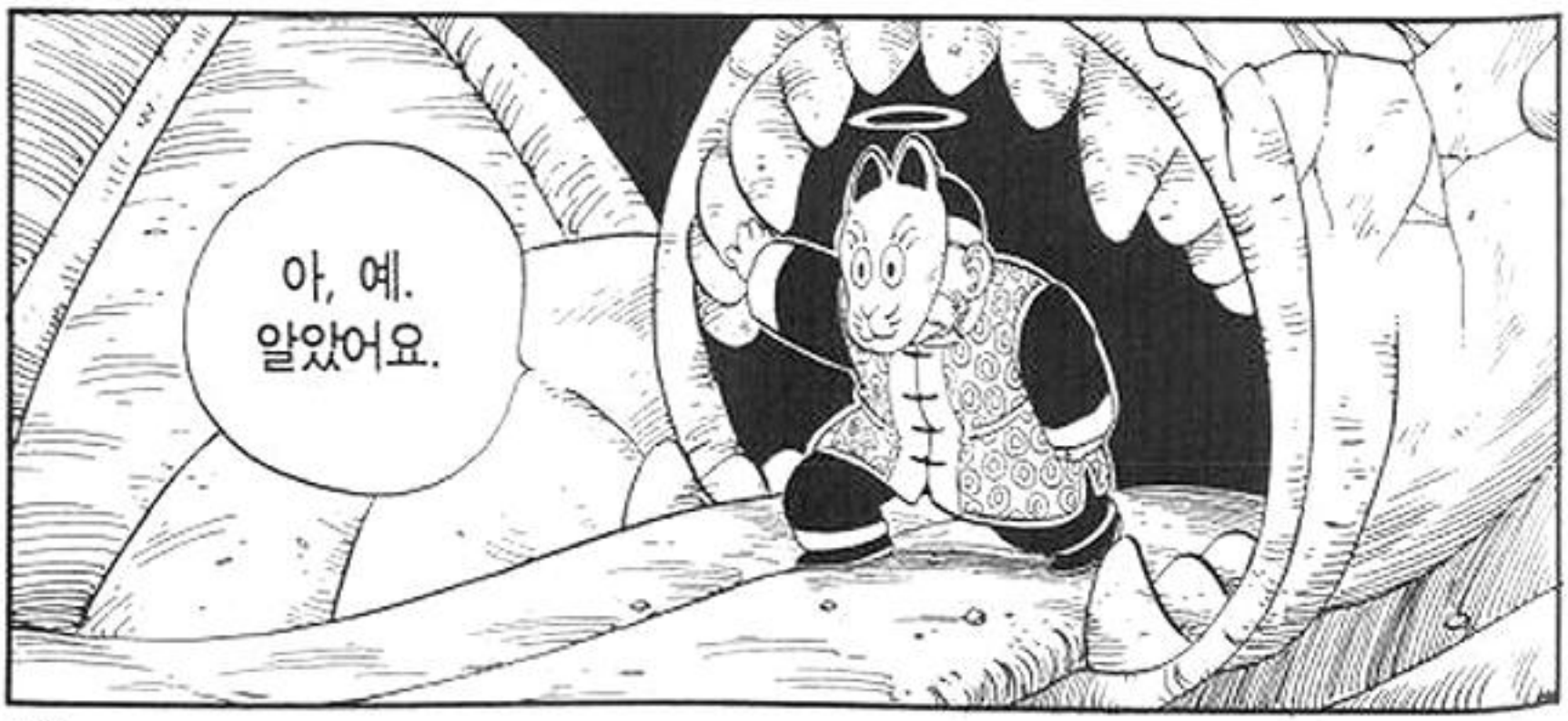
오공, 캡이다!

제, 제길~!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제 한 명
남았지!
빨리 나와,
빨리!


다음
선수,
빨리
나와!


그렇지만
이제 끝났어.
다섯번째
상대는 엄청난
달인이걸랑….
히히히….
흠, 대단하군.
여기까지
이기고 온
놈은 너희들이
처음이야.


아, 예.
알았어요.

엥…?

아, 안뇽….

안뇽!?

저, 저건 뭐야…? 저게 비장의 선수라고…?

바바, 부탁이 있어요.

응? 뭔지 말해봐!

이 꼬마하고는 풀 파워로 대결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곳은 너무 좁으니 밖의 경기장에서 대결해도 괜찮을까요?

호오…, 그래.

좋다! 어디 맘대로 싸워보셔.

어때? 이길 수 있겠어?

글쎄, 잘 모르겠네요.

손오공!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 가볍게 끝내버려라….

저 사람….

좋은 냄새가 나….

아니, 왜 그래? 지쳤어?

아니! 지치진 않았는데….

잘 모르겠지만….

너무 반가운 냄새야….

뭐? 그래, 맛있는 음식 먹고 왔나 보지?

그게 아니야….

헛소리
하는 건
여전하구나.
너….

소곤
소곤
소곤

바바.
응?!

무천도사 님,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않고….

으음….

뭘 걱정
하는 거야?
손오공은
천하무적인데!
질 리가 없잖아!

아,
그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생각이 나질 않지만…. 대단한 사람이란 건 느낌으로 알 수 있겠는데….

저 사람의 목소리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는데?

그~래?

으음. 누님이 자신 있어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상대야.

예? 저 사람이 대단 하다고요?

시합 빨리 안 해~?

?

좋아, 좋아! 헤헤헷! 그거 재미 있겠군.

호오,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여기서 꼬마가 이기면 드래곤 볼이 있는 곳을 점쳐주마.

좋아, 그럼 마지막 시합을 시작한다. 한쪽이 졌다고 말할 때까지야.

좋아, 꼭 이길 테다!

조심해!

손오공, 파이팅!

꾸벅

꾸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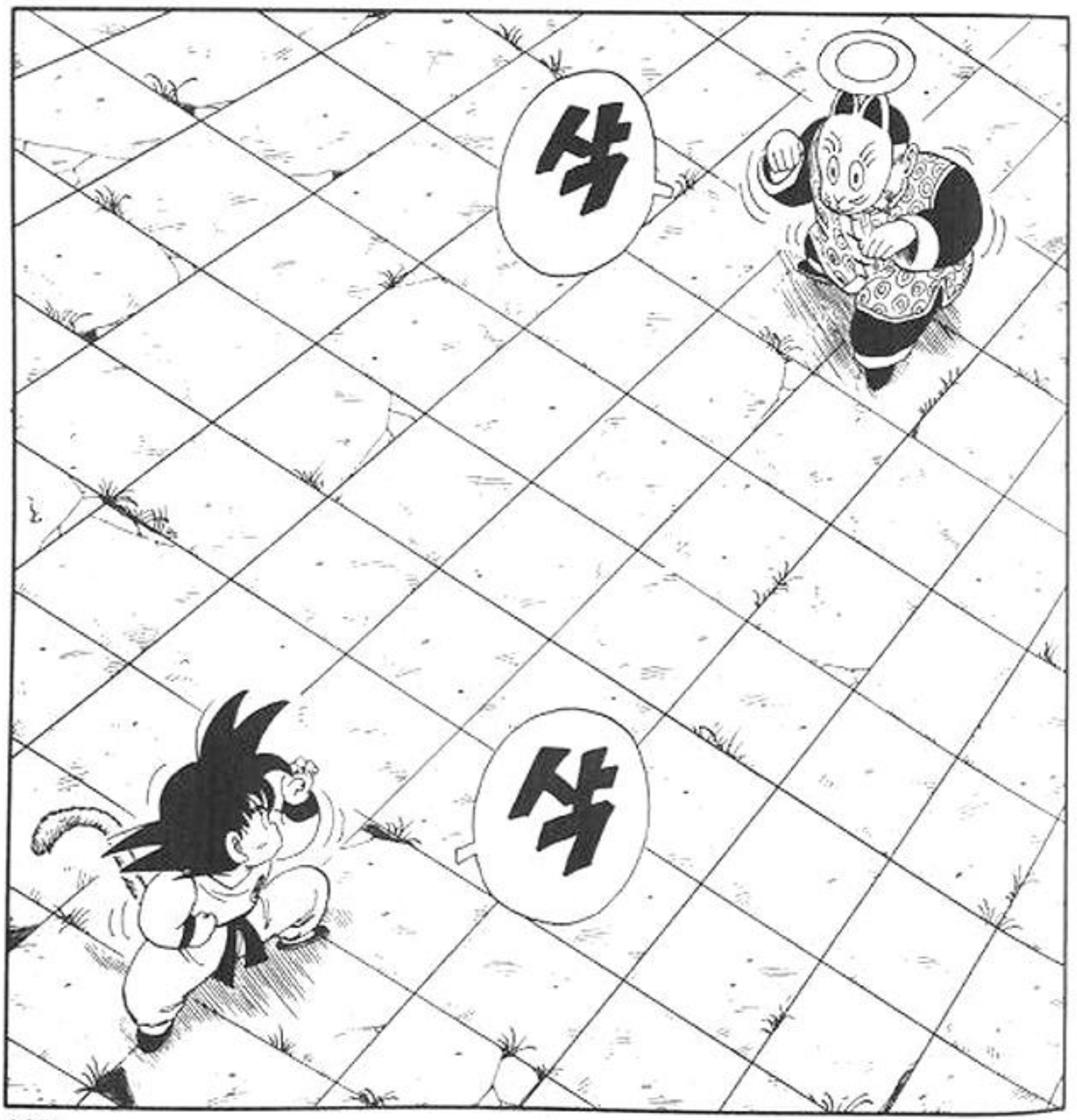
아, 그래. 그렇지….

암마! 시합 전에 인사도 안 해?

엑?


시작!
시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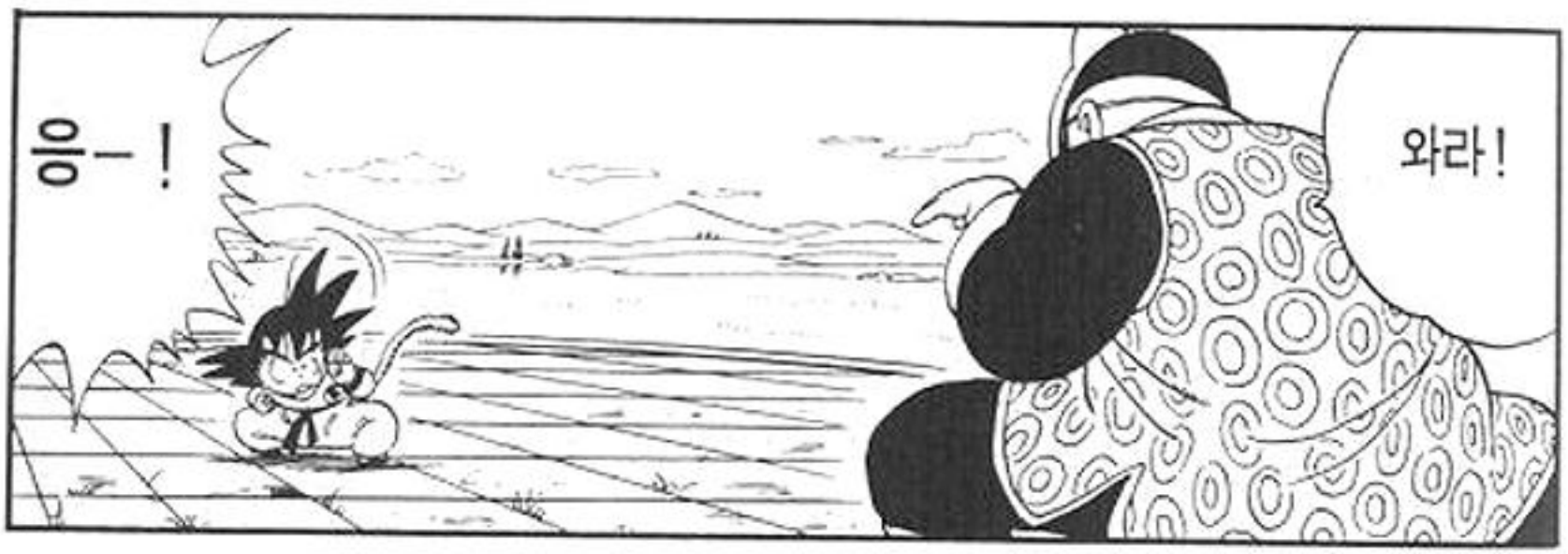

이상한 가면을
쓴 것 치곤
아주 진지한
녀석이네….
호오…!


샤
샤



으음….
저어…….
이….
이거 대단한 시합이 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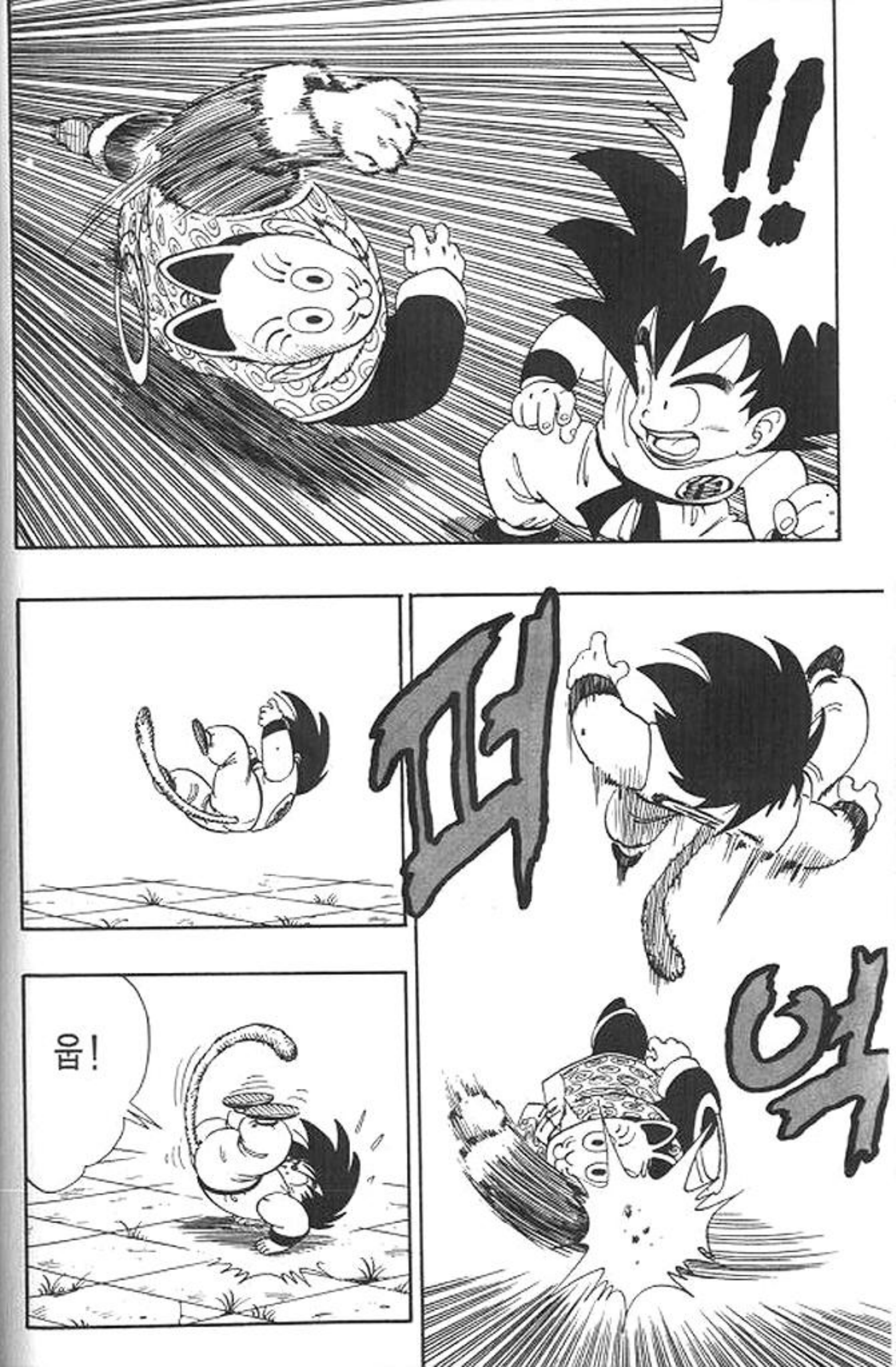

지금까지
싸운
녀석들과는
차원이
전혀 틀린
상대다…!
틀려…


으-!
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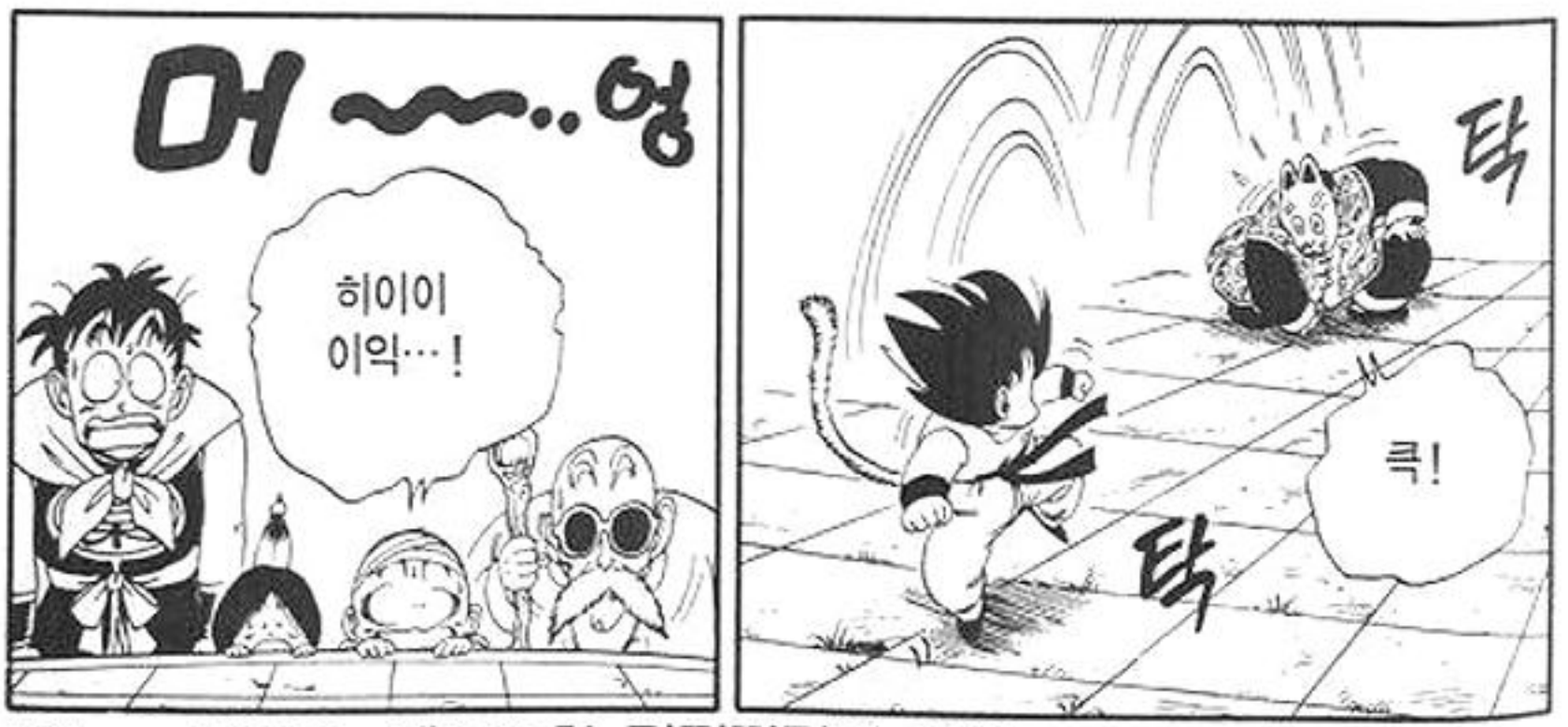

얍!!


!!
타앗!!
쉬액
윽!!
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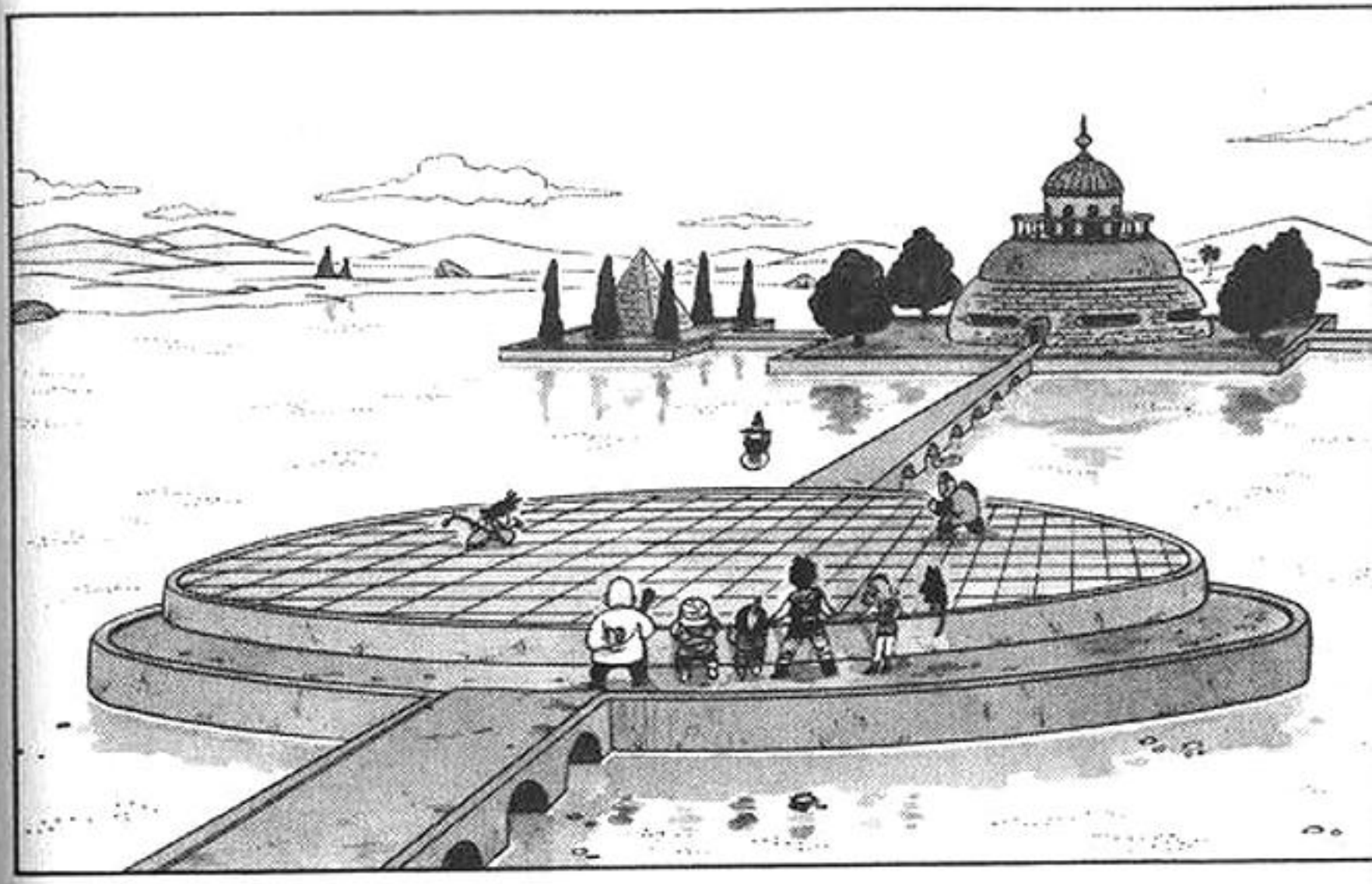

팍
이이익…!
끄으윽…!
방그르르
타탁
파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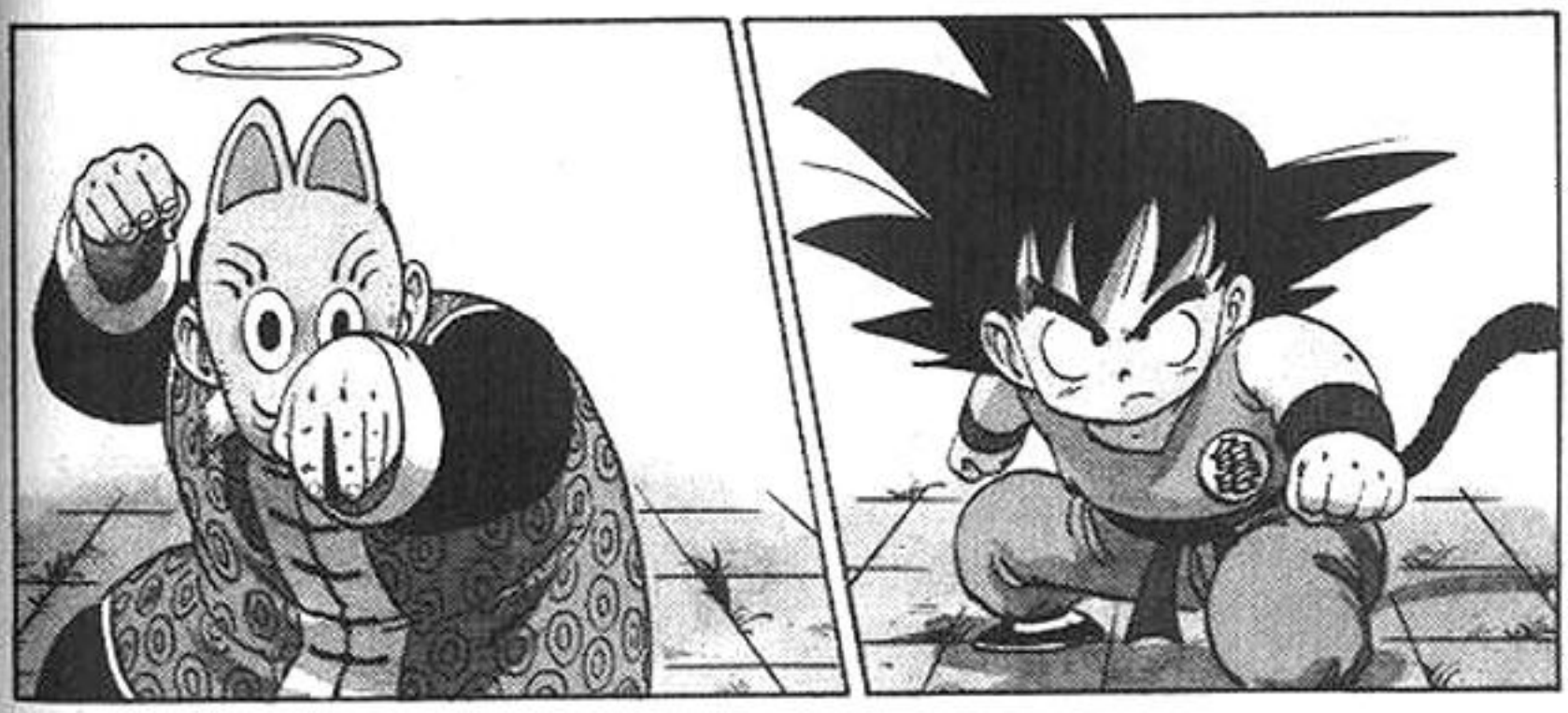

!!
퍽
윽
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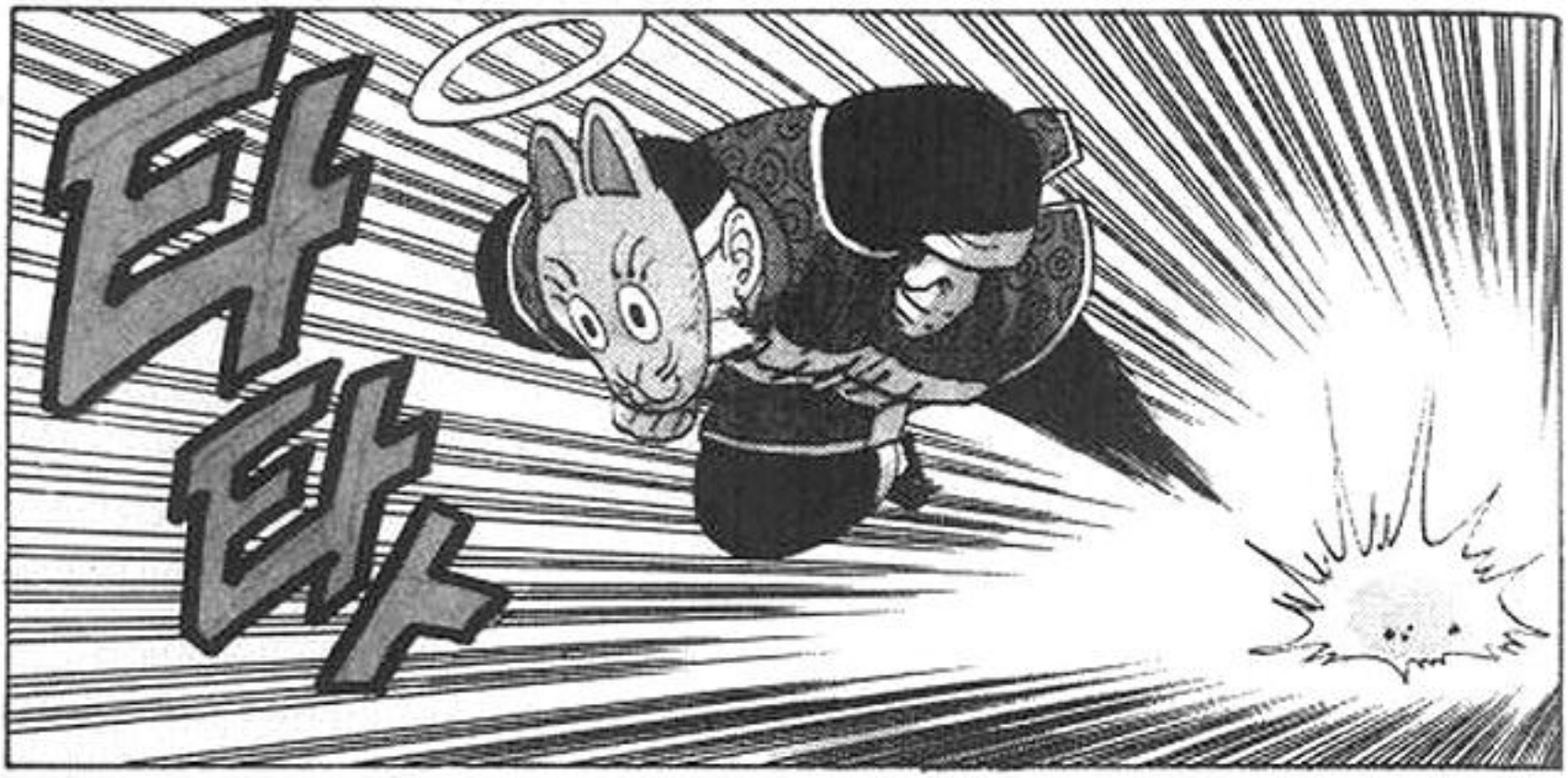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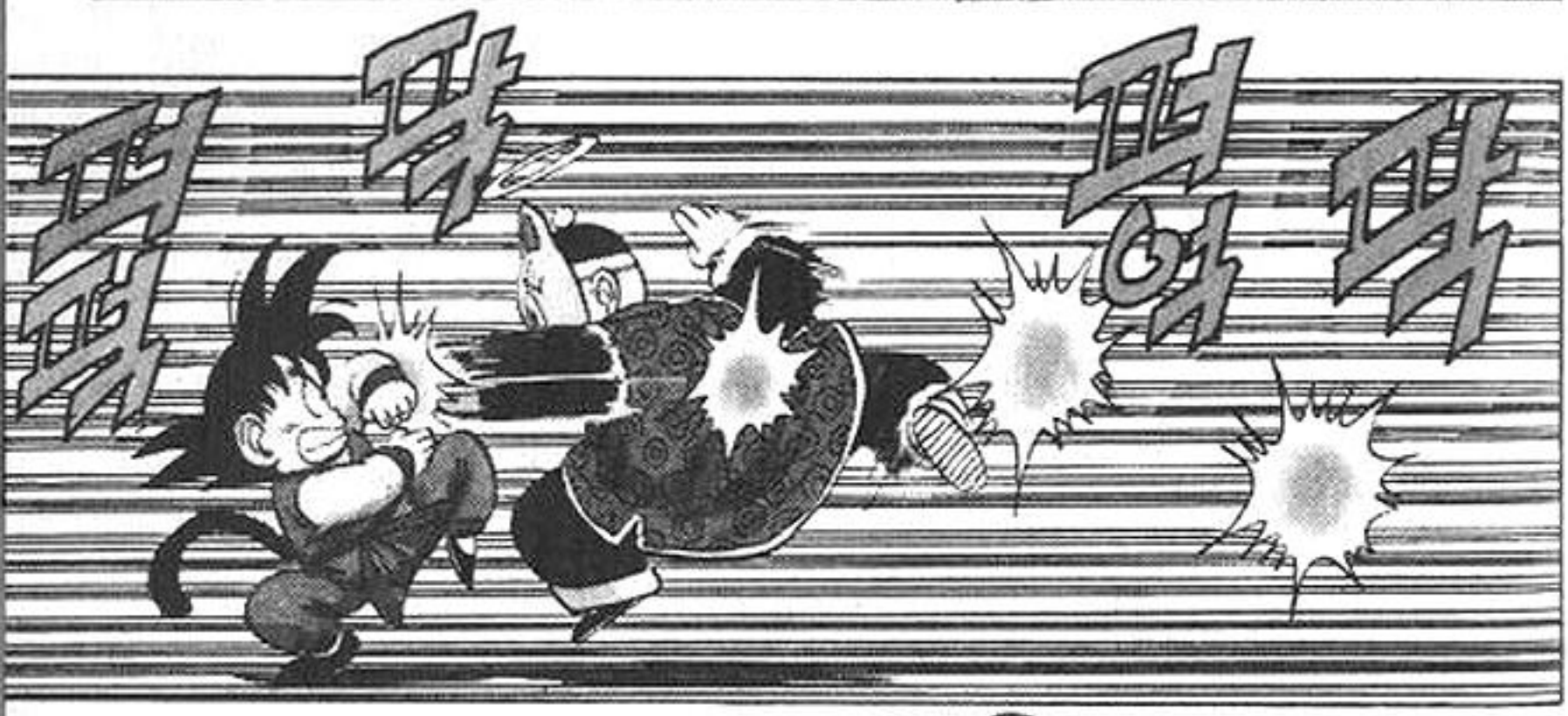
다음은, 제106화 강적끼리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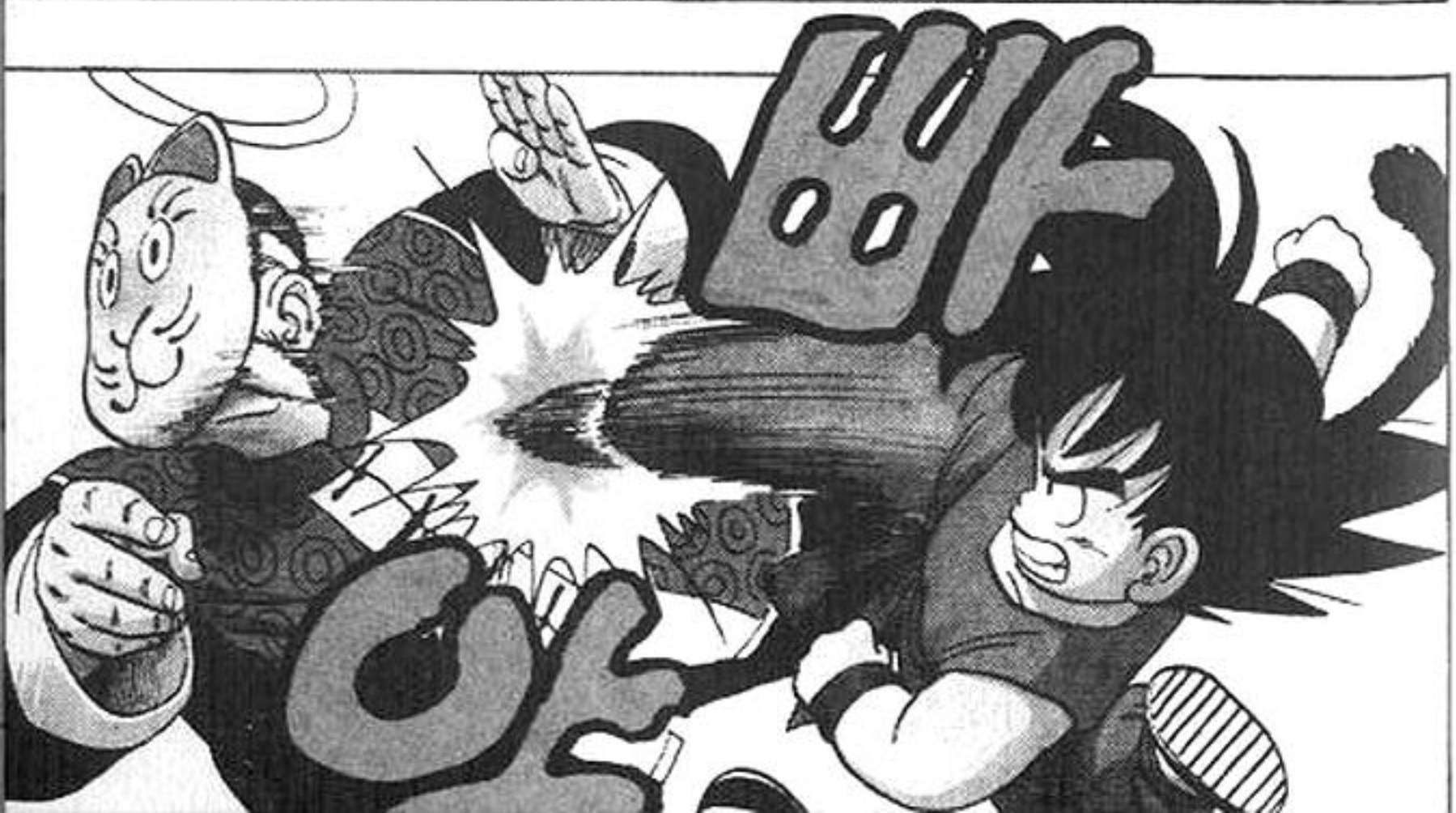





저, 저 사람 대체 뭐지…?
저, 정말 대단한 시합이다. 두 사람 다 무서운 실력자야…!


타타


퍽퍽
퍽퍽퍽


빠

파앙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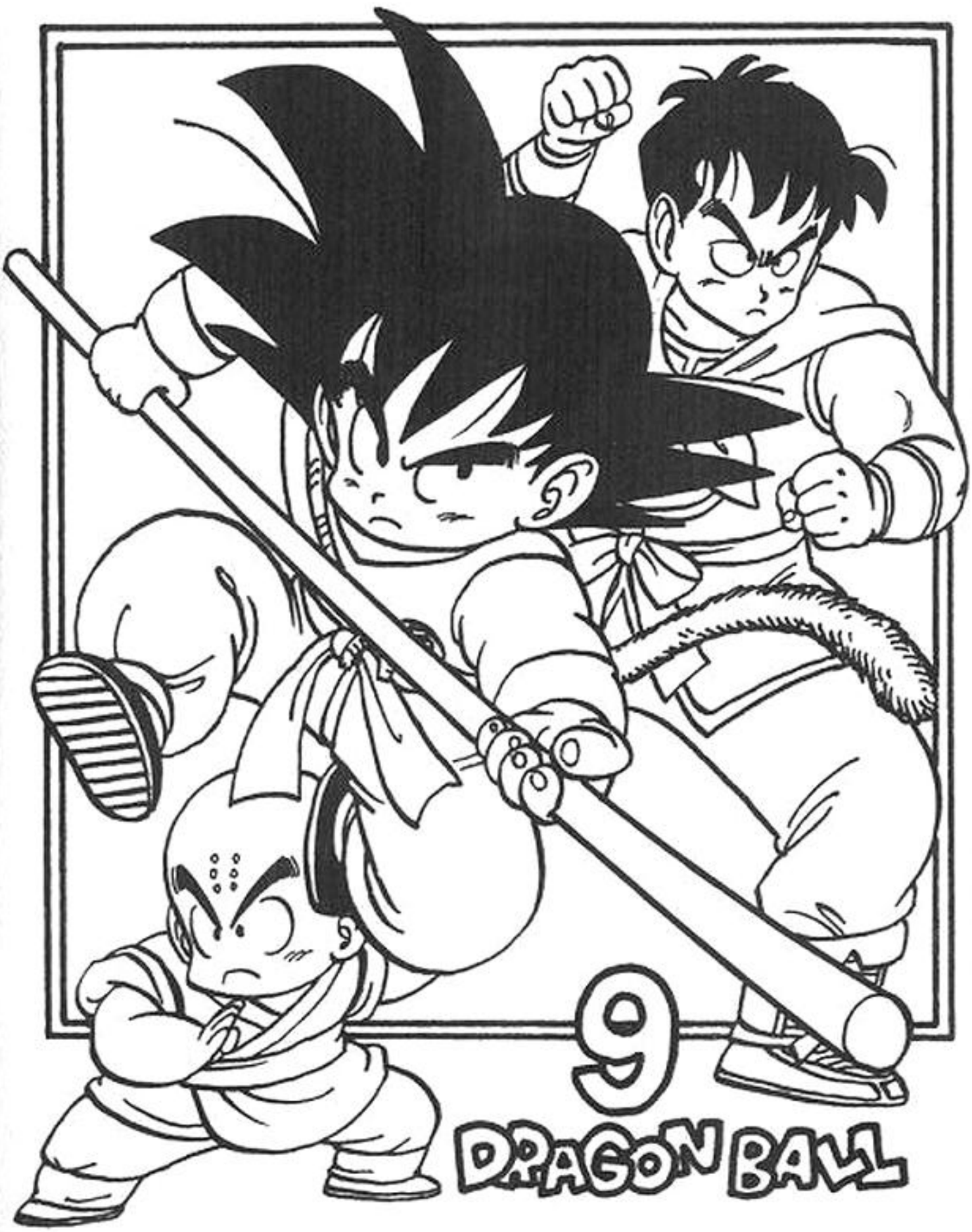
위로 던졌어! 어쩔 셈이지?

아앗!


앗!
파팍
이익!!

색칠그림

좋아하는 색을 칠해 화화로운 분위기를 즐깁시다.



으아아
아아악!

파당

위험해!!

지금 공격은
제대로
먹혔는걸!

호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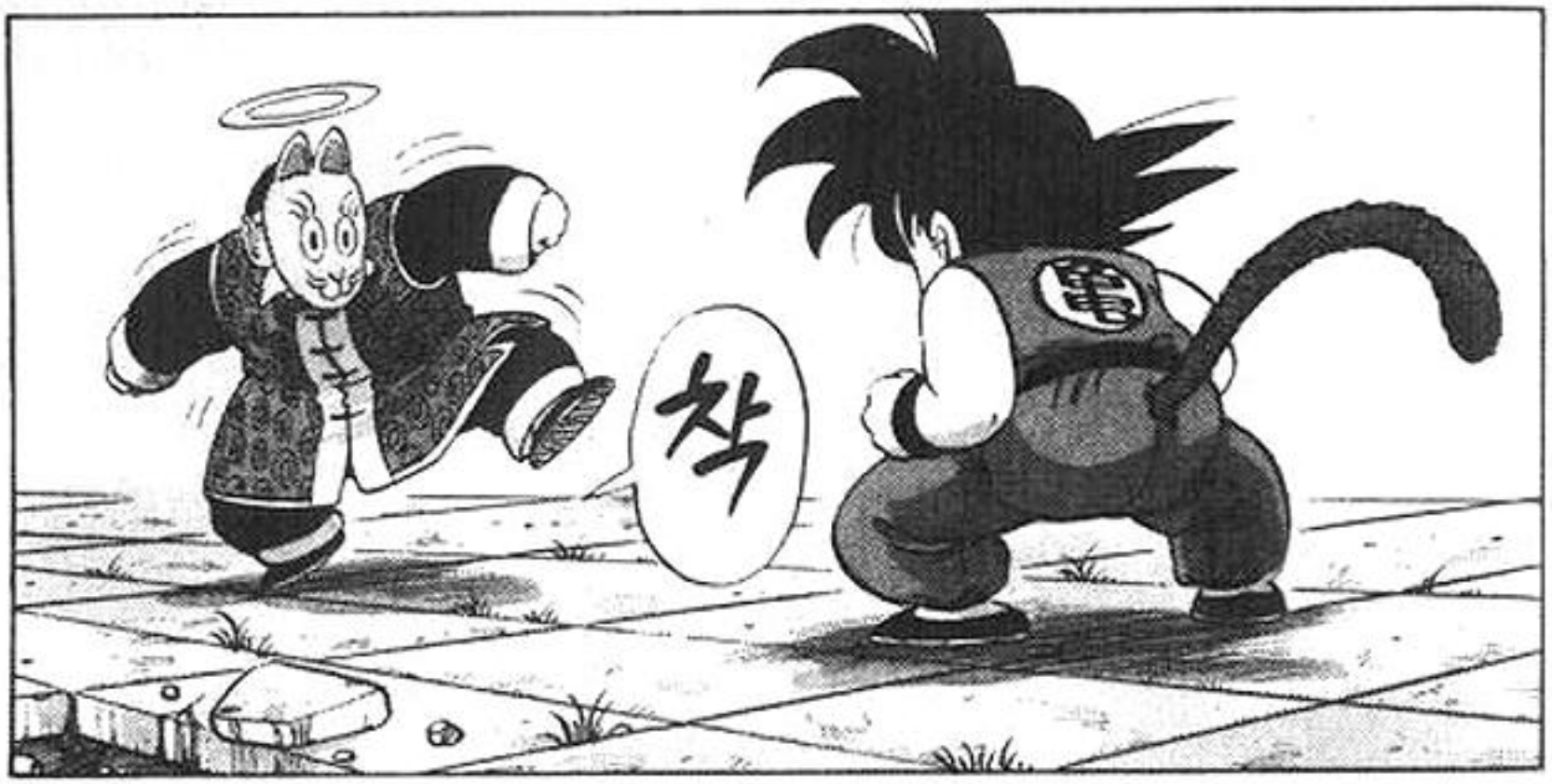

파팍
앗!!
아니!?



휘
앙
파앙
이얍!!
아!!
탁
휘이이익!


오ㅅㅅ
엇!?




찰싹


내 발차기를
정통으로
맞았는데
꿈쩍도
않다니…!
대, 대단한
수련이다.
믿어지질
않아….


너,
강하구나….
싸워볼 만한
상대야….
헤헤헤
….

어!?

슥…

좋아ー!
그럼 다시
깜짝 놀라게
해줄까?

에!

네!

…?!

서,
설마…!

엥!?

서,
설마…!

말도
안 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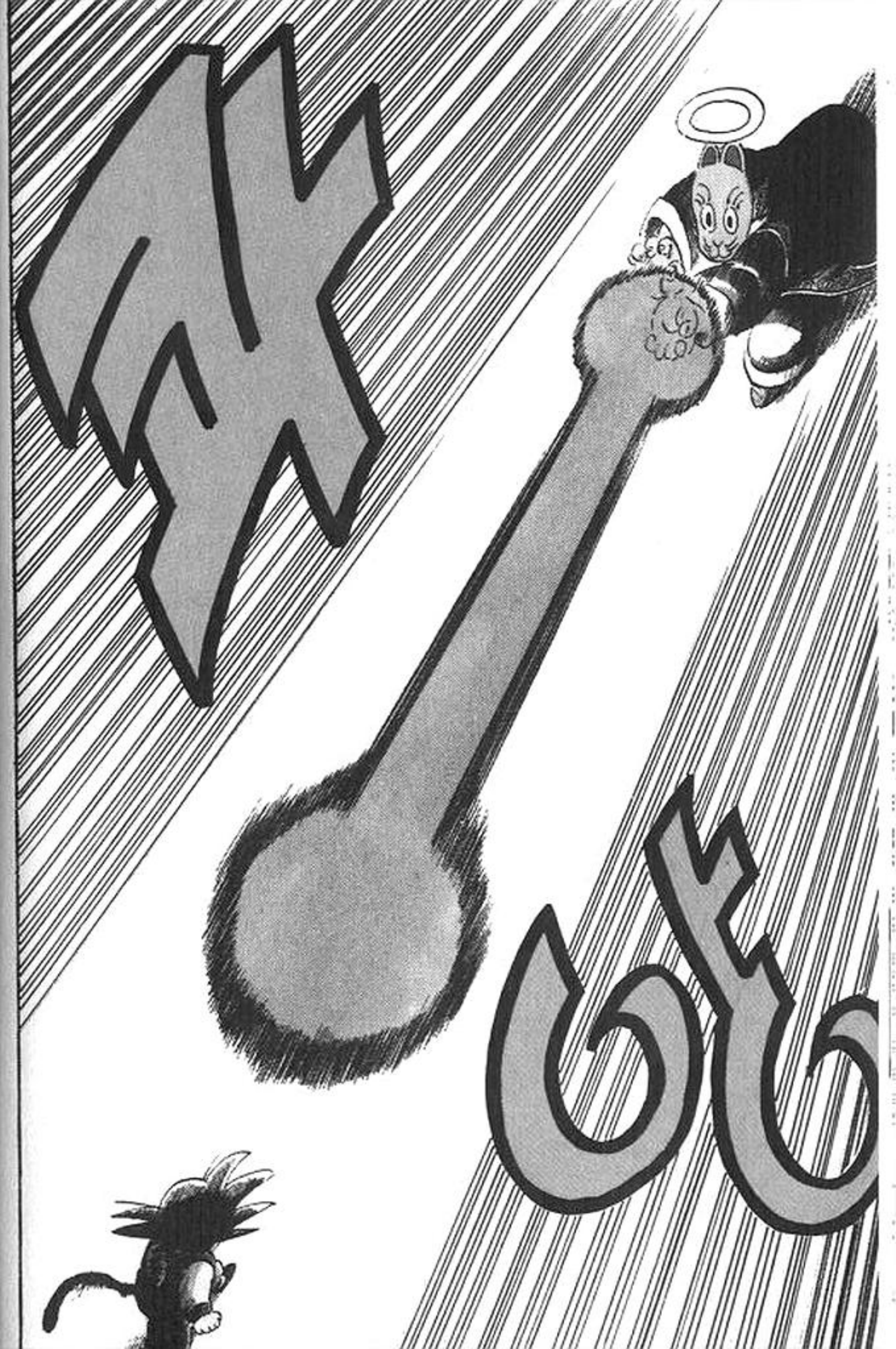
르!

진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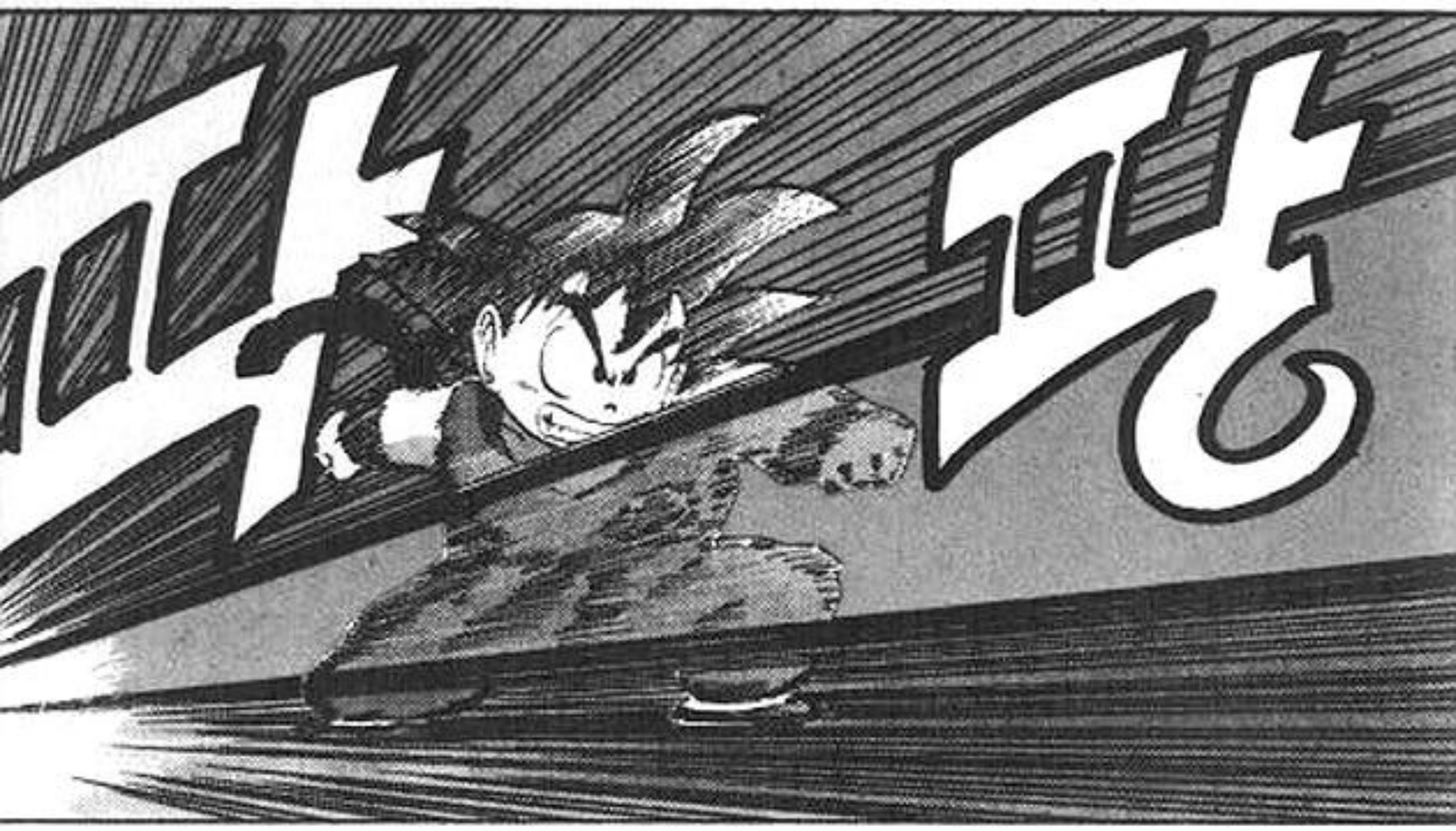
어!?

기!

파
!!




!!


나쁜


앗
!?



익!?

사라졌네!

팟

잔상권인가!?

엣!?

야호~!

저, 정말 놀라운 놈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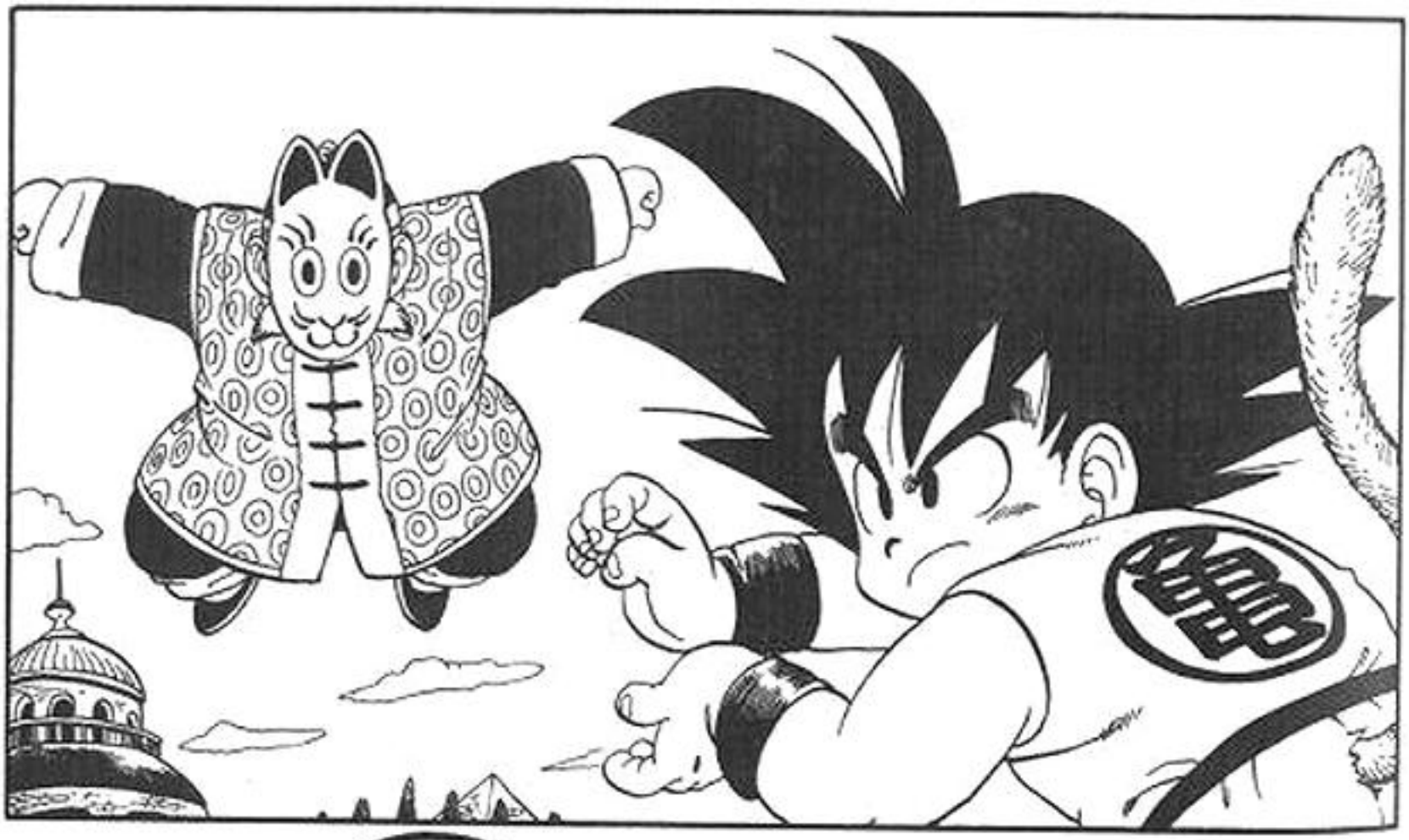
에네르기파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저 사람이….

예?

DRAGON BALL

제107화 오공의 꼬리







나 여기 있네요-!

대단한데…!

내 에네르기파를 잔상권으로 피해 공중으로 솟아오르다니….

후후후! 그러나 공중에 있는 건 불리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음은 내 공격이다!!

네…. 에….

이번에야말로 에네르기파를 피할 수 없을걸!

절호의 찬스다!

기…. 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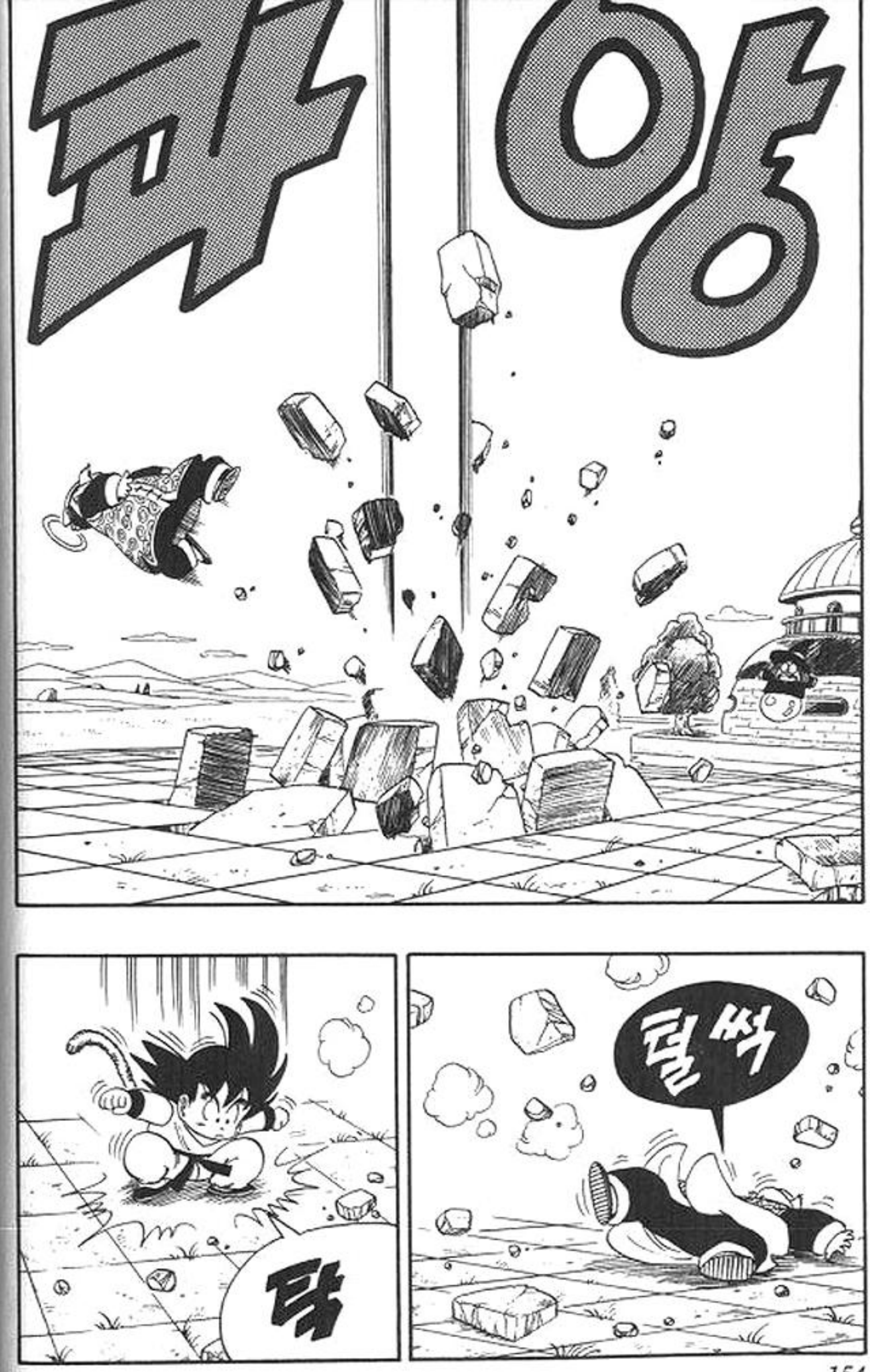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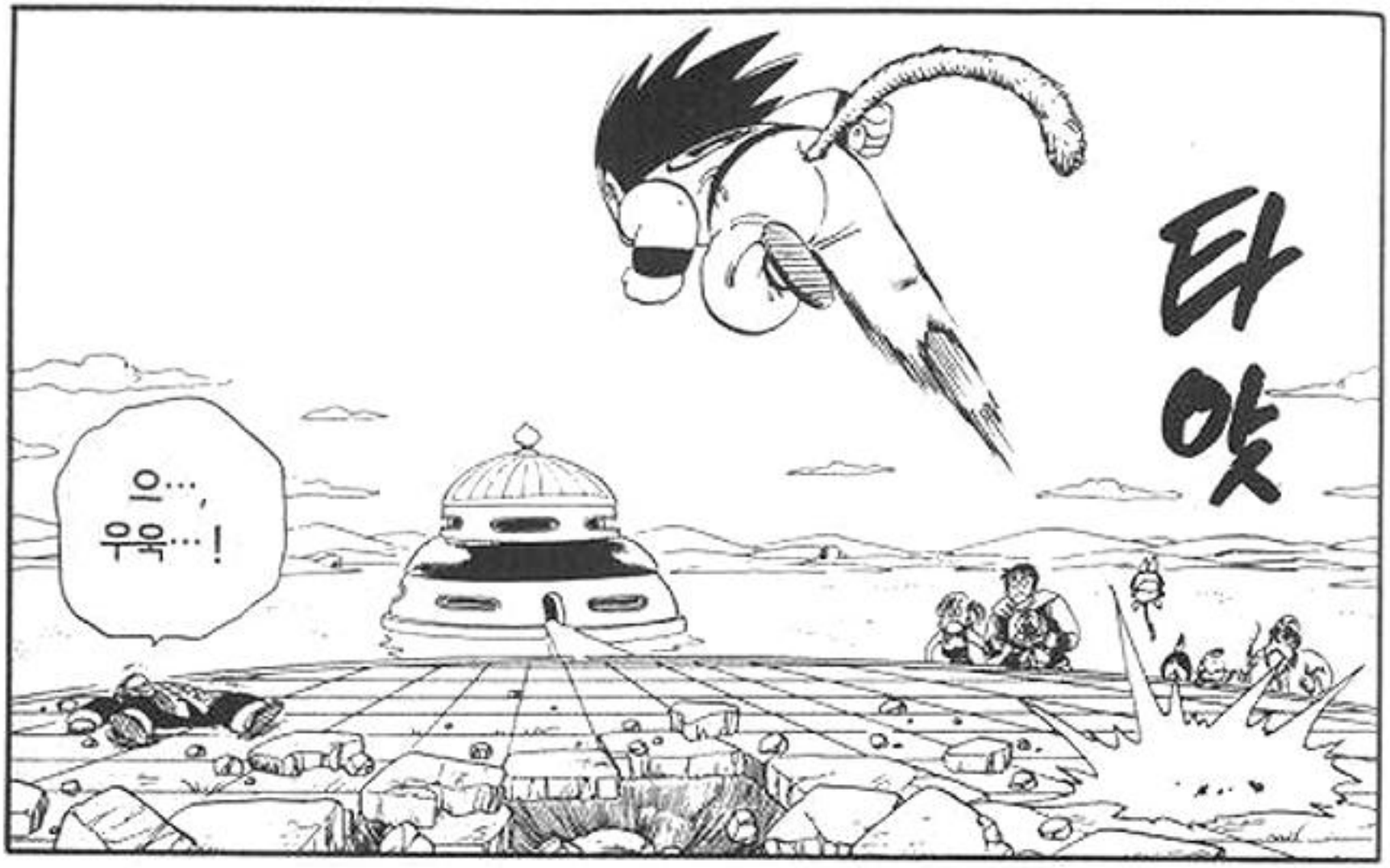
에네르기파를 사용할 줄 아는 거냐!?

설마!?


쉬이이익
팟—!!
파




파
앙
탁
털썩


타앗
으…,
윽…!


피앗
피아!!


야앗!

으윽…
으윽…!

어때?
졌지-?

크, 큰일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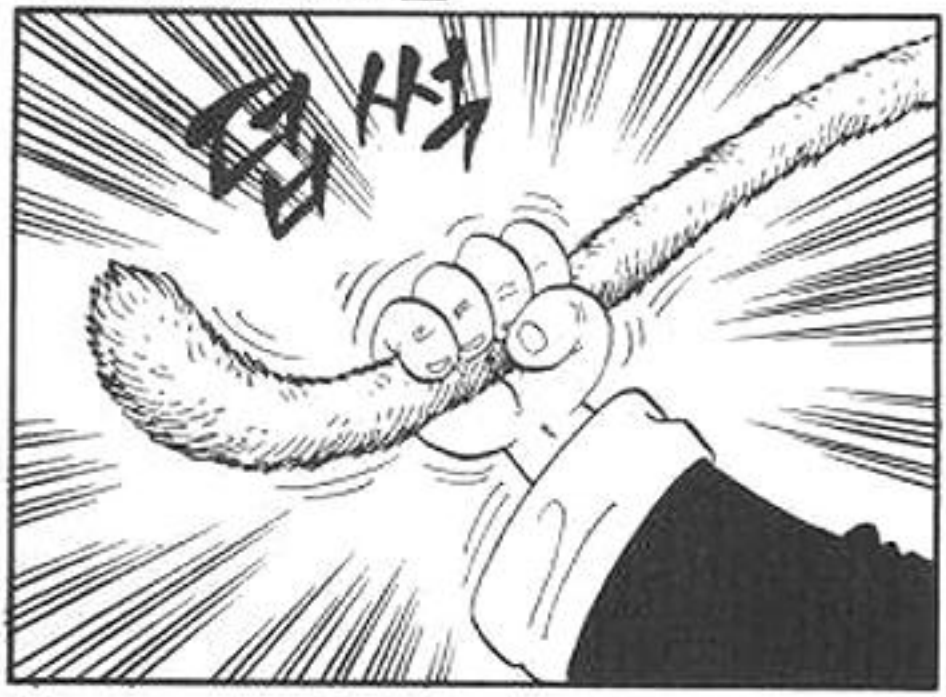
이겼다!!

만세!!

항복
안 하면
끝장내
버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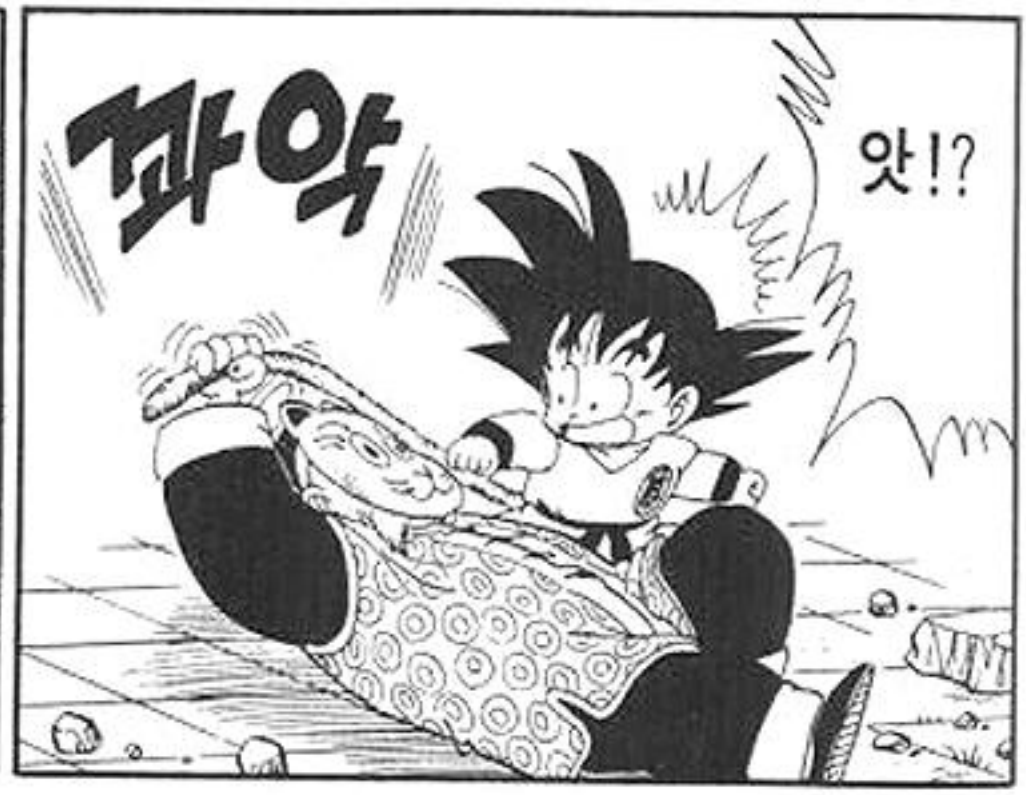
어?

후후후….


휙 샤


샤


어…!


꽈앙
앗!?


오공은 꼬리를
강하게 잡히면
힘이 빠져
버린다구!
아,
안 돼!!
뭐!?


헉
헉
헤롱
헤롱
털썩

아,
맞아.
그랬었지!

저 녀석은
꼬리가
약점
이었냐!?

뭐라고!?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인데!

역시 대단한
달인이구나.
그런 약점을
간파하다니….

…….

그걸 아는
사람은 나하고
푸알, 그리고
우마왕의 딸
이었는데….

오공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다니….

꼬마 녀석!
꼬리를 단련
시키는 건
게을리했구만!

히히헛!
역전이다,
역전!

으…!
너무
방심했어.

호호호!
불쌍한 놈.


그래…! 역시 저 사람의 정체는….
후후후…! 설마 했더니!
저 녀석은 손오공의 약점을 간파한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다구!
엑!?
뭐라고요!?
철썩
영차!!
팍
퍽


빳
빳
어떠냐? 너야말로 항복하는 게 좋을걸!
으…! 시…, 싫다….
히죽
됐다!
저 꼬마의 약점은 꼬리구나!

나보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역시 이 피라후를 버리지 않았어!

저 괴물 꼬마가 다시 드래곤 볼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인공위성을 이용한 드래곤 레이더로 저 꼬마가 고생해서 모은 6개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즉, 저 꼬마는 절대로 7개를 다 모을 수가 없어!

이 특수 가방에 들어있는 내 드래곤 볼은 레이더에 안 나타나지.

이제 저 꼬마는 하나도 안 무서워!!

드래곤 볼은 나 피라후 님이 차지할 거다!

부우우웅

자! 놈들의 드래곤 볼을 빼앗으러 가자!

꽈 당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꼬리의 약점을 알고 있지?

아…, 안 돼! 저러다 죽겠어…!!

끈질긴 놈이군. 아직도 항복 안 할 거냐?

으…! 절대… 질 수 없다….

손오반이야!

저 사람은 오공의 죽은 할아버지!

예엣— !?

뿌직

헉

자, 항복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엥!?

다음은, 제108화 손오반



UFUFA!!
히익!
으악!!
이, 이런…! 꼬리가 끊어졌네…!
어라~!? 손오공의 약점이 없어진 셈이잖아!!

무, 무슨 헛소리야!? 죽은 지 엄청 오래 됐잖아!

소…, 손오반….

저, 저 사람이 손오공의 죽은 할아버지라고…?

그, 그렇다면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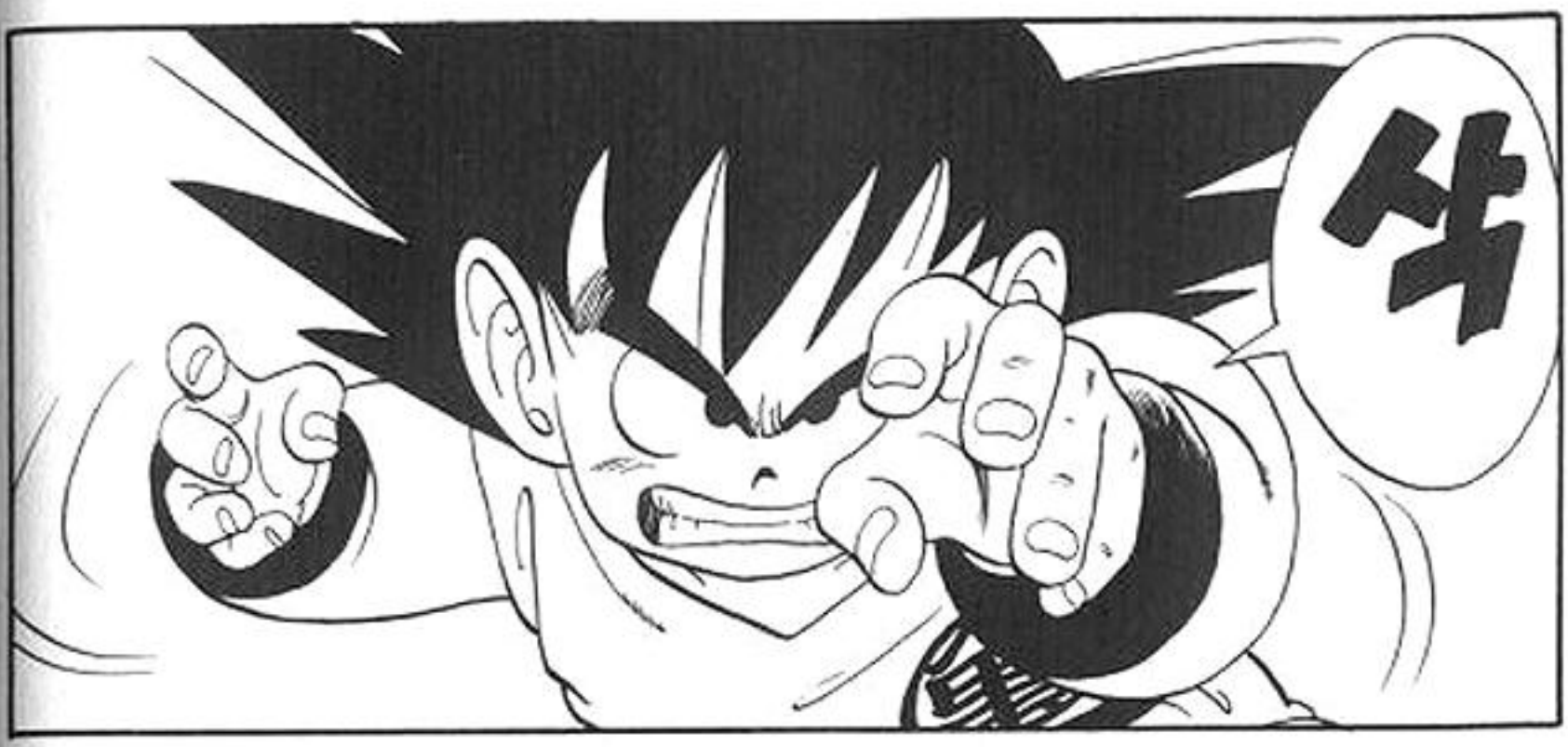
저봐. 머리 위에 천사의 테가 떠있지?

그래, 손오반은 분명히 죽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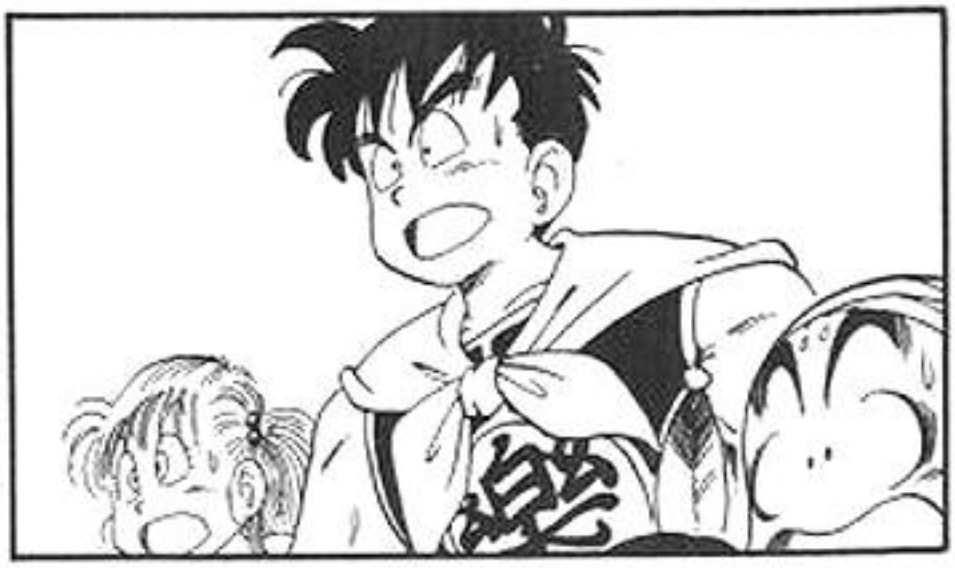
가, 감히 내 꼬리를 뽑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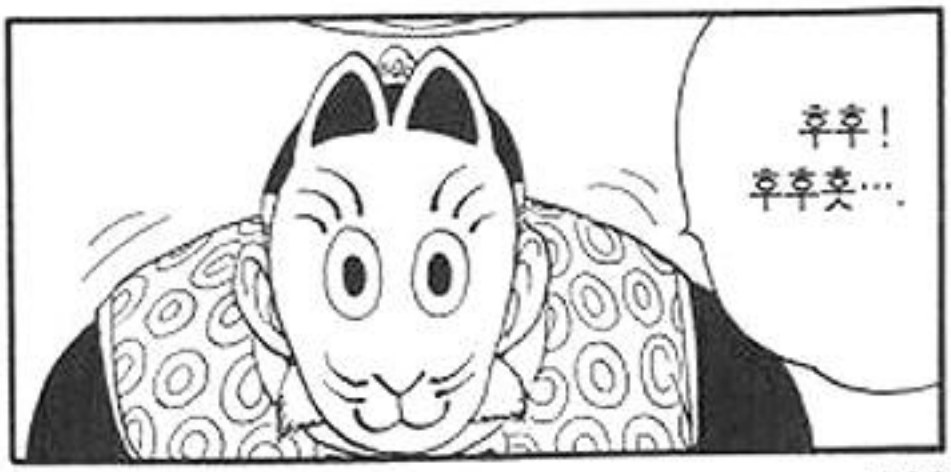
아야야~!


나


나 정말
열받았어!!


내가
졌다.
항복!




후후!
후후훗….

이긴 거야…?

어라….

뭐!?

할 수 없군….

음….

강해졌구나, 오공아….

정말 열심히 수련했어.

어, 어떻게 내 이름을…!?

!!

하지만 약점인 꼬리를 단련시키는 건 게을리했어. 조심해야지….

서…,
설마…!

설마…!!

그래, 그래!
오래간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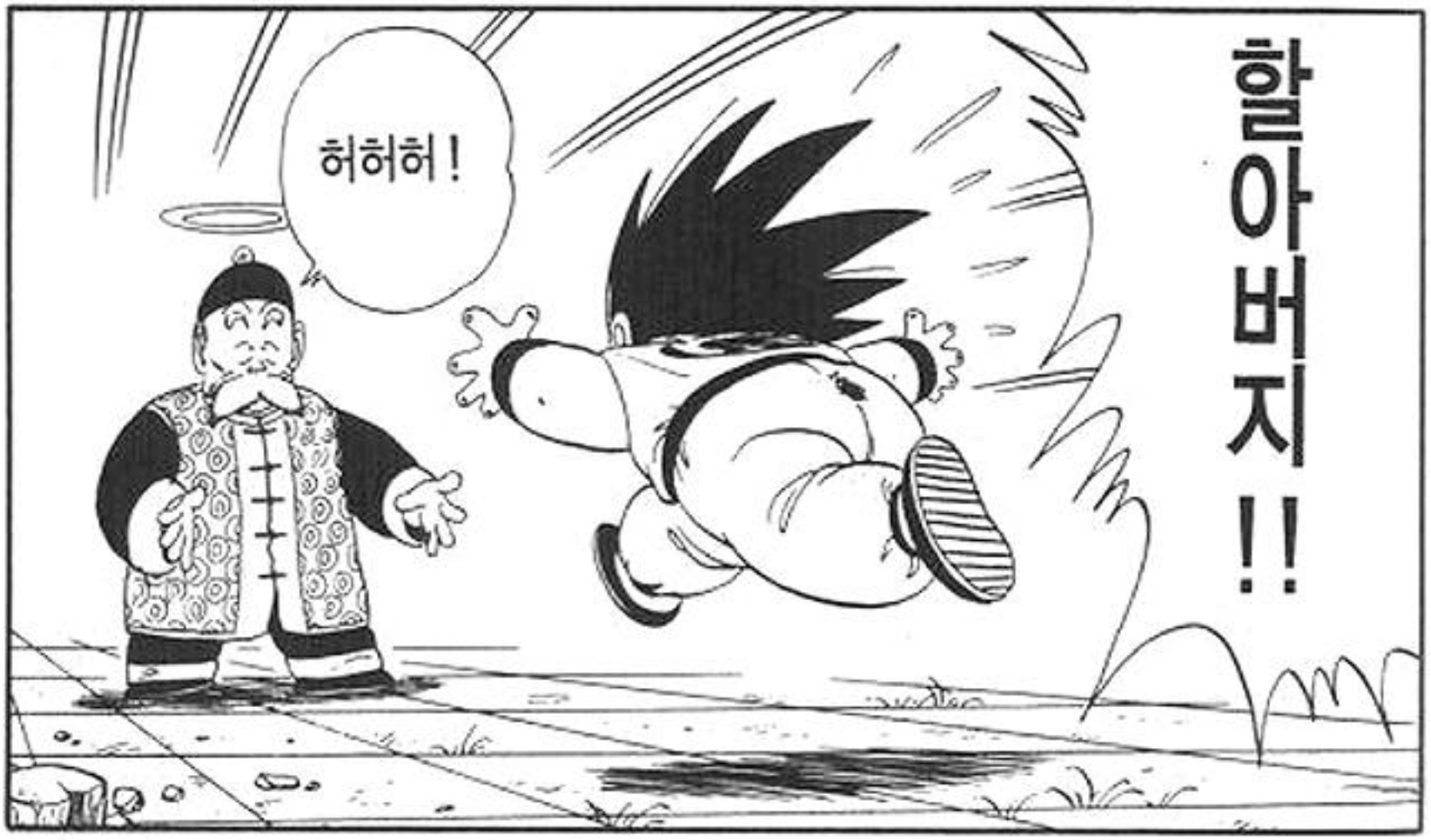
이제야
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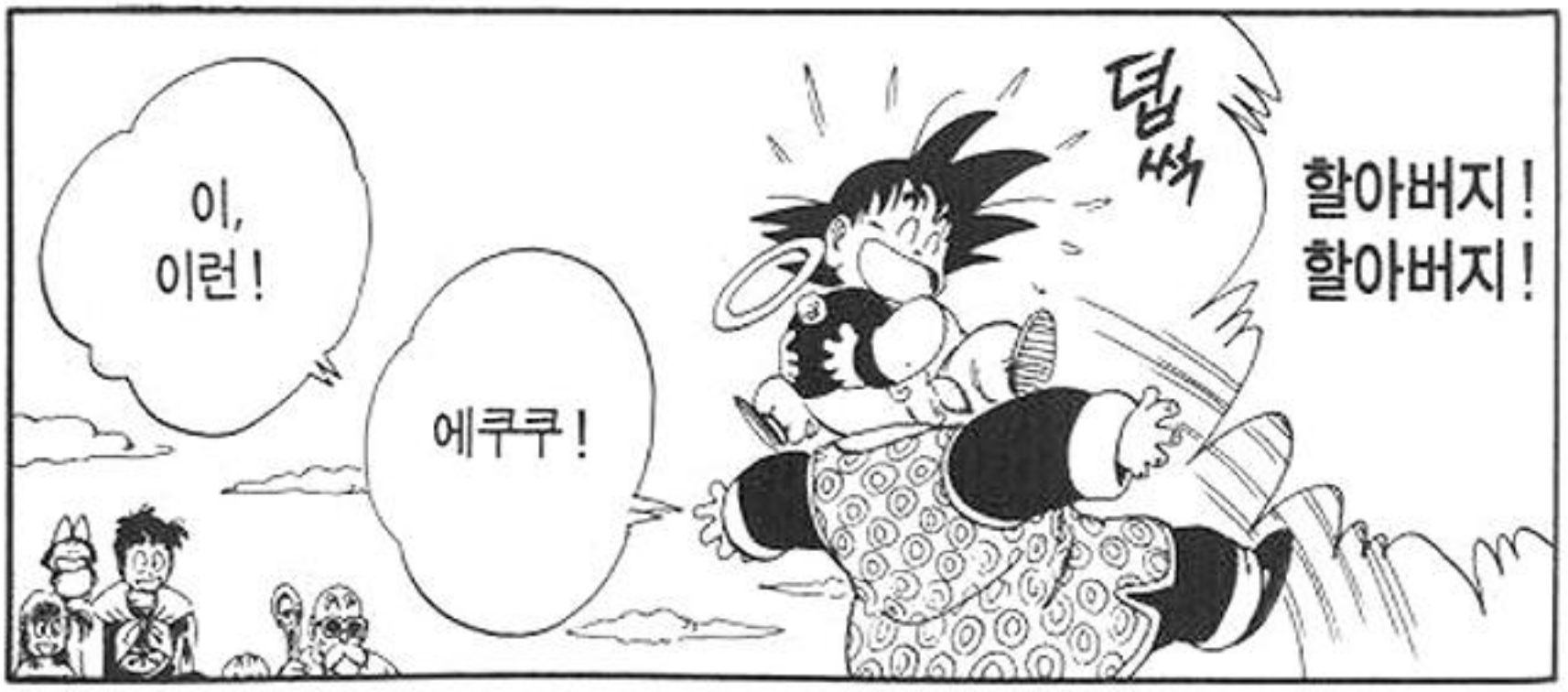
자!

나다!!


할아버지
…!!


하…,
할아버지….


허허허!
할아버지
!!


이,
이런!
에쿠쿠!
덥썩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리 강해도 아직 어린애는 어린애니까….

어머! 손오공도 울 줄 아네….

녀석. 바보같이 울긴.

으앙~! 할아버지~

촐쩍!!

무천 도사한테 무술을 배웠니?

근데, 너 정말 강해졌구나. 나도 당해낼 수가 없으니….

응!

약점을 극복 못한 것 같아서 단련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꼬릴 잡아서….

그만 너무 힘이 들어가서 끊어졌어.

할아버지, 언제 살아났어!?

아니, 살아난 게 아냐.

음. 반갑군…. 근데 나도 처음엔 자네인지 몰랐지.

무천도사 님, 그 동안 별고 없으셨나요?

그래서 저승으로부터 죽은 무술의 달인을 스카우트해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합을 하게 해주지. 월급도 많아.

무천도사 님의 누나인 점쟁이 바바는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지.

그럼, 오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

그렇게는 안 돼. 이승에 있을 수 있는 날은 딱 하루거든.

아니, 아니지.

그럼 다시 나랑 살 수 있어?

근데 손오반의 손자인 지는 몰랐는걸.

만약에 꼬리가 달린 꼬마가 찾아오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걸랑.

헤헤헤! 당근이지.

아니! 누나는 점을 쳐서 오늘 우리가 만날 걸 알고 있었지?

안심해! 내가 달을 없애 버린 후부터는 별일 없으니까.

그런데 손오공 녀석이 괴물 원숭이로 변하진 않던가요?

소곤 소곤

소곤 소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오공이 엄청 걱정됐는데, 무천도사 님의 제자로 삼아 수련까지 시켜 주시다니!

뭐?

아참!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게 있어!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냐!

에? 뭐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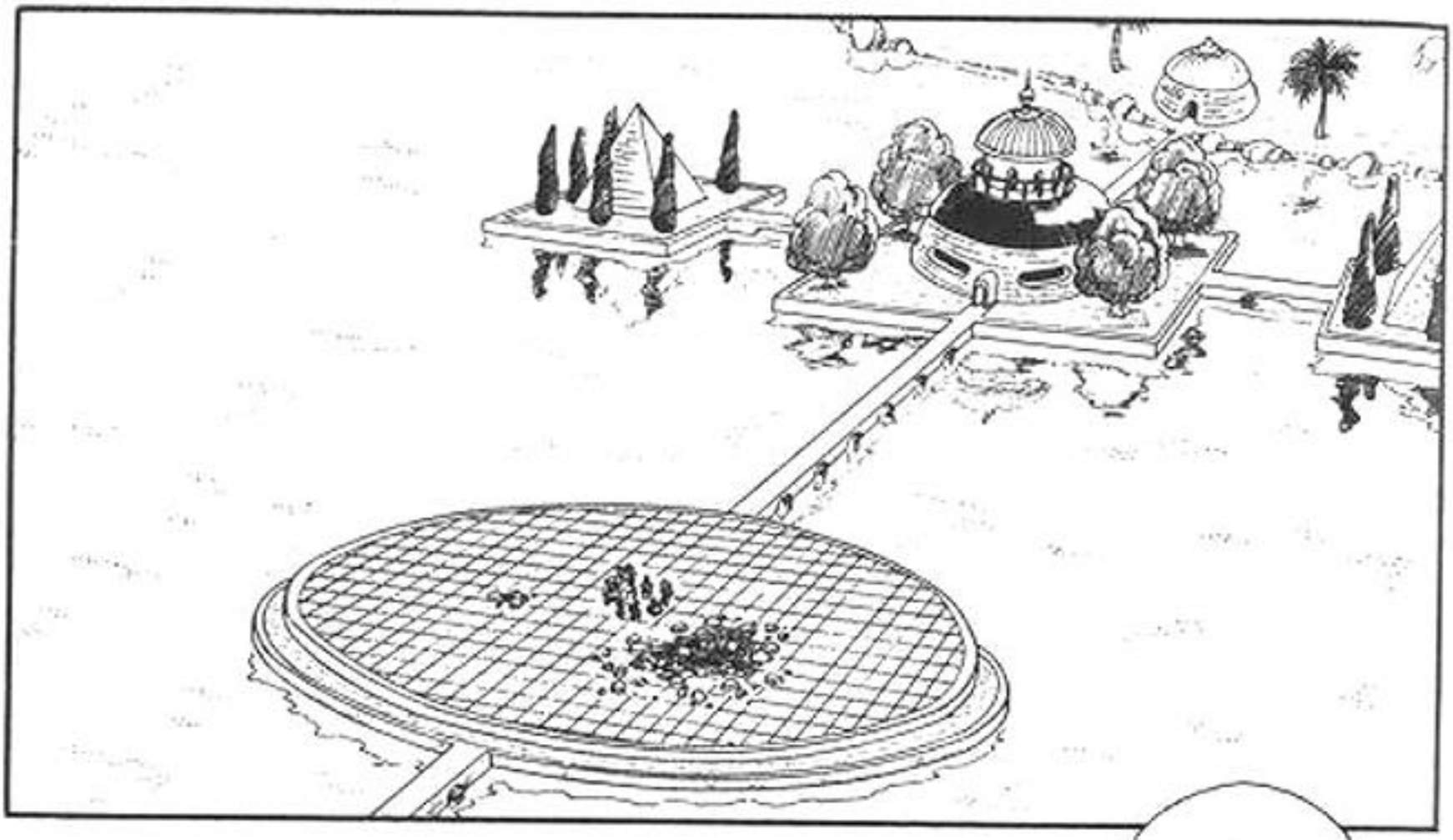
이 구슬 때문에 손오공의 인생이 바뀌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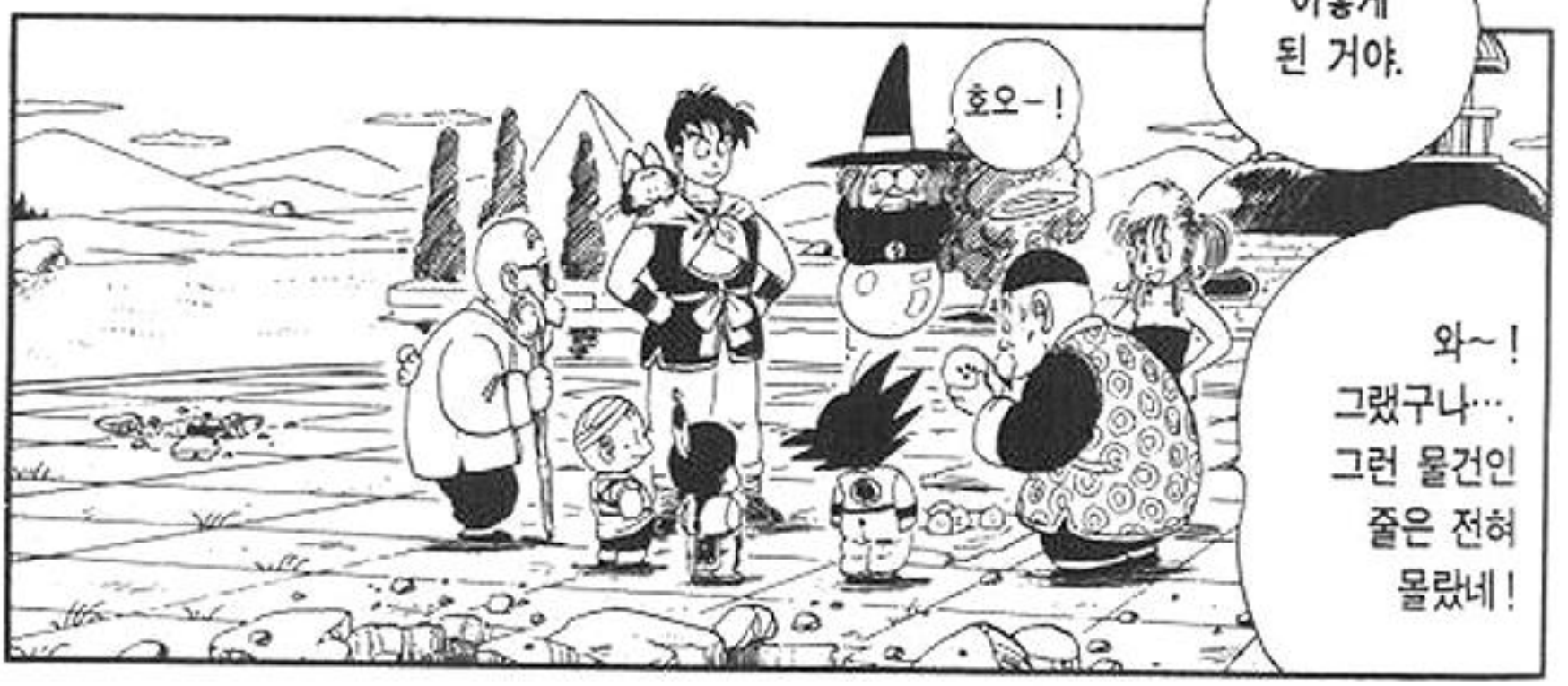
뭐?

호오…! 그건 전에 내가 주워온….

헤헤헤! 잘 가지고 있지?

어라!?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게 왜 여러 개 있지?




이렇게 된 거야.
호오-!
와~! 그랬구나…. 그런 물건인 줄은 전혀 몰랐네!


하하하! 신경쓸 것 없다!
나는 저승도 꽤 마음에 들어!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잘 됐다! 이제 너희 아빠는 살아 돌아올 수 있어!
그… 그치만….
오공 형의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우리 아빠만….

그럼 너희들이 이겼으니 약속대로 점을 쳐주지!

자!

탁

여자 좋아하는 걸 보니 역시 도사님의 수제자가 틀림없군요!

쓸데없는 소리 마!

고, 고맙습니다!

난 슬슬 저승으로 돌아가야 겠다네.

그럼!

오공이 튼튼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뻤다.

할아버지, 벌써 가는 거야!?

사부님, 그리고 여러 친구들! 앞으로 이 천덕꾸러기 녀석을 잘 부탁 드립니다!

그래, 그럼 또 죽어서 열심히 수련 해라.

바바님, 정말 고마웠어요.

먼 미래에 네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저승에서 지켜보마!

응!

그럼, 여러분도! 빠른 시간 안에 저승에서 또 만나요!

……

저승이라 고라….

……

……

자네도 몸 건강히….

…라고 하면 이상한가…?

하하하!

안녕, 할아버지! 만나서 반가웠어!

그래!

그럼….

안녕히…!

팟

안녕….

그 구술이 있는 장소를 알고 싶단 말이지!

자, 점을 쳐줄게!

호이호이 호이호이 사삭!

어디….

번쩍

할아버지!

나, 꼬리가 생기면 꼬리도 단련해서 더욱 강해질 거야!

그 이상 강해지면 내 위치가 흔들리는데…!

움직여…?

어? 움직이고 있네….

흐홈…!

이상하네….

찰칵 찰칵 찰칵

그런데 왜 저 정도로 이 레이더에 안 잡힐까?

응! 보여!

즉, 달리고 있는 저 차 안에 그 구슬이 있단 얘기지-!

너무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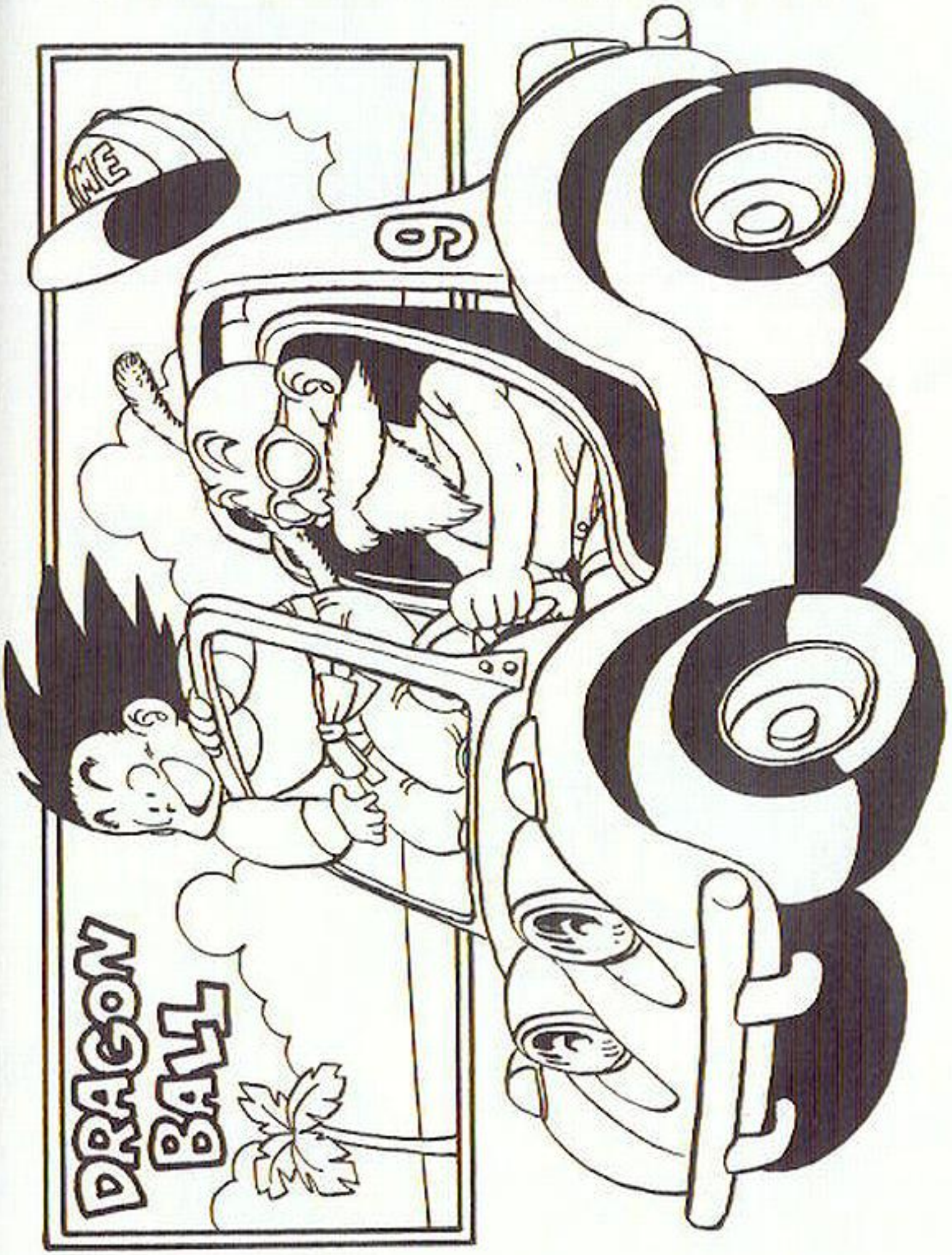
써억

이쪽 방향으로 2백k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지금 저 차가 어디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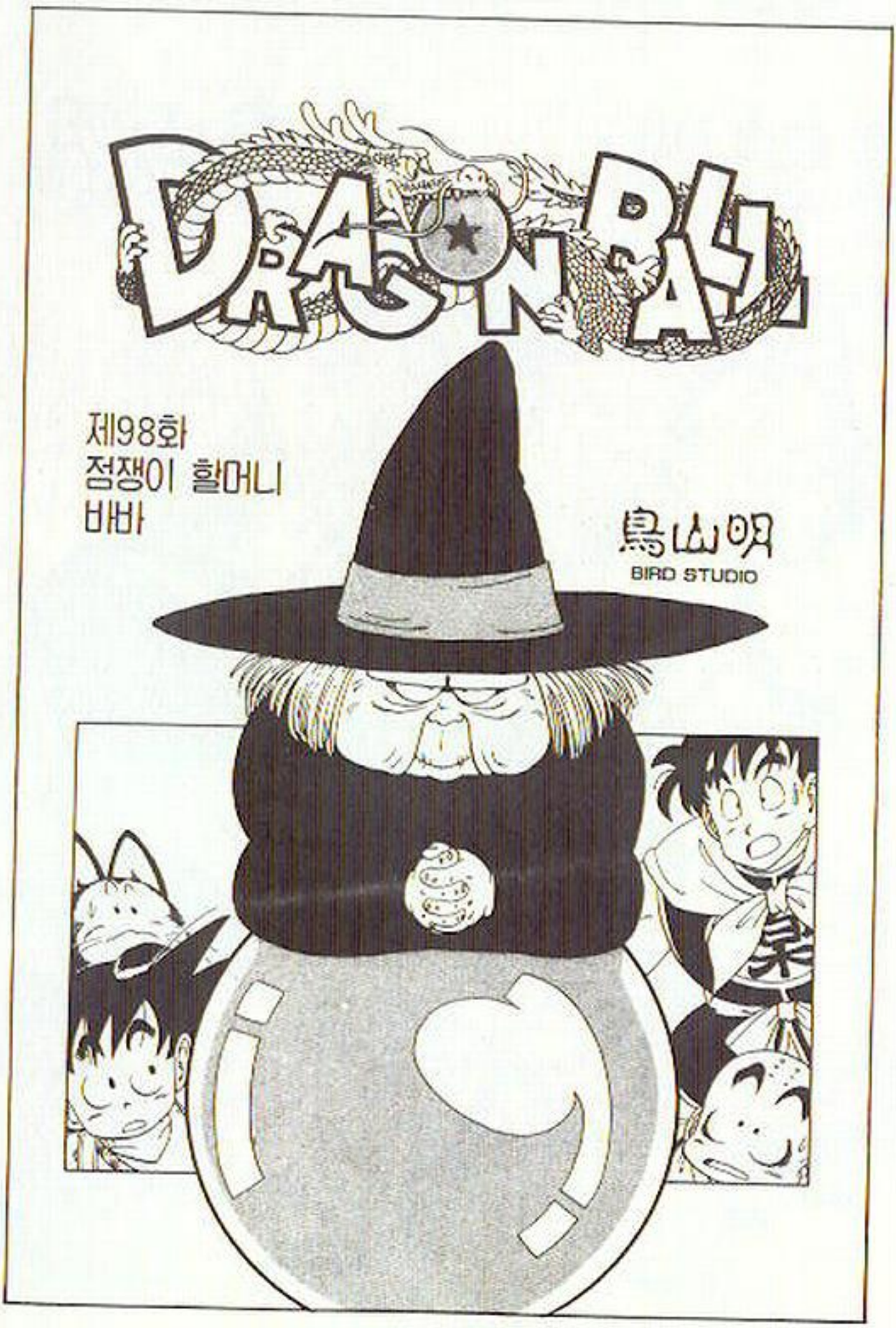
색칠그림

좋아하는 색을 칠해 화사로운 분위기를 즐깁시다.



표지 페이지 대특집 VIII

또다! 「표지 페이지 대특집」입니다.
이번 권에 실린 각 화의 표지를 정프에
연재한 그대로 대공개합니다- !!



DRAGON BALL

제99화 5인의 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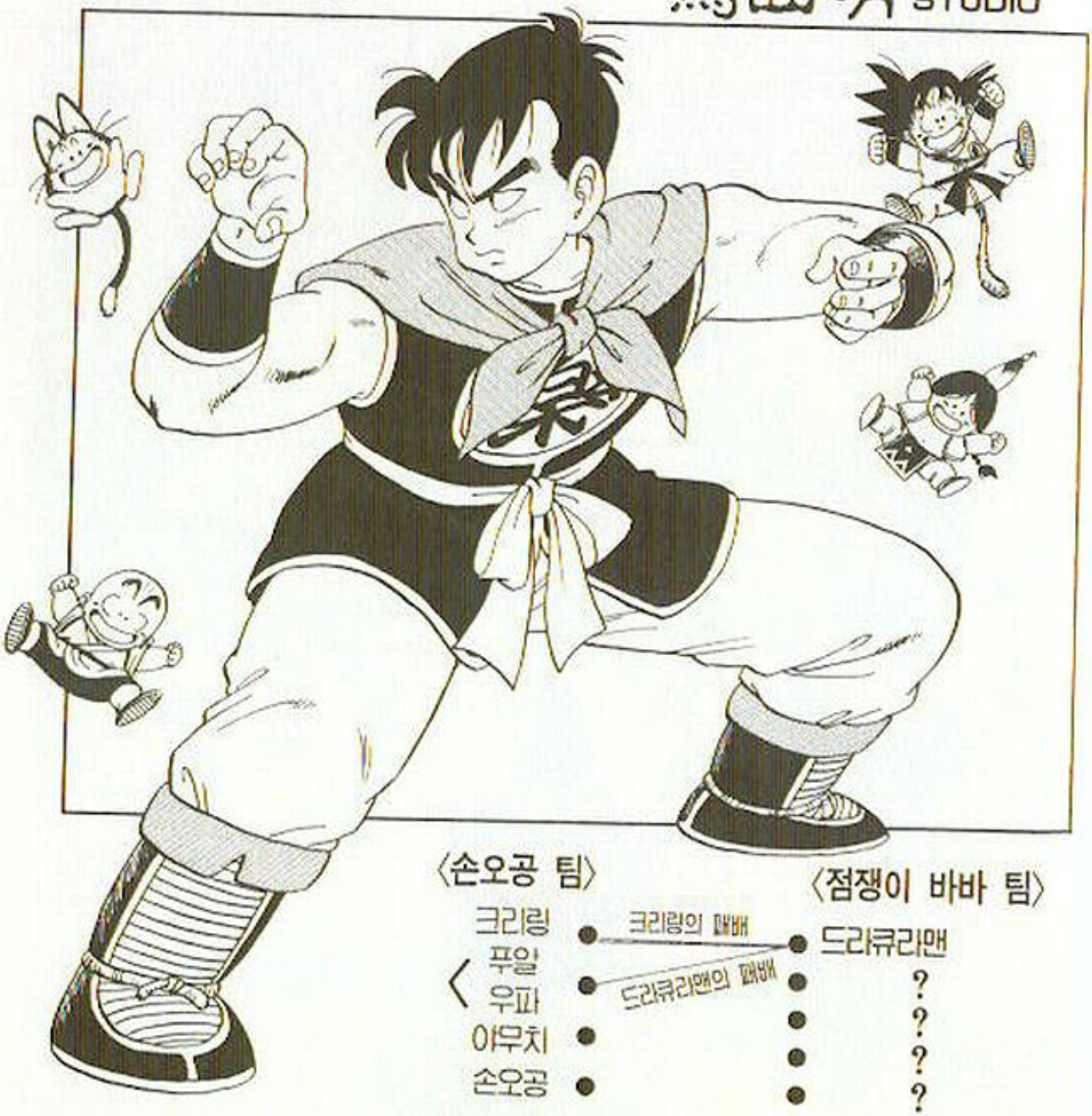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00화 대혈전

鳥山明 BIRD STUDIO



〈손오공 팀〉

크리링
푸알
우파
야무치
손오공

〈점쟁이 바바 팀〉

크리링의 패배

드라큐라맨의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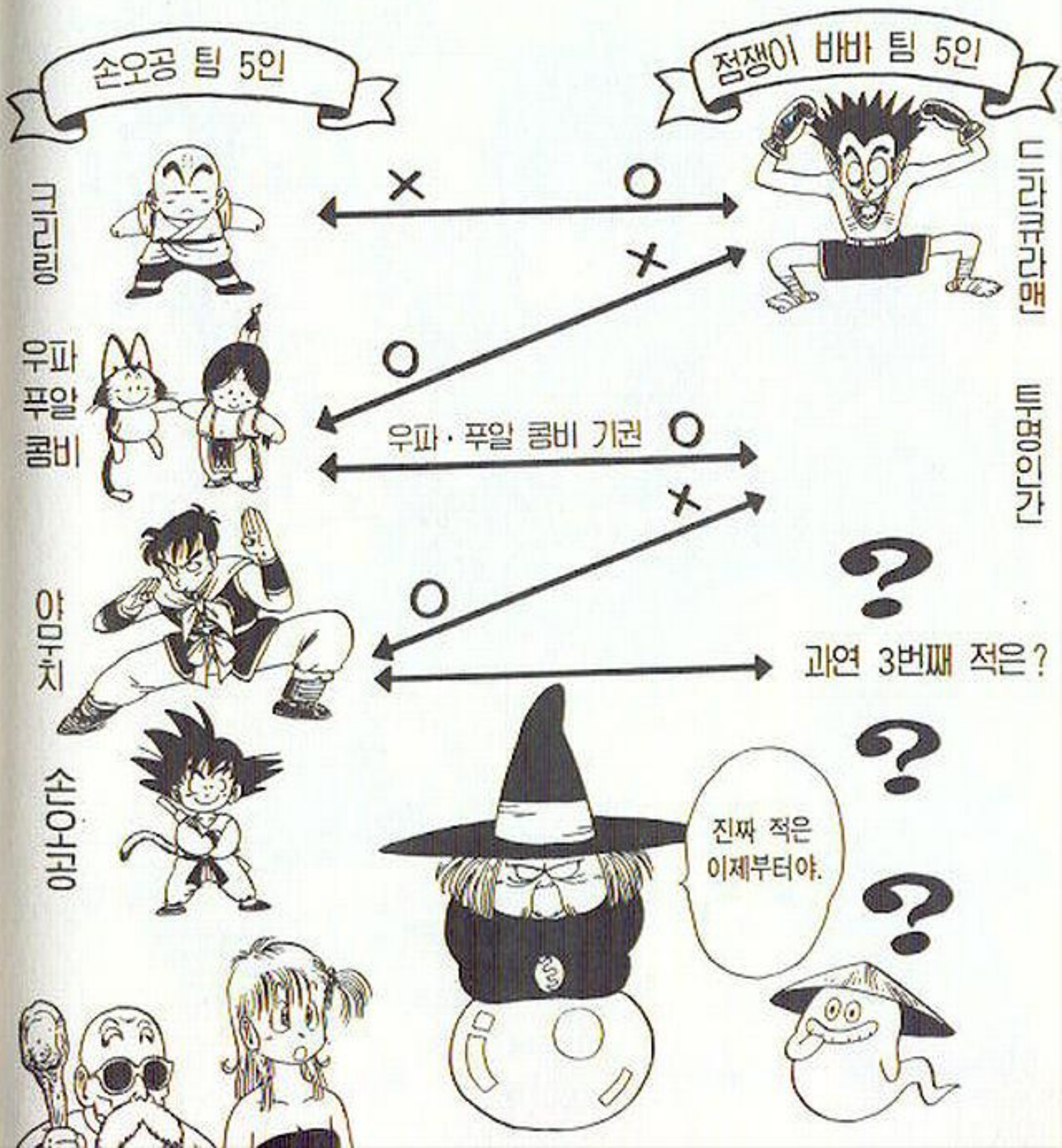
드라큐라맨
?
?
?
?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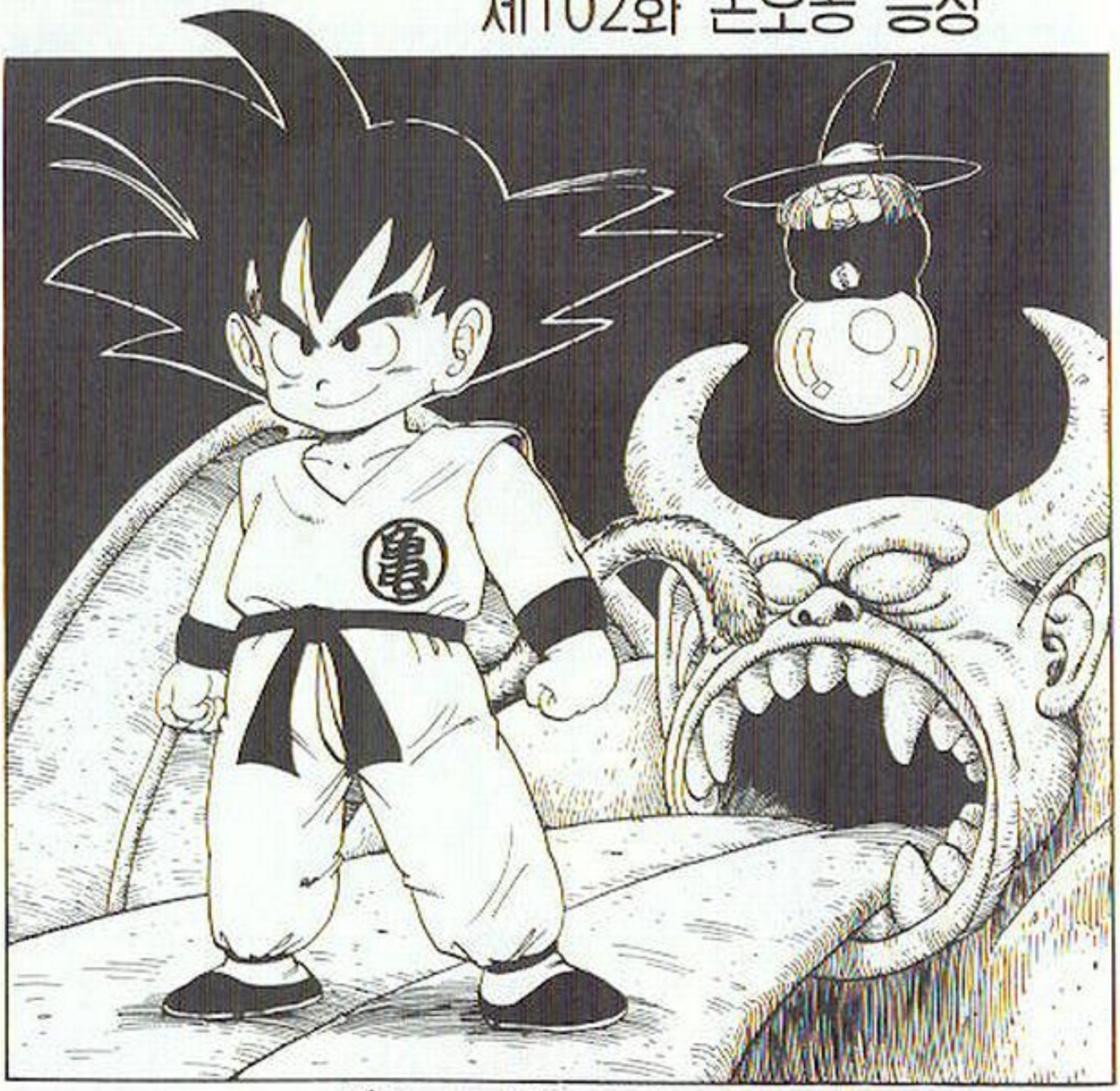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제101화 악마의 화장실



DRAGON BALL

제102화 손오공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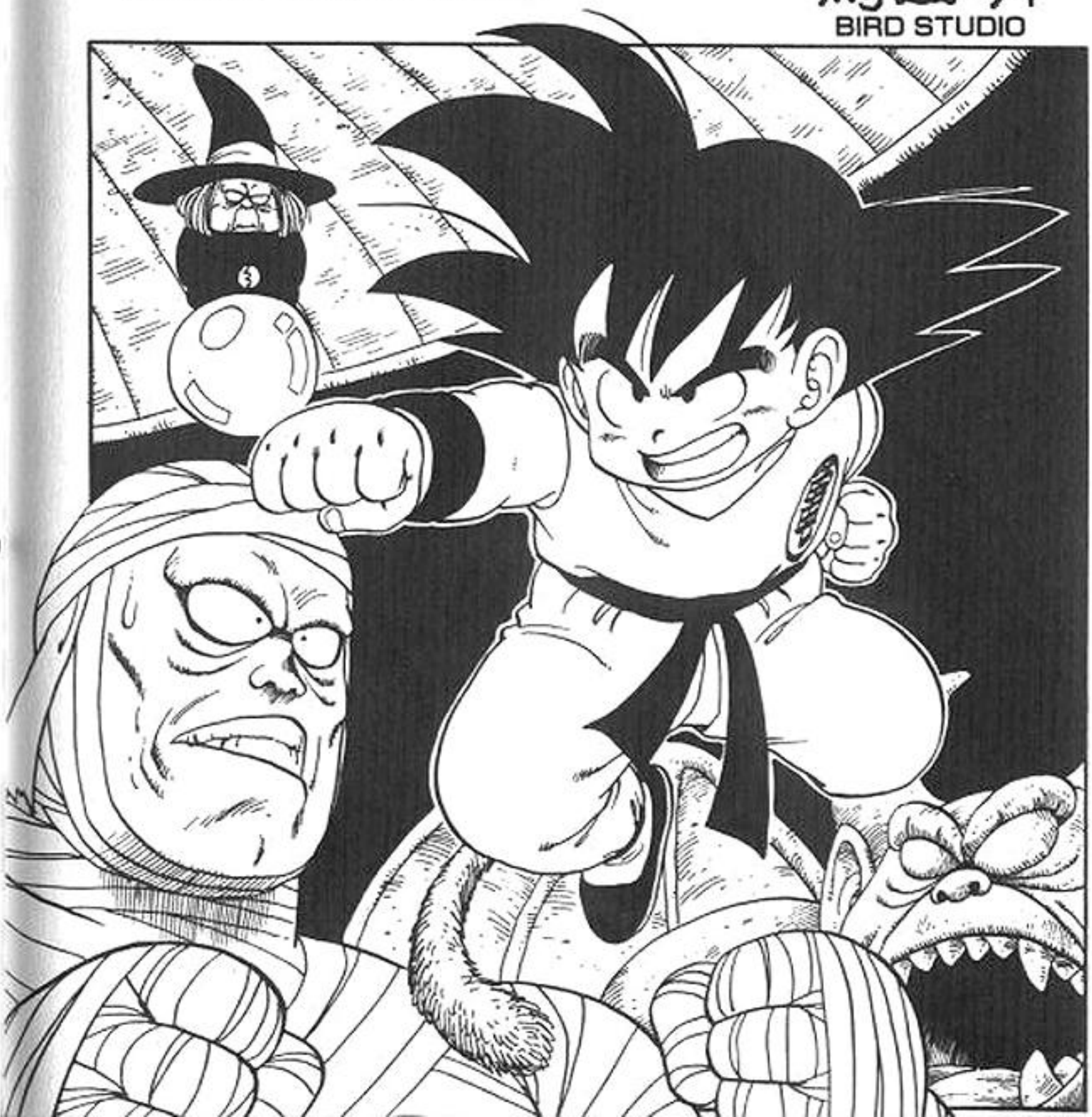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03화 손오공의 파워!!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제104화 아크마이트 광선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105화
5번째 사나이

鳥山明
BIR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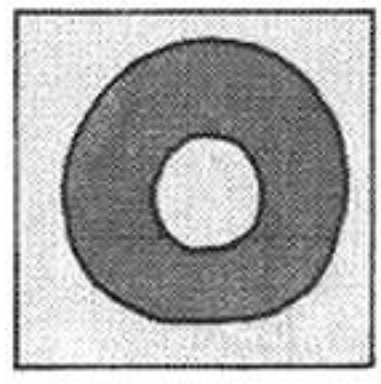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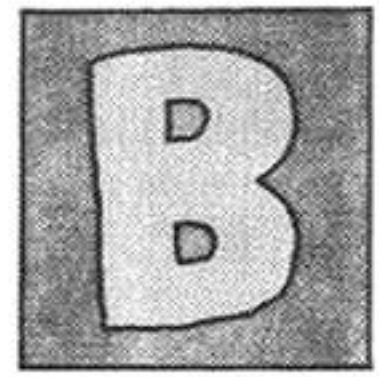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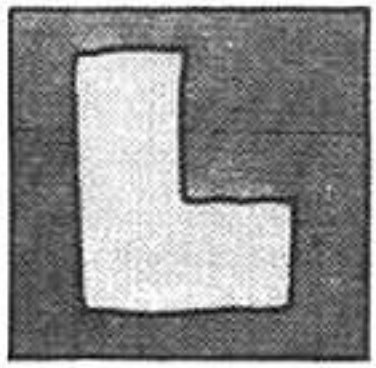
제106화
강적끼리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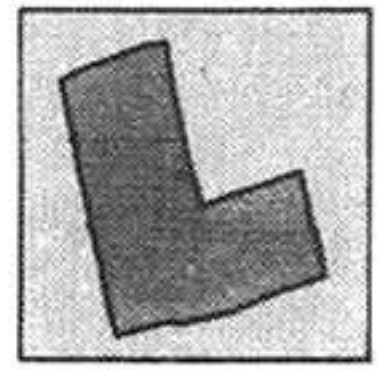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제108화 손오반



DRAGON 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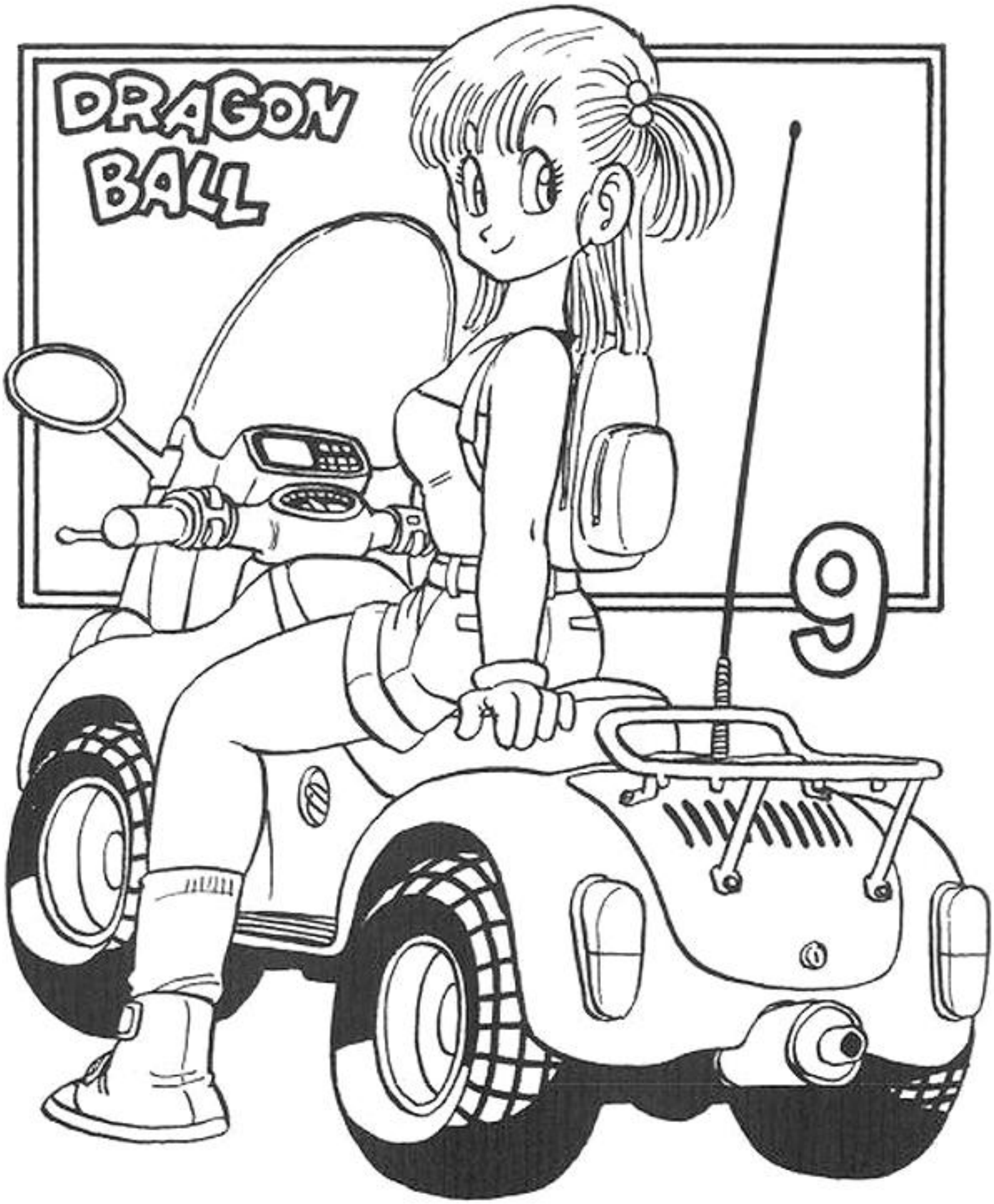
연재2주년 기념 선물대잔치 ②

이 선물은
잡지 연재
당시의 것으로,
지금 엽서를
보내 봤자
당첨은 안 돼요!



색칠그림

좋아하는 색을 칠해 화사로운 분위기를 즐깁시다.



IQ JUMP COMICS

DRAGON BALL



살아있는 만화의 전설 〈드래곤 볼〉!
무삭제 오리지널판 완벽 부활!!

scanned by raprnb